

# 뜨개는 - 사랑이다

Knitting is Love.

정우경

과거, 현재

그리고...

Jeong, Woo Kyung

Past,

Present

and...

평론

Jeong Woo-Kyung Review

Ruthie Tucker  
Amsterdam Whitney Gallery  
Executive Director – Curator

Jeong Wookyung's  
solo exhibition  
- Knitting Paintings,  
Past, Present, and -

By Joo Sungyeol  
(Sejong University, Art Philosophy)

Jeong Wookyung  
- Knitting Paintings

By Park Youngtaek  
(Professor at Kyonggi University, Art Critic)

Jeong Wookyung  
- Leaning on the  
Breath of Earth

By Hwang Chanyeon  
Art Critic

칼럼

"Knitting is Love." #1

Jeong Woo-Kyung  
Artist

"Knitting is Love." #2

Jeong Woo-Kyung  
Artist

Here's the New York  
travelogue #1

Jeong Woo-Kyung  
Artist

Here's the New York  
travelogue #2

Jeong Woo-Kyung  
Artist

City Exploration (Paris)

Jeong Woo-Kyung  
Artist

A cafe gallery

Jeong Woo-Kyung  
Artist

뜨개는 -  
사랑이다

Knitting is Love.

정우경

과거, 현재  
그리고...

Jeong, Woo Kyung  
Past,  
Present  
and...

목차

2020~2024 年作  
0 4-127p

2003~2010 年作  
254-259p

2011~2019 年作  
128-253p

2000~2002 年作  
260-268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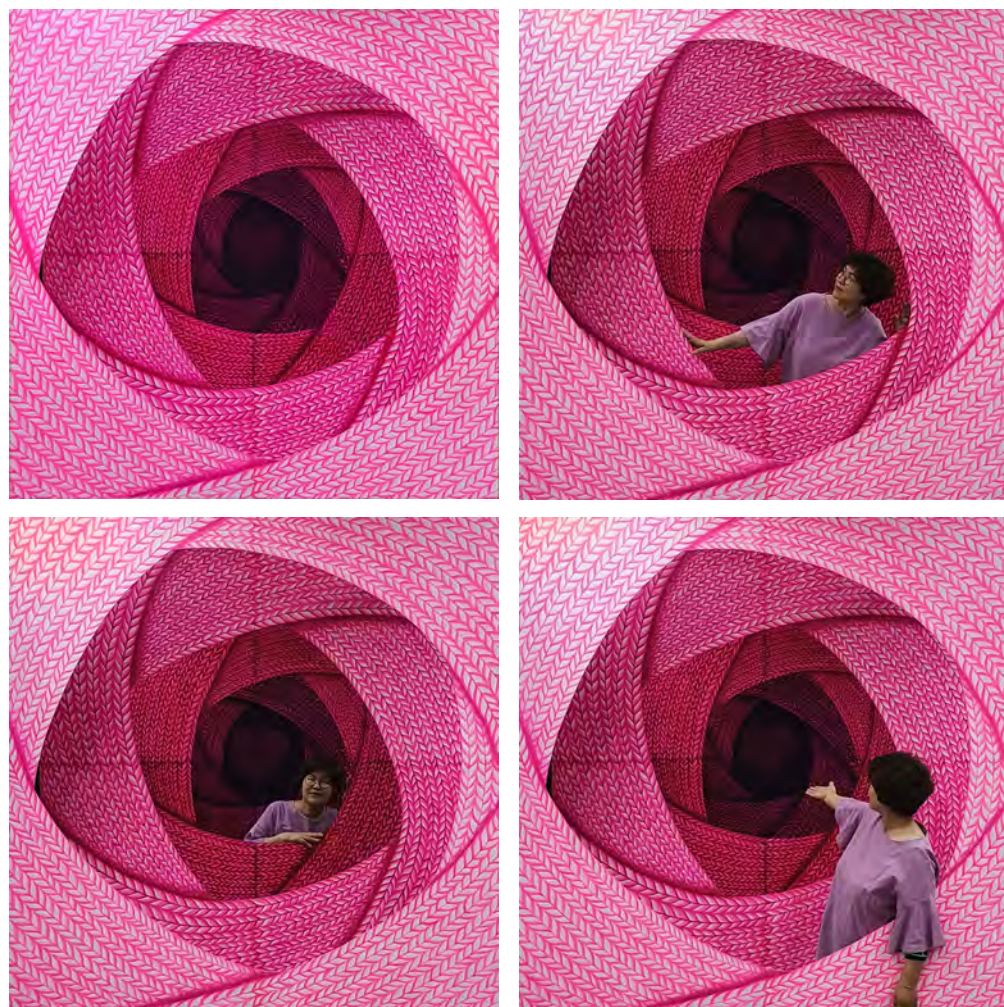
## 과거 현재 그리고... (긍정적인 사랑의 에너지)

캔버스에 그려진 회화 작품은 무수히 많은 선과 선이 만나고 색과 색의 겹침과 축적으로 뜨개 무늬라는 면을 만드는 작업이다.

멀리서 보면 하나의 색으로 보이지만 가까이 보면 볼수록 겹겹이 쌓인 색색의 물감들이 착시현상을 불러와 손으로 만지고 싶은 충동을 일으킨다. 이런 일련의 작업 과정에서 과거의 행복한 기억을 소환하고 그 기억이 현재의 시간에 투영되어 치유의 시간이 되기도 한다. 뜨개 무늬라는 이미지는 작가의 시각으로 모방과 재구

성을 반복적으로 그리면서 완성되며 그 속에 뜨개는 곧 『긍정적인 에너지며 사랑이다』라는 철학으로 작업을 이어가고 있고 다양한 전시회를 통해 그림을 보고 느끼는 관람객과 감정의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연구하고 있다.

에너지, 모든 생물이 살아가기 위한 생명의 원천이다. 에너지에 의해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고 관계와 관계 속에서 서로 엮이고 부대끼며 각자의 인생을 살아간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만물은



● Past, Present and...(3D Energy)

Acrylic on Mixed media | 180.0 x 180.0 x 160.0cm | 2021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얻고 수많은 생각과 행동으로 에너지를 만들어 발산한다. 이런 근본적인 과정을 통해 비로소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낀다.

작품을 마주하고 감정을 교감하며 느끼는 이들이 실과 뜨개라는 매체를 통해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긍정적이고 무한한 사랑을 떠올리고 삶의 에너지와 사랑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 Past, Present and... (Positive Energy of Love)

"Crochet is love." I'm working with the idea that love is the fundamental energy that moves the world.

I see art as living, as life itself. Past, Present and...

Living means being intertwined with countless moments and relationships, where the forces of love, big and small, move within those interconnections.

Delving into that force, one arrives at the conclusion that humans and nature are one. Living means within its intensity, creation and destruction intertwine endlessly, showing novelty every day.

I grew up under my grandmother's care from a young age. My mother, being busy working in the house and market as the wife of a market vendor, couldn't leave my elderly grandmother alone in the countryside. I hardly have any memories of living with my parents among my four siblings. Perhaps that's why? I remember asking my mother, gazing at the round moon in fifth grade, "Mom, why am I the only one living with grandma?"

To that question, my mother didn't respond

and simply stared at the moonlit sky, seeming to sigh silently. Since that day, I never dared to be petulant with my mother.

Time passed, and I entered university, studying art systematically to pursue my dreams, but I got married right after graduation. As a mother of two, I gradually realized the love I wanted to fill. Despite not living with my parents, I learned that they expressed love in various ways. Among them, what stands out the most is my mother's handmade crochet, sending capes, trumpet pants, and more with red and green threads. She would unravel them a bit when they became small and knit them again with care.

Being busy with work and household chores, it must have taken immense effort and love for my mother to knit for her eldest daughter who lived apart while raising four siblings. Becoming a parent myself, I could feel that position and the amount of love it required.

I started conceptualizing works, maximizing the energy of the love I received, and began drawing in a crochet style. I continue to study diligently and devote myself to artistic activities.





을 존중하고 타자의 사유를 인정하며 새로운 것을 창출하려는 사유의 확장을 강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작가의 작품세계의 주요 테제는 “긍정적이며 무한한 사랑”이라 할 것이고, 어머니와의 관계, 그리고 그 속 얽혀 있는 사랑과 이해가 실뜨개질의 뜨개 무늬로 등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니체의 “대지의 부름”은 결국 어머니의 대지이고, 모든 생명을 놓고 기르며 품고 있는 대지와 연결되는 것이다.

작가 정우경의 개인적 경험과 작품을 이끌어가는 그 예술적 사유를 생각해보면서 더불어 작가의 〈Past, Present and...〉시리즈를 함께 관찰해봄으로써 작품 한 점 한 점에 대한 이해의 태도가 좀 더 깊어져 간다. 그의 작품에는 대상 세계의 관조적 태도와 이해의 태도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자신의 개인적 경험과 그 안에서 발현된 정서와 정감 그리고 새로운 경험과 이해로의 확장은 작은 붓질로 시작되는 화면, 대지에 싹을 틔우는 생명의 몸짓들, 대지에 깊숙이 뿌리를 박고 하늘을 향해 느림의 성장을 거듭하는 모든 생명의 리듬을 포함하고 있다. 마치 뜨개질을 통해 실이 엮이며 무한히 성장하듯, 작가의 다양한 예술적 사유들이 서로 뒤틀리고, 비벼지고, 엮어지면서 다시 하나의 사유의 지평으로 흡수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반복을 거듭하며 생성된 작품의 결은 마치 우리 인간들의 복잡한 내면세계를 보여주는 듯 각양각색의 결들로 구조화된다.

이러한 결과물들이 그의 〈과거 현재 그리고...〉시리즈로 귀결되고 있는데, 딸과 어머니가 함께 서로 합장하며 인사를

작가 정우경과의 인터뷰에서 니체의 사유에 큰 감명을 받고 있으며, “대지의 부름”에 응답하고 있는 점에서 현재 자신의 예술적 사유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세계의 모든 에너지의 근원을 어머니의 자궁과도 같은 긍정적이고 무한한 사랑임”을 강조했다. 니체는 그의 저서〈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대지의 부름”을 중심 개념으로 삼고 인간의 정체성, 의미 있는 삶, 도덕 등에 대한 니체의 사유 세계를 펼쳐낸다. 주요 요지는 인간이 스스로 발견하고, 자기 자신의 가치와 가능성을 인정하며, 다른 사람들의 가치나 편견에 휘둘리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니체는 대지의 부름을 통해 현존하는 가치관을 뛰어넘는 새로운 도덕적 체계를 제시하며, 자기를 찾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가는 개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것은 곧 개인의 삶을 이끌어가는 창조적인 힘의 원천이며, 곧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는 길이며, 곧 초월적 의지를 지닌 한 개인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니체의 사유는 다시금 질 들뢰즈의 “내재성의 사유”로 이어지는데, 질 들뢰즈는 니체의 사유에서 현대 철학의 새로운 사유의 지점을 찾아내었고, 니체가 강조하였던 자기중심성과 독립성, 자기 발전과 창조성은 들뢰즈의 “내재성의 사유”로 수렴되고 있다. 니체로부터 들뢰즈로 이어지는 사유는 대상과 주체 간의 이분법적인 구분을 해소하려는 시도이며, 타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대상과 주체의 상호작용성이란 작은 범주의 관계성을 벗어나 타자와의 상호작용과 관계에서 파생되는 모든 창조성을, 모든 아이디어를, 모든 개념, 모든 가능성, 모든 잠재성을 탐구하고 사유함을 내포한다. 더 나아가 타자의 존재성



## 정우경 - 대지의 숨결에 기대어

### 황찬연 미술평론가

대지는 인간 생명의 근원이자 종착지이며, 천변만화하는 대우주의 변화의 한 마당이다. 인간의 의지를 벗어난 지점에서 특별한 목적성도 없이 오로지 무한하게 펼쳐지고 다시 회귀를 반복할 뿐이다. 무한히 반복하는 대지의 운동들은 인간을 포함한 삼라만상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발생시키며 우리를 늘 기대할 수도 없고, 예상할 수도 없는 못 세계로 안내한다. 이러한 큰 마당의 품 안에서 인간은 대지의 숨결에 기대어 서로 배우고, 서로 숨 쉬고, 서로 나누며 살아간다. 그러나 이 대지가 순행하는 그 심오한 길은 인간의 이성과 오감으로는 명명할 수 없고 오로지 우리네 삶에 대한 깊은 통찰과 실천적 행위를 통해서 만이 도달할 수 있을 뿐이다.

작가 정우경은 대지의 숨결에 기대어, 대지의 부름에 응답하며 예술적 사유를 펼치고 접기를 반복한다. 커다란 붓을 들고 광활한 대지 위를 스치는 바람과 함께 춤을 추거나, 깊은 침잠 속에서 가려진 세필로 대지의 숨결과 호흡을 맞추며 한 올 한 올 그 숨결들을 채우고 비워낸다. 대지의 결을 채우고 다시 지우는 행위는 세계 내 존재들의 서로 얽혀 있음을 드러내고 세계의 무목적성과 자신의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의 긴밀한 관계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작가의 뜨개질 화풍의 작품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환기하는 것, 화면에 켜켜이 쌓이면서 드러나는 미묘한 심미적 형상들 속에서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의 체온이 느껴진다.

작품의 표면에는 그가 세상과 함께 보내온 모든 외적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있고, 그 심연에는 그가 자라오며 겪었던 내적 시간의 흔적들이 가감 없이 자리한다. 한 인간의 마음 씀은 어느 형상으로 옮겨지고, 그것은 그의 몸이 되고, 대지이자 대지의 숨결이 되어 보는 사람들의 정서로 스며들어 이내 하나로 어우러지며 깊은 공명을 일으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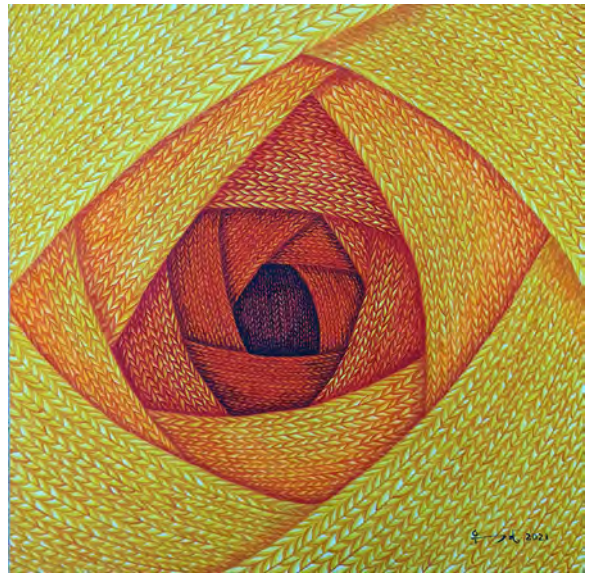
정우경의 〈Past, Present and...〉시리즈 중 세로 130센티미터에 가로 900센티미터를 넘는 대작들이 몇 점이

있다. 일견 수행자의 용맹정진처럼, 고난의 성지순례자처럼, 어머니의 정화수 기도처럼, 자식에게 입힐 옷을 손수 짓는 어미의 마음처럼 일 년여 기간을 자기 몸을 붓 삼아 정성을 다해 탄생시킨다. 2~3년에 한 번 정도 이 대작을 완성하고 있는데, 작가로서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 같고, 명상의 공간에 자리한 수행자의 면벽수행을 연상시킨다.

작품의 제작과정을 요약하여 설명하자면, 그는 화실의 한 쪽 긴 벽을 하얀 캔버스로 가득 채우고, 하얀 캔버스에 위에 대지에 참여져 있는 온갖 생명들의 기운과 리듬을 표현한다. 그리고 왼쪽 끝부분에서부터 얇은 수직선을 내리그은 후 수직선을 중심으로 좌우로 붓질을 내려긋는다. 작은 이파리 같은 선들이 표면 위에 그어진다. 그 선 위에 다시 선이 올려지고 또다시 한 선이 쌓인다. 한 수직선 위에 수천 번의 선들이 쌓인 후에야 한 선이 마감된다. 그리고 다시 한 선이 그어진다. 무한히 반복되는 수직선과 그 위를 가로지른 점들, 선들. 마치 뜨개질의 한 올 한 올이 서로 얽히들며 한 땀 한 땀 성장하듯, 베를 위에 펼쳐진 씨실과 날실이 무한히 교차하며 한 줄 한 줄 증식하듯, 하루, 이틀, 삼일, 한 달 두 달, 반년, 결국 한 해가 되어서야 그 광활한 대지 위에 마지막 결점을 찍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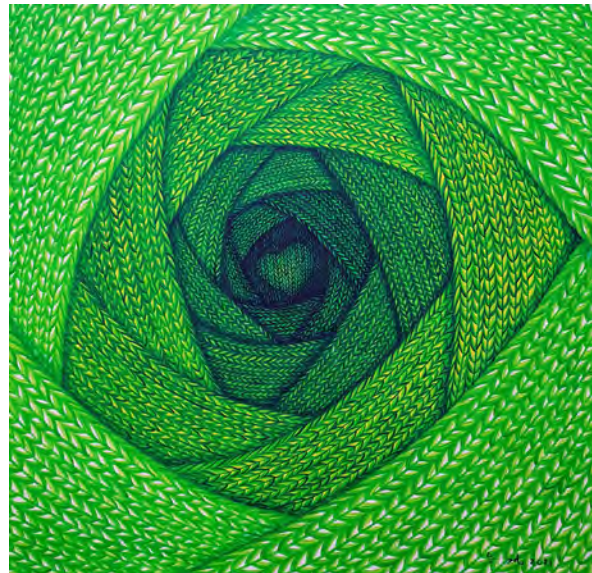
작가의 이 작품은 완성된 후 전시장에서는 180° 회전되어 전시된다. 왼쪽과 오른쪽이, 하늘과 땅이 그 자리를 대체하는 것이다. 하여 아래로 내리그은 선들은 이제 하늘을 향해 일어서게 된다. 이러한 특성 때문일까? 가까이에서 관찰하며 보았던 모든 점, 선, 면들이, 한 줄 한 줄 엮여져 뜨개질로 만들어진 물질 같은 캔버스가 일제히 사라지고 오로지 눈앞에 푸르른 대지의 일렁임만이 느껴진다. 바람의 흐름을 따라 대지의 숨결을 따라 드러눕는 풀들의 아우성들이 일제히 터져 나온다. 캔버스 공간을 세분하여 나누고 반복적으로 자신의 붓질을 채워 넣음으로써 캔버스라 하는, 예의 작품이라 하는 가시적 공간을 비가시적 공간으로 전환한 것이다. 그리하여 대담한 상상적이고 유희적인 공간이 펼쳐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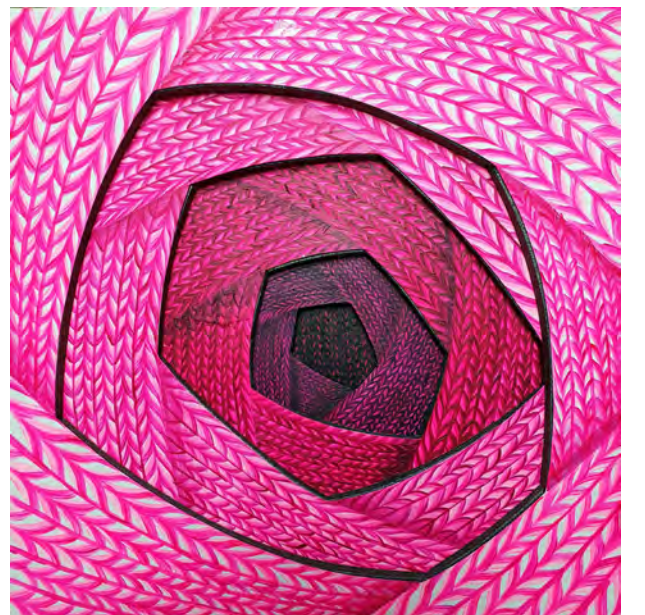
● Past, Present and...(Energy)  
Acrylic on Canvas | 45.5 x 45.5cm | 2021

과 헌신으로 인해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이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는 방법을 작가는 대지의 부름과 대지의 숨결을 따라서, 복잡성과 다양성으로 무한하게 얽혀 있는 세계의 구조를 드러내기 위해 자기의 몸을 대바늘 삼고 자신의 사유를 실 삼아 온몸으로 한 올 한 올 엮어내는 실천적 행위를 통해 우리에게 커다란 울림을 일으키고 있다.



● Past, Present and...(Energy)  
Acrylic on Canvas | 45.5 x 45.5cm | 2021

아울러 작가의 작품을 통해 우리 자신을 둘러싼 모든 세계에 보이지 않는 따뜻한 마음 씬이 느껴진다. 오직 인간만이 지난 과거와 그 안에 스며들어 있는 깊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이것들로 인한 분별심에 사로잡혀 배려와 관용, 베품과 자비, 용서와 이해의 너른 마음 씬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이렇게 말한다. “기억하라! 너 자신은 누군가의 사랑을



● Past, Present and...(Energy)  
Acrylic on Mixed media | 25.0 x 25.0cm | 2021



● Past, Present and...(Energy)  
Acrylic on Mixed media | 60.0 x 60.0cm | 2021



● Past, Present and...(Energy) Acrylic on Canvas | 150.0 x 150.0cm | 2021

나누는 작품, 함박꽃웃음을 짓고 있는 어머니와 아들의 초상 작품, 생명을 잉태한 임신부의 초상 작품, 꽃으로 피어난 가족사진 같은 작품을 비롯해 모든 인류에게 자비와 헌신, 사랑과 용서의 아이콘인 마더 테레사, 마하트마 간디의 초상 등 그의 지난 수많은 작품에서 드러내고자 한 표현의 지들이 한 올 한 올 얽히며 넓고 깊은 예술적 사유의 마당을 구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작가의 조형 어법은 대상을 표현하려는 재현적 방식을 벗어나서, 뜨개질 이미지를 통해 은유적이며 사유적인 회화적 표면의 구축이다. 사람의 마음을 따라 읽어가듯, 마음의 결들, 감정의 결들을 쫓으며 지나온 시간의 더께들을 걷어낸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마치 실 뜨개질로 엮어낸 캔버스 같은 사물적 인상을 주고 있지만 작품의 표

면에 가득한 인위적 표현을 비워냄으로써 오롯이 행위만을 남기는 태도가 드러난다. 아울러 뜨개질 구조이면서도 동시에 어떠한 대상과 사물들을 유추할 수 있는 형상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나타내어 보이는 작가의 조형 어법은 회화의 표면적 특성, 다시 말해 형상 중심적인 방식을 벗어나 작가적 신체 몸의 화면으로의 내밀한 투사, 색채와 색채들의 긴밀한 대비 그리고 일정한 간격들 사이사이의 미묘한 붓질의 움직임이 융합하면서 최종적으로 화면의 극렬한 운동성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비 형상적 특성이 강조되며 붓질, 흐름이, 주름들이 내부와 외부의 경계에 위치하고, 공간을 확장 시키거나 응축시키며 회화의 경계를 넘나든다. 다시 말해 대상의 재현과 비 재현의 경계를 흐리며 허(虛)와 실(實)의 가변적 경계 사이에서 작품이 생성되는 것이다.



## Jeong Wookyung - Leaning on the Breath of Earth

By Hwang Chanyeon,  
Art Critic

The earth is the origin and destination of human life, and it is a stage for the ever-changing transformations of the cosmos. Beyond the realm of human will, it unfolds infinitely without any specific purpose, only to repeat its movements endlessly. The infinite repetitions of the earth's movements generate the complexity and diversity of the world, including humans, guiding us into worlds we cannot always anticipate or expect. Within the embrace of this vast courtyard, humans learn from the breath of the earth, breathe together, share, and live with each other. However, the profound path that the earth follows can only be reached through deep insight into our own lives and practical actions, beyond human reason and senses.

Artist Jeong Wookyung leans on the breath of the earth, responding to its call, unfolding and folding artistic thoughts. With a large brush, he dances across the vast expanse of the earth, or with delicate strokes, he synchronizes his breath with that of the earth's within its deep slumber, filling and emptying each breath one by one. Filling and erasing the earth's traces reveals the interconnectedness of beings within the world, metaphorically expressing the purposelessness of the world and the intimate relationships between the external and internal worlds. His knitting style of artwork rejuvenates something within us, and within the subtle aesthetic forms that accumulate on the canvas, one can feel the warmth of someone praying

for another. Among Jeong Wookyung's series "Past, Present and...", there are several large works exceeding 130 centimeters in height and 900 centimeters in width. These pieces take about a year to complete, during which he devotes himself entirely, akin to a pilgrim's arduous journey or a mother's prayerful dedication. He completes these masterpieces every two to three years, seemingly engaging in deep introspection as an artist, reminiscent of a practitioner's silent medi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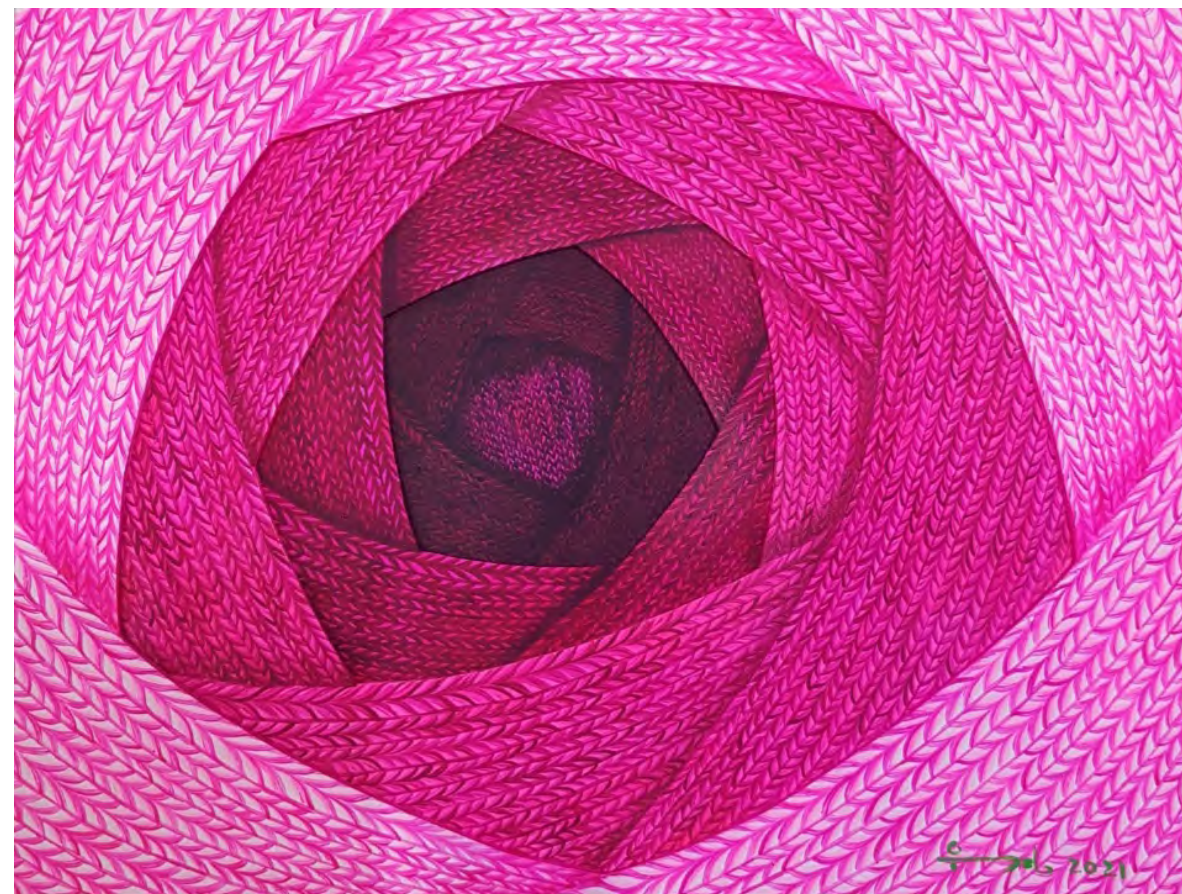
To summarize the process of creating his works, he fills one long wall of the studio with a white canvas, expressing the energy and rhythm of all life forms locked within the earth onto it. Then, starting from the left end, he draws thin vertical lines and sweeps the brush left and right from these lines' centers. Small, leaf-like lines are drawn on the surface, with one line stacking upon another thousands of times until one line is completed. Then another line is drawn, repeating infinitely until finally marking the last flaw on the vast earth.

Once completed, the artist's works are exhibited by rotating 180°. The left and right sides, the sky and the ground, are replaced. The lines drawn downward now rise towards the sky. Due to this characteristic, upon close observation, all the dots, lines, and surfaces seen up close disappear, leaving only the undulations of the verdant earth. The murmurs

of grasses, lying down following the flow of the wind and the breath of the earth, burst forth. By dividing the canvas space finely and repetitively filling his brushwork, he transforms the visible space of the canvas, termed as a polite artwork, into an invisible space. Thus, a bold, imaginative, and playful space unfol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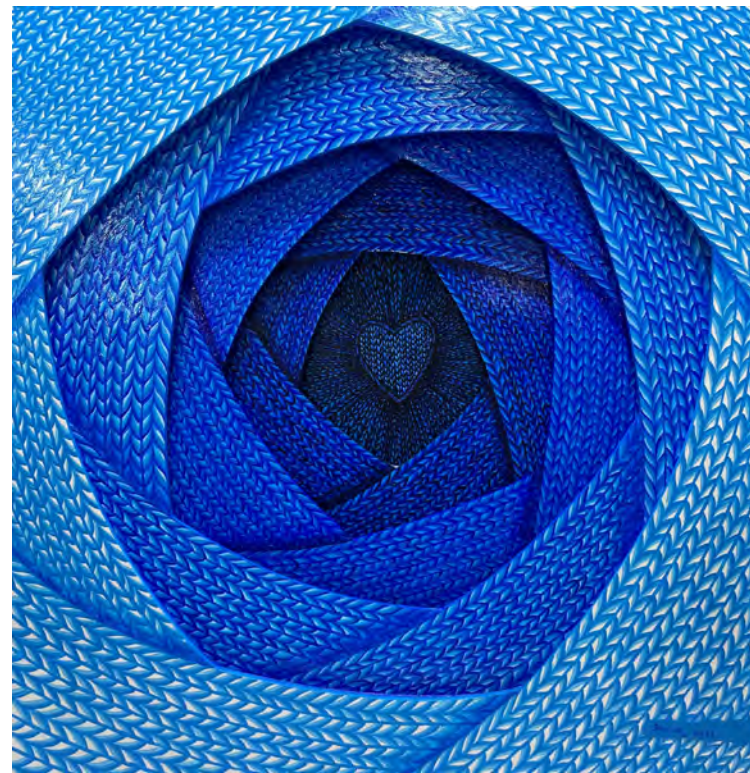
In an interview with Jeong Wookyung, he expressed a deep impression from Nietzsche's philosophy, explaining that he resonates with the "call of the earth" in his current artistic thought. He emphasized that "the origin of all energy in the world is a positive and infinite love, much like a mother's womb." Nietzsche, in his work "Thus Spoke Zarathustra," centralizes the concept of the "call of the earth" and unfolds Nietzsche's philosophical world regarding human

identity, meaningful life, and morality. His main point emphasizes that humans must discover their own worth and potential, live freely without being swayed by others' values or prejudices. Nietzsche also proposes a new moral system that transcends existing values through the "call of the earth,"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individuals who seek themselves and live as free souls. This leads to a creative power that guides one's life, becoming the path to becoming the master of one's life and growing as an individual with transcendent will. This reasoning from Nietzsche to Deleuze is an attempt to resolve the dichotomy between subject and object, exploring and thinking about all creativity, ideas, concepts, possibilities, and potential derived from interactions with others. It emphasizes the expansion of thought by respecting the



● Past, Present and...(Energy) Acrylic on Mixed media | 40.2 x 30.1cm |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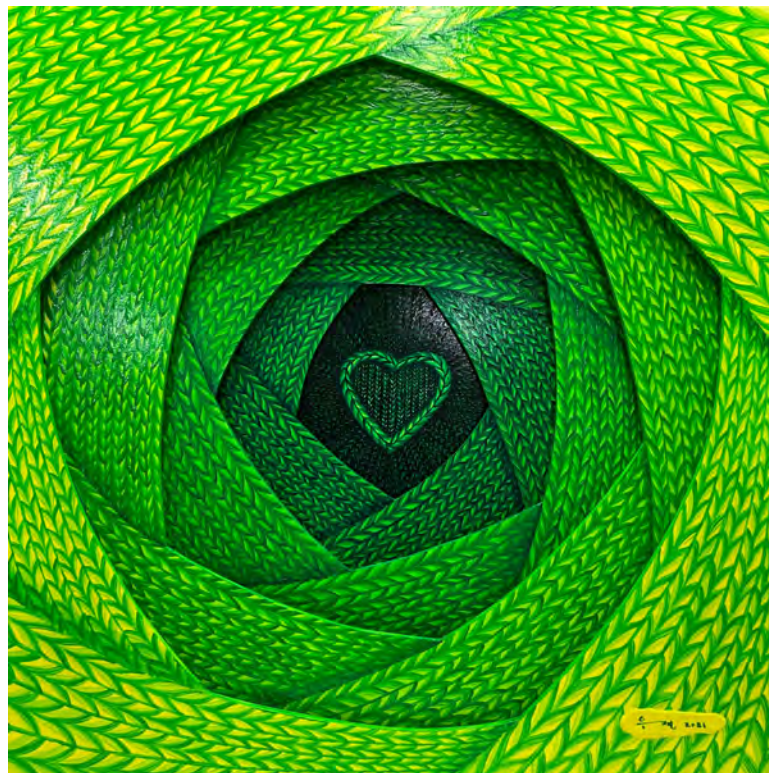


● Past, Present and...(Energy) Acrylic on Mixed media | 60.0 x 60.0cm | 2021

and thoughtful painting surfaces through knitting imagery. While giving a material impression like a canvas woven with yarn, emptying the artificial expressions on the surface of the work reveals an attitude that leaves only the action. Moreover, while being a knitting structure, the artist's artistic technique simultaneously represents the inner and outer aspects of shapes that can be inferred as objects. This technique, emphasizing non-figurative characteristics, places brushstrokes, flows, and folds on the boundary between internal and external worlds, expanding or condensing space and crossing the boundaries of painting with the dynamic movement of the canvas. In this way, the artwork is generated between the mutable boundaries of void and reality.

Furthermore, through the artist's works, one can feel a warm heart that permeates all the worlds surrounding us. Only humans, ensnared

by deep anger, sadness, and discernment born from the past, forget the wide-heartedness of consideration, tolerance, generosity, forgiveness, and understanding. The artist says through his works, "Remember! You are here because of someone's love and dedication." He creates large resonances for us through practical acts, threading his body with large needles, embodying his thoughts through his body, and weaving his thoughts into his whole body, following the call and breath of the earth, revealing the infinite complexity and diversity of the world entangled with complexity and diversity.



● Past, Present and...(Energy) Acrylic on Mixed media | 60.0 x 60.0cm | 2021

existence of others, recognizing their reasoning, and creating new things. In this context, the main thesis of the artist's world of work is "positive and infinite love," intertwined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 and all life, love, and understanding depicted as knitting patterns.

Thinking about the artist's personal experience and his artistic thought leading his works, observing his series "Past, Present and...", one's attitude of understanding each piece deepens. His works centralize an observational and understanding attitude towards the world of objects. His personal experiences, emotions, and sentiments expressed within them, as well as the expansion towards new experiences and understanding, include the rhythm of all life forms, starting with small brushstrokes on the canvas and the gestures of life sprouting on the earth, rooting deeply into the earth and repeatedly growing slowly towards the sky. As if woven

through knitting, the artist's various artistic thoughts twist, collide, and intertwine, eventually absorbed into one horizon of thought. Thus, the works, repeatedly created, are structured into various forms of human inner worlds, showing the complexity of our inner selves through various knots.

These results culminate in his series "Past, Present and...", encompassing the expression of desires he wanted to reveal from his past numerous works. These include works depicting interactions between family members, icons of compassion and dedication such as Mother Teresa and Mahatma Gandhi, and expressions of love and devotion, weaving one by one into a broad and deep artistic thou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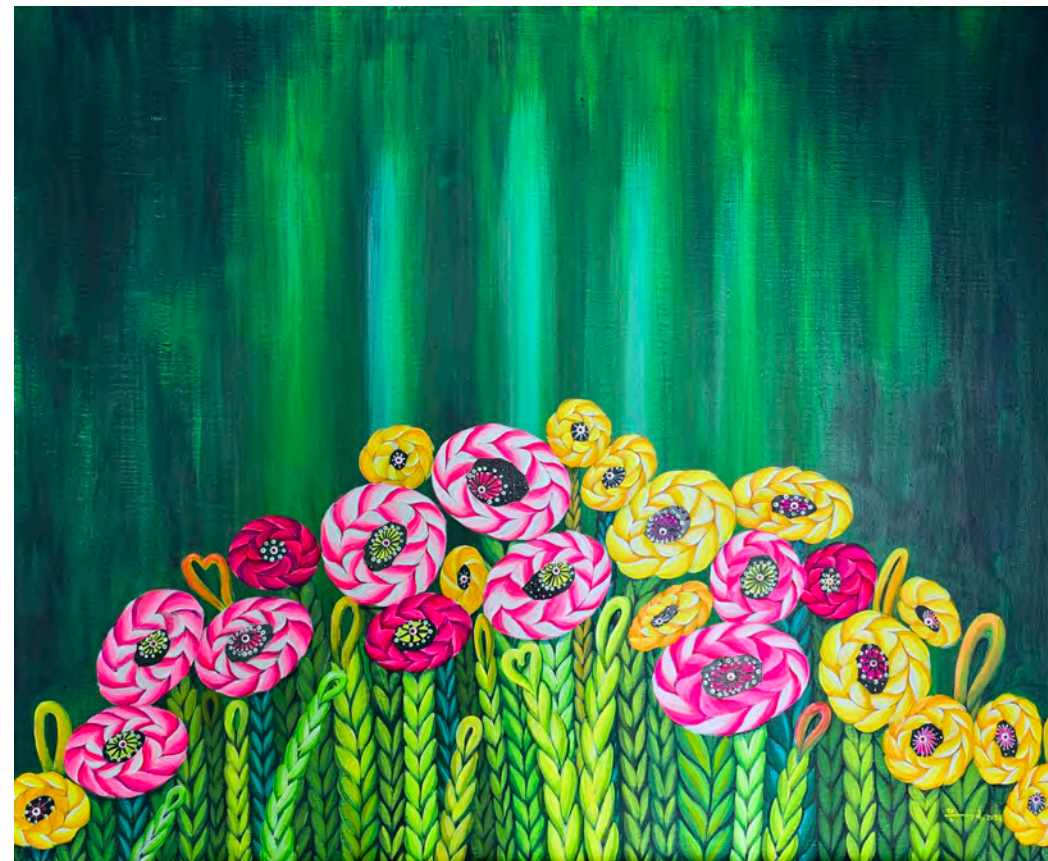
In conclusion, the artist's artistic technique moves beyond the reproductive method of expressing the subject, to the construction of metaphorical



2024~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 72.7 x 60.6cm | 2024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 90.9 x 72.7cm |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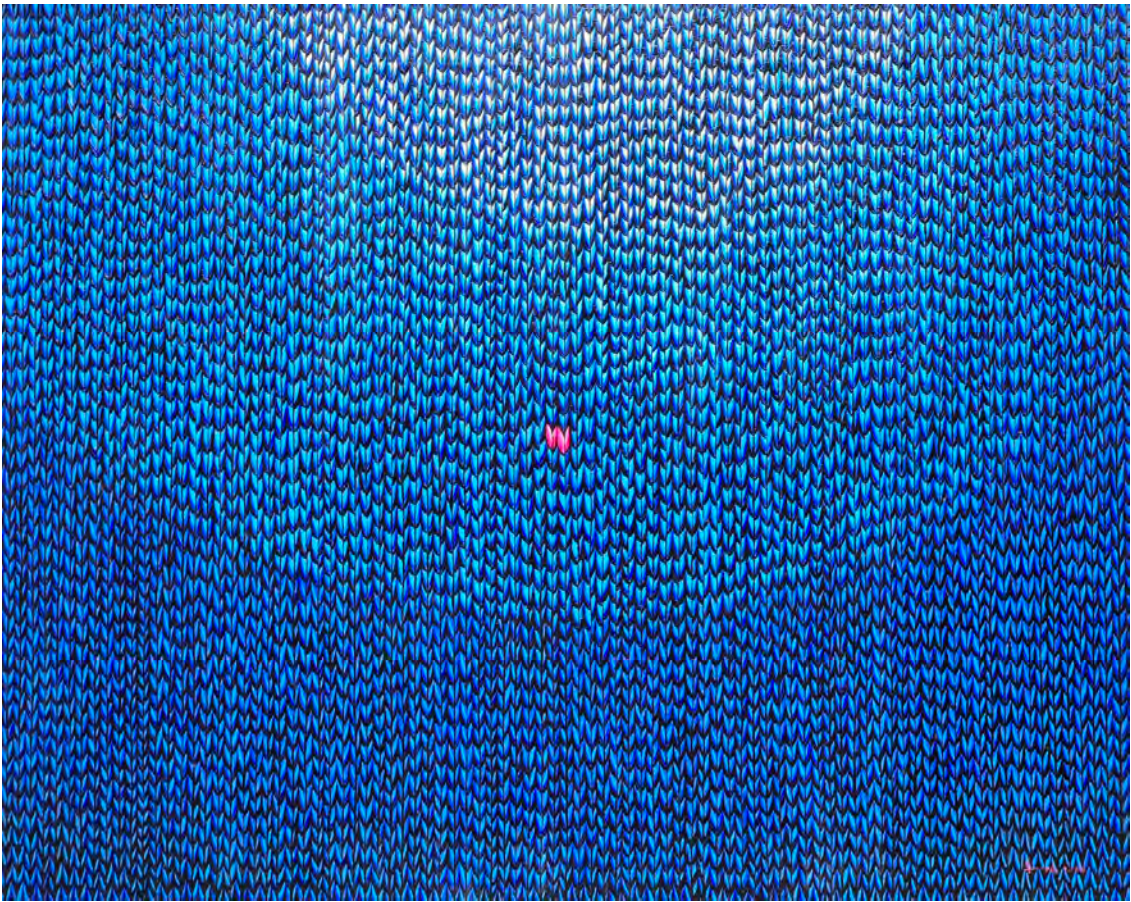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 72.7 x 90.9cm | 2024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Board | 35.0 x 35.0cm | 2024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 90.9x72.7cm |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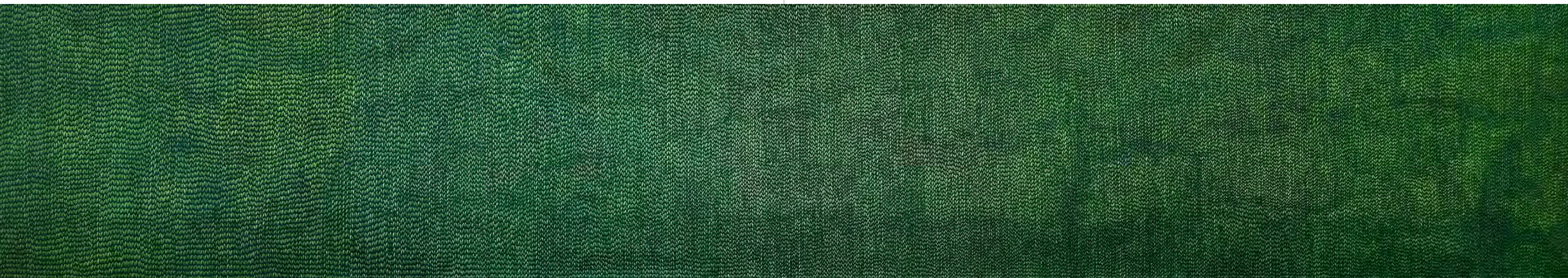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Board | 35.0 x 35.0cm | 2024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Board | 35.0 x 35.0cm |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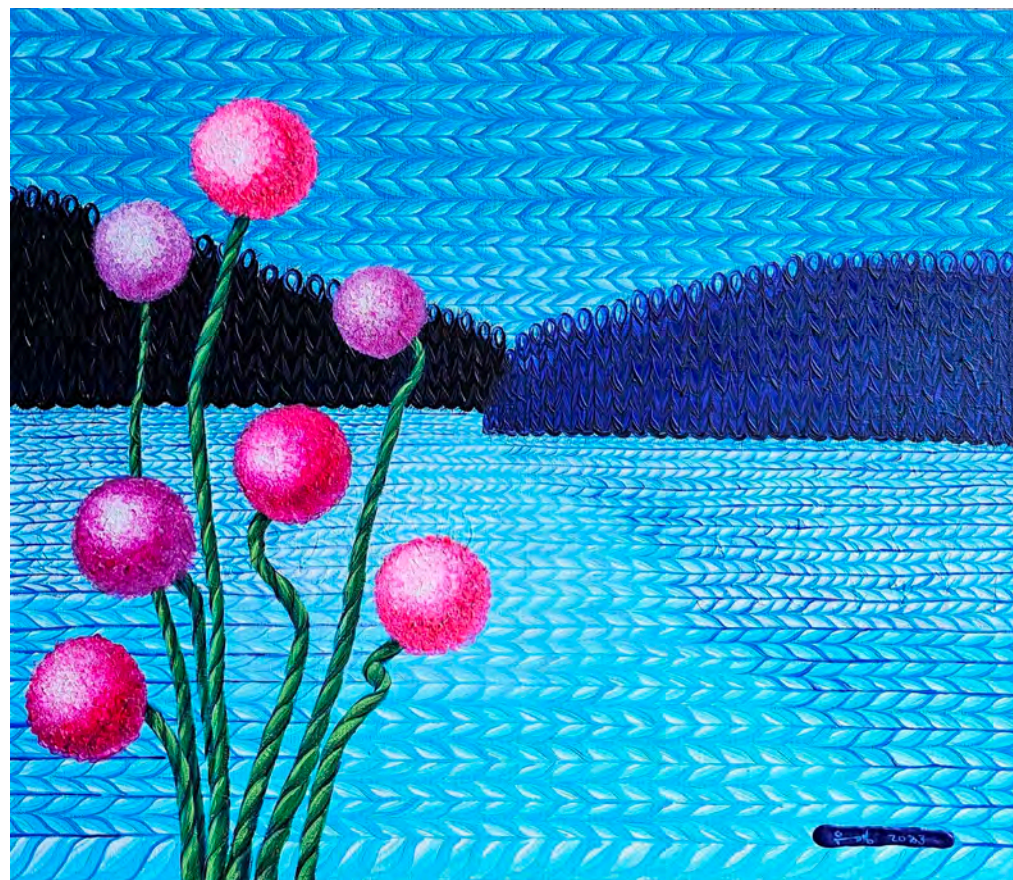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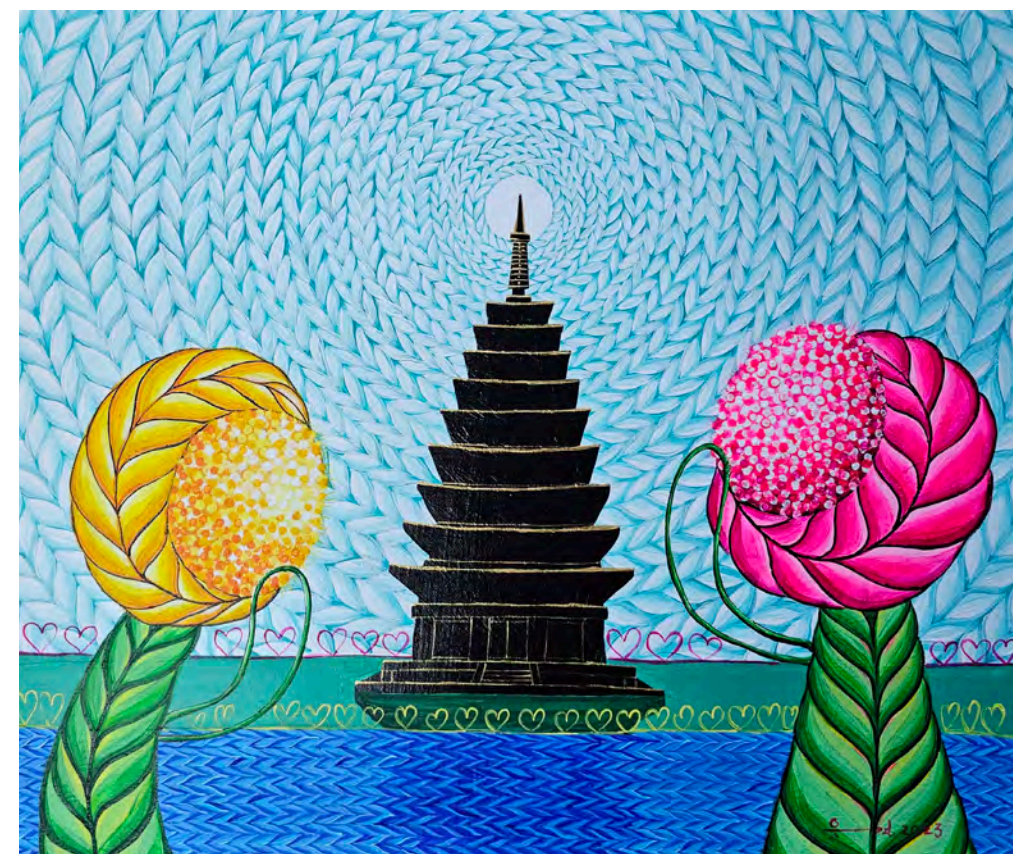
● Past, Present and...(Be faithful to the earth)

Oil on Canvas | 900.0 x 162.2cm | 2023~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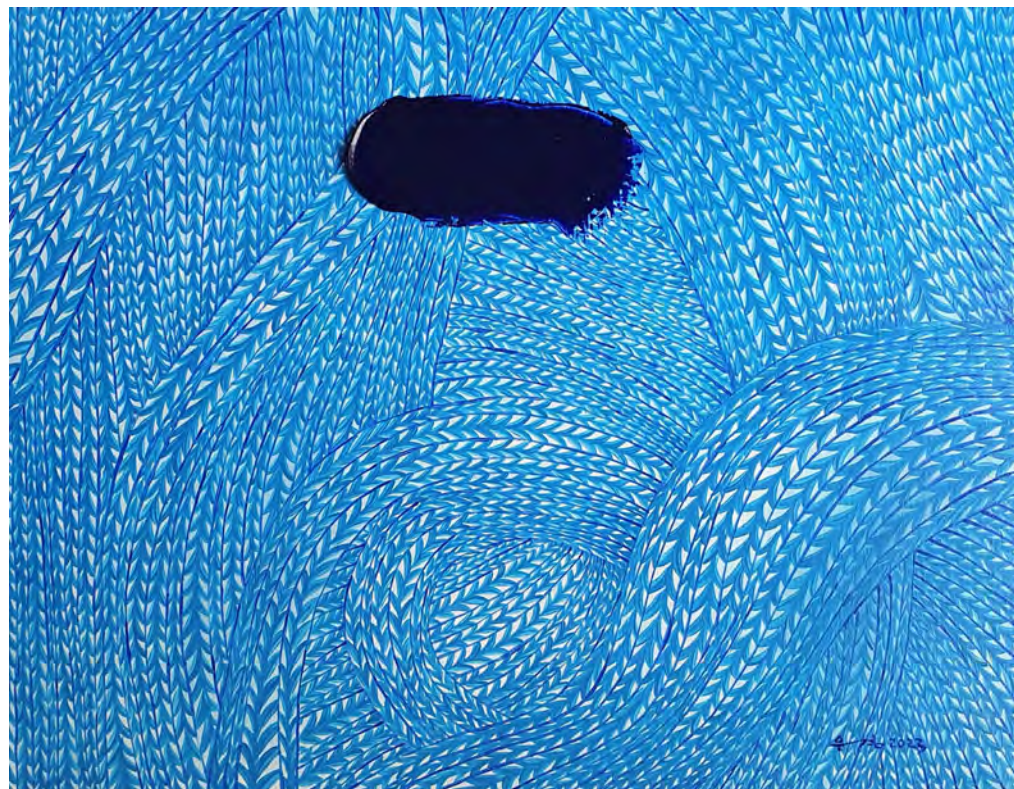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 45.5 x 53.0cm | 2023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 45.5 x 53.0cm | 2023

#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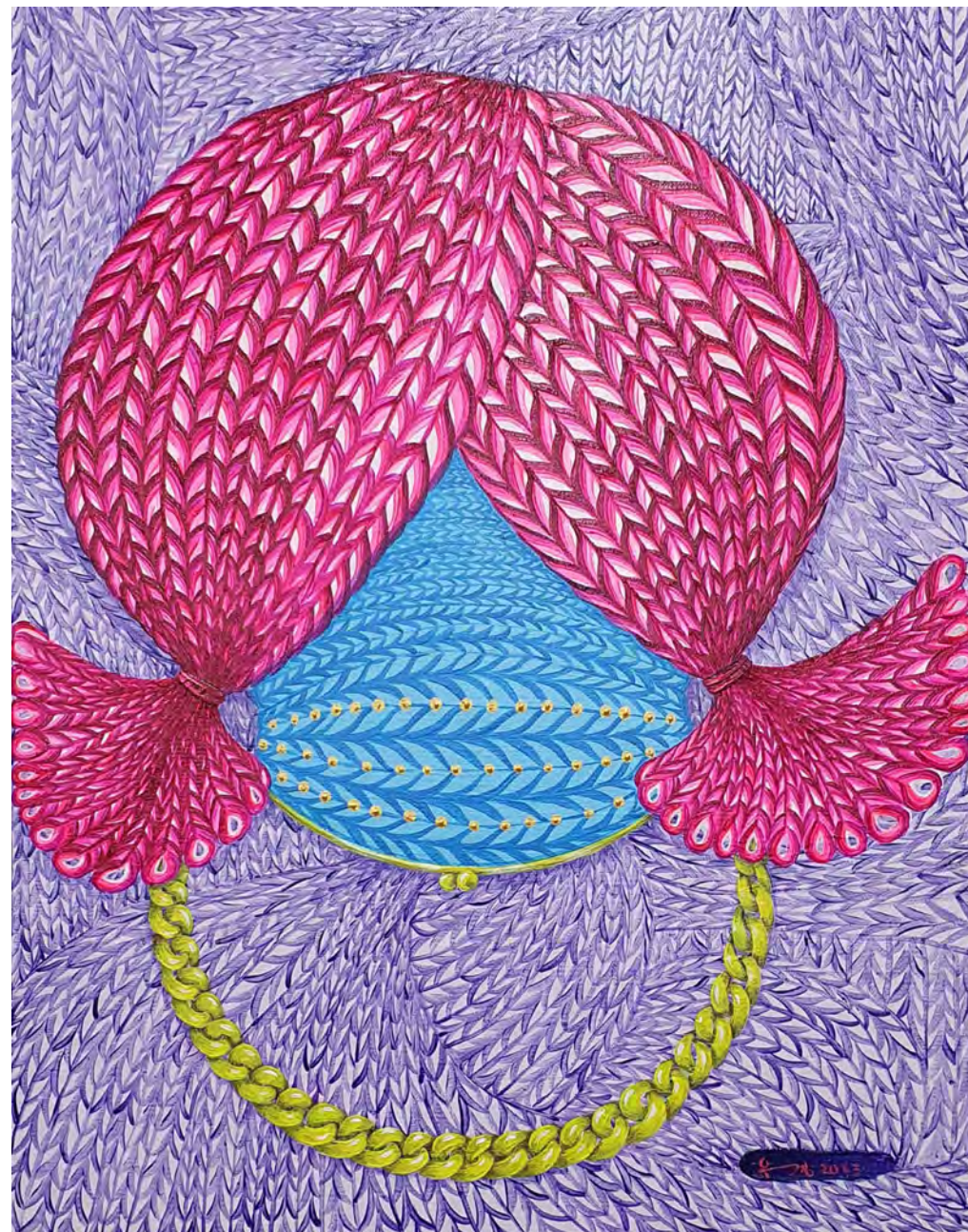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 40.9 x 53.0cm | 2023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 40.9 x 53.0cm |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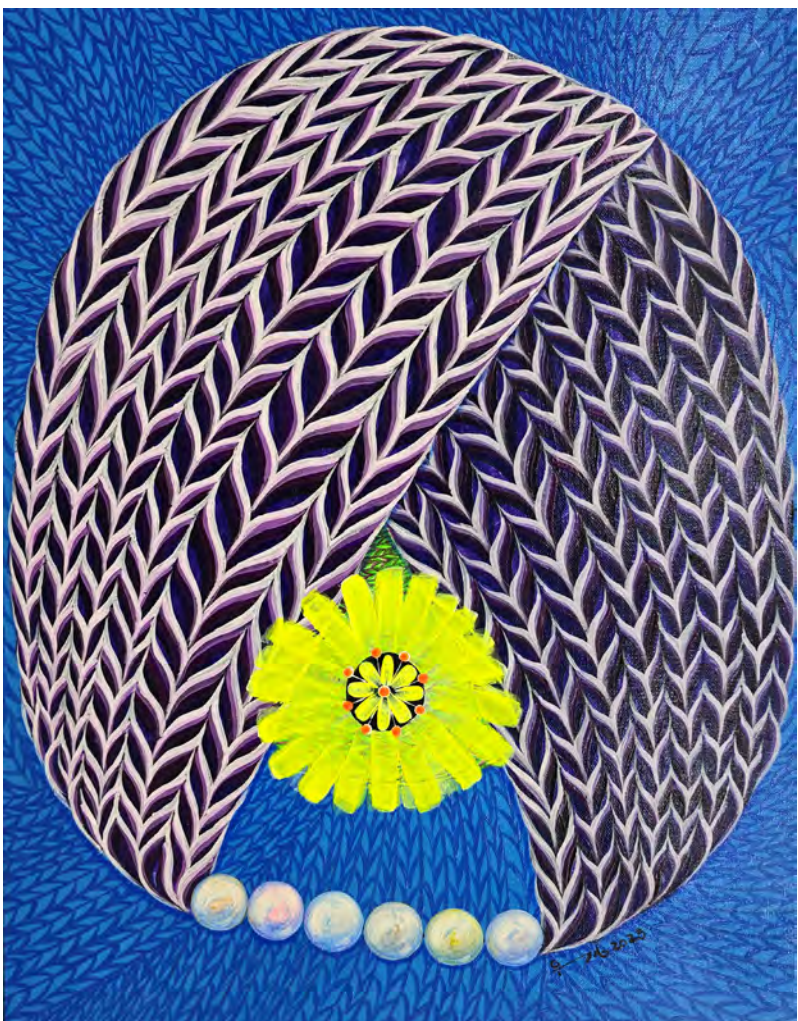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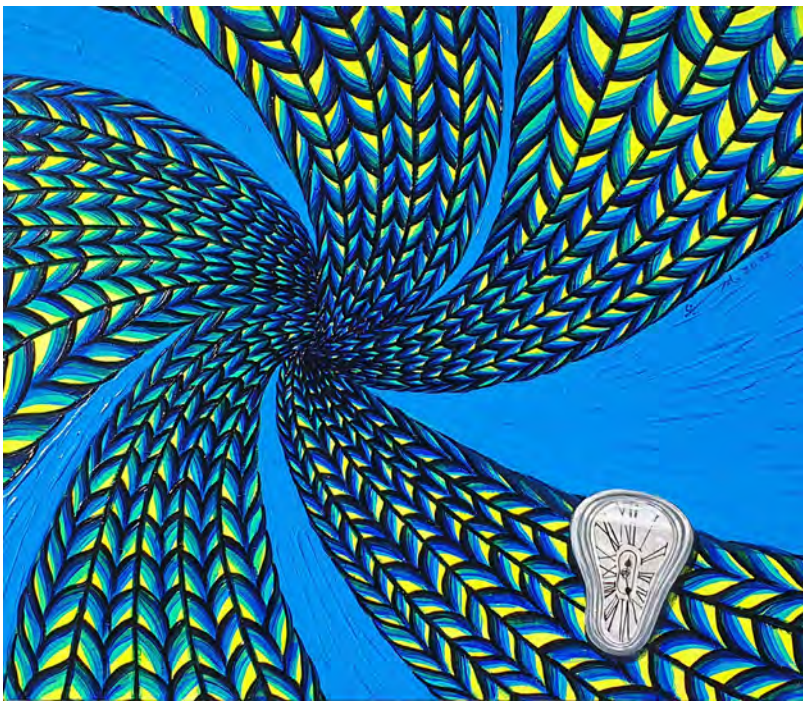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40.9 x 53.0cm | 2023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40.9 x 53.0cm | 2023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53.0 x 45.5cm | 2023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53.0 x 40.9cm | 2023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40.9 x 53.0cm | 2023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 65.1 x 53.0cm | 2023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 65.1 x 53.0cm | 2023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 53.0 x 45.5cm | 2023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 65.1 x 53.0cm | 2023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 65.1 x 53.0cm | 2023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 72.7 x 60.6cm | 2023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 65.1 x 53.0cm | 2023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 72.7 x 60.6cm | 2023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72.7 x 90.9cm |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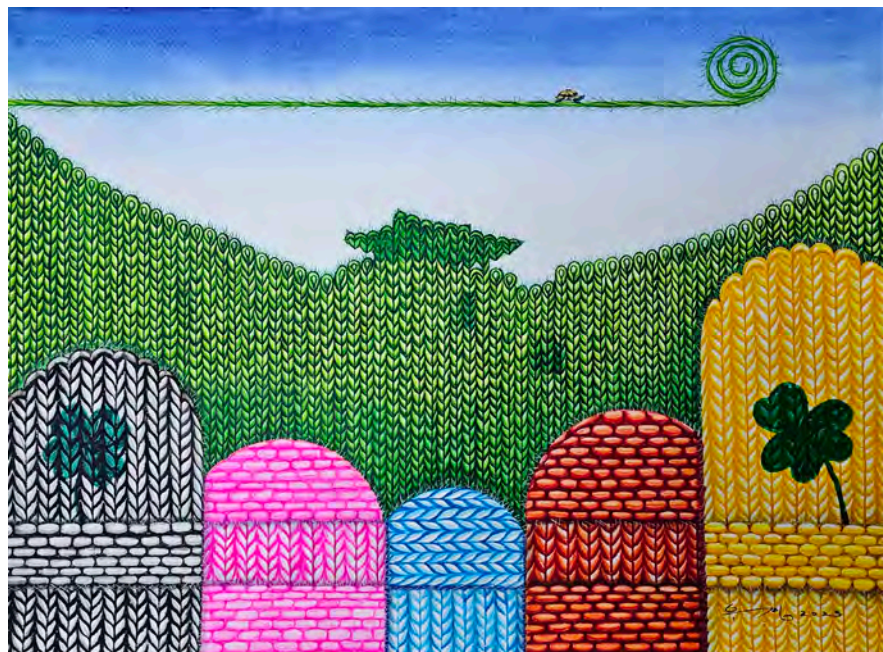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72.7 x 90.9cm | 2023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72.7 x 60.6cm |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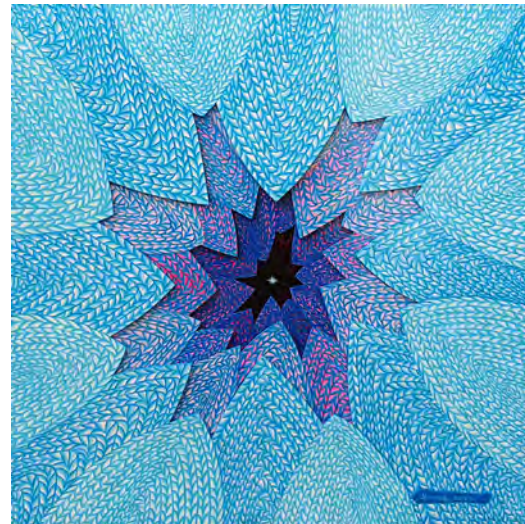
●  
Past, Present and...  
Watercolor on Paper  
40.0 x 30.0cm | 2023

2022~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 40.9x31.8cm |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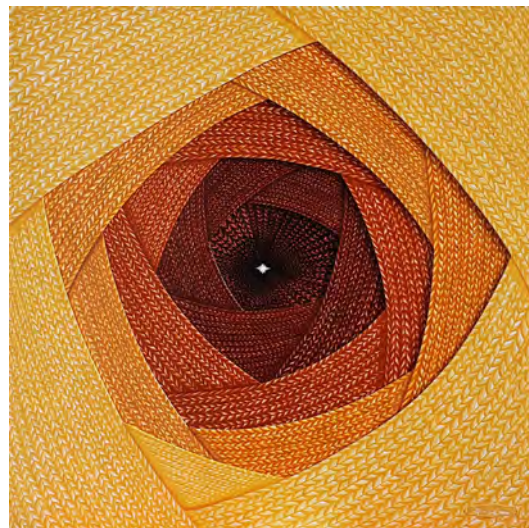
● Past, Present and...(Energy)  
Acrylic on Mixed media | 60.0 x 60.0cm |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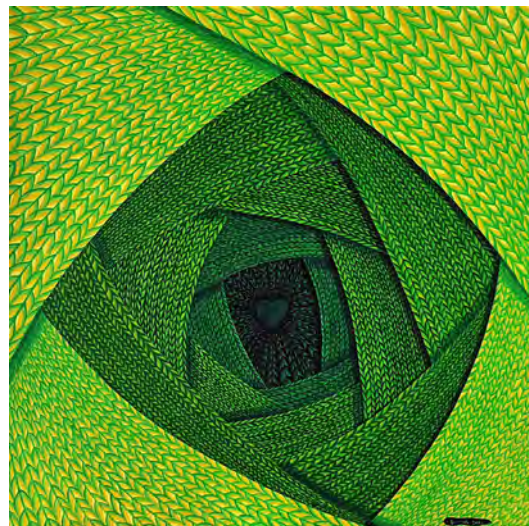
● Past, Present and...(Energy)  
Acrylic on Mixed media | 60.0 x 60.0cm |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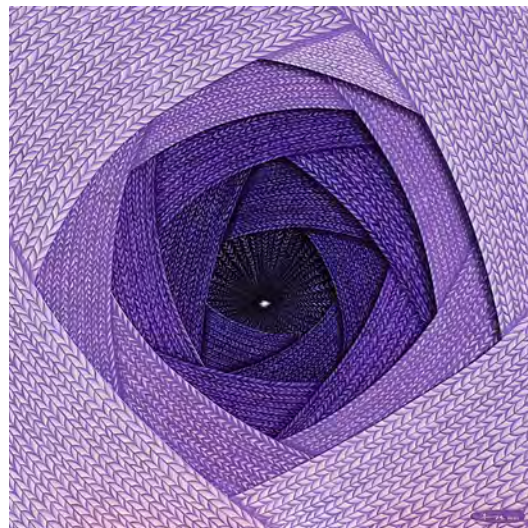
● Past, Present and...(Energy)  
Acrylic on Mixed media | 60.0 x 60.0cm |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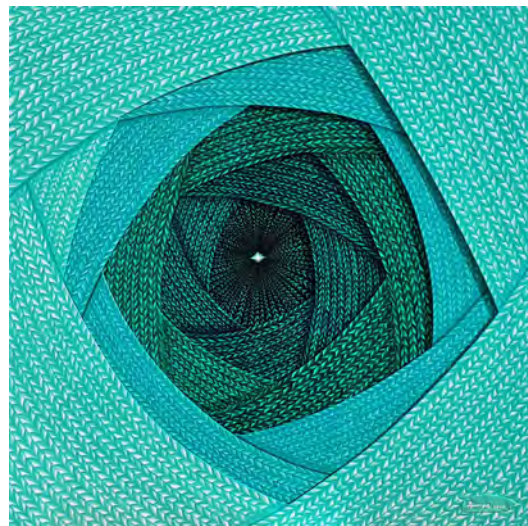
● Past, Present and...(Energy)  
Acrylic on Mixed media | 90.0 x 90.0cm | 2022



● Past, Present and...(Energy)  
Acrylic on Mixed media | 90.0 x 90.0cm | 2022



● Past, Present and...(Energy)  
Acrylic on Mixed media | 90.0 x 90.0cm | 2022



● Past, Present and...(Energy)  
Acrylic on Mixed media | 90.0 x 90.0cm |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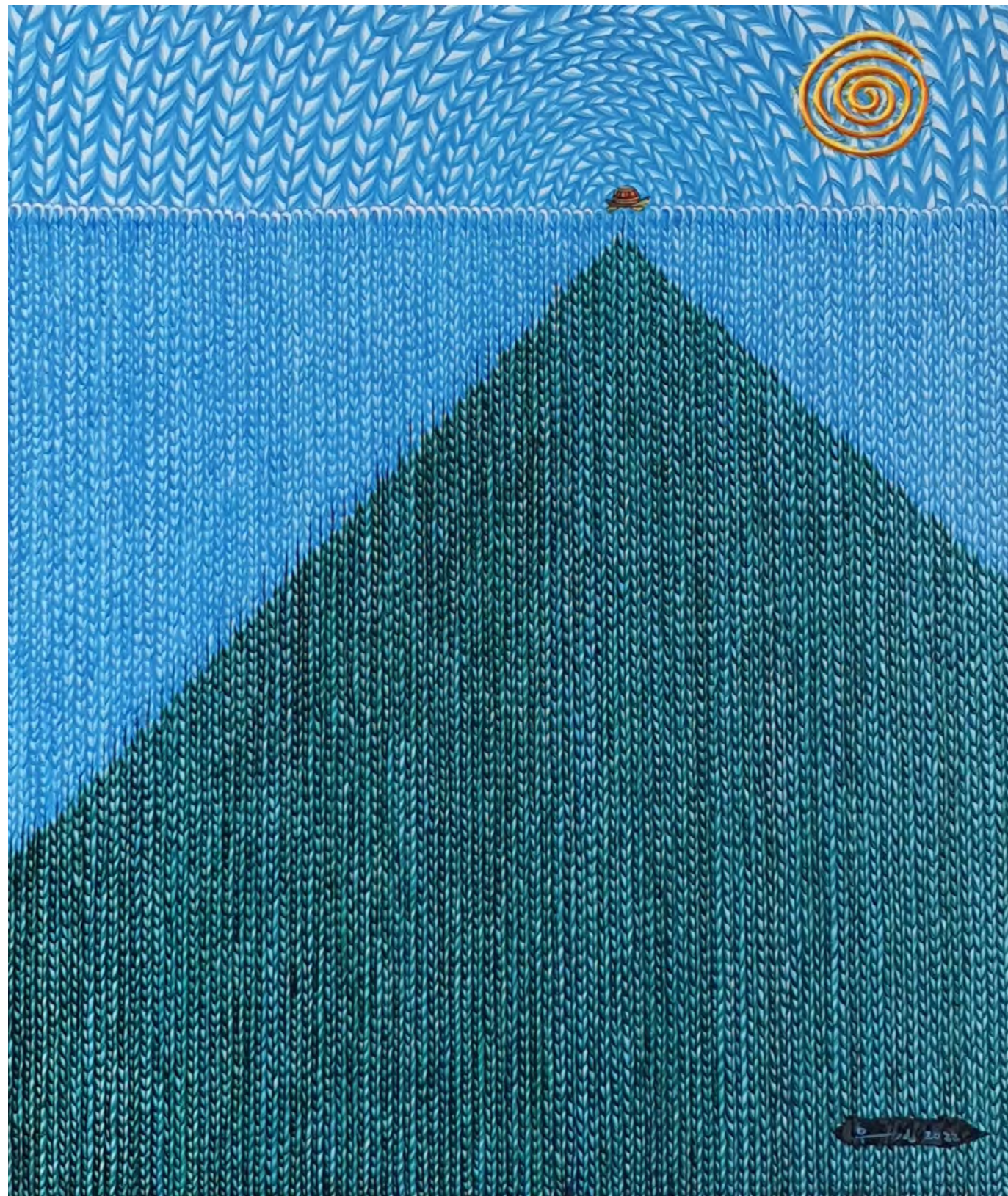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 40.9x53.0cm | 2022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 40.9x53.0cm |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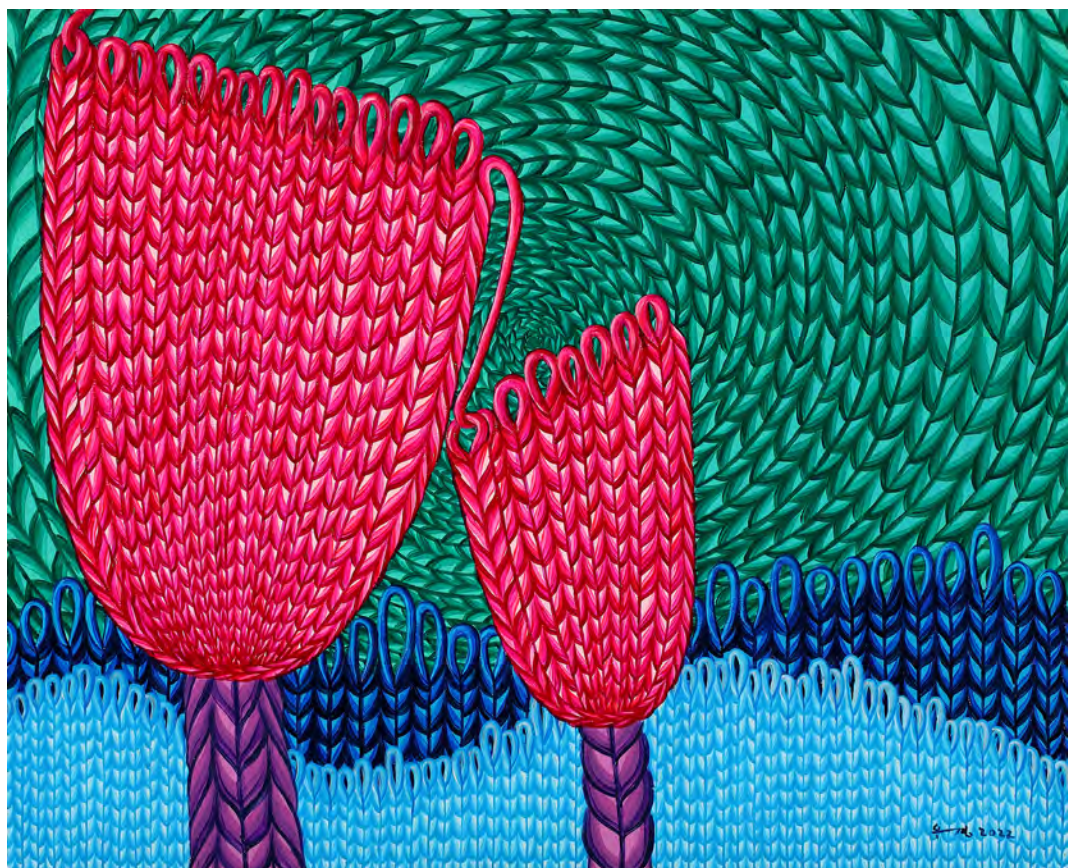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45.5 x 53.0cm |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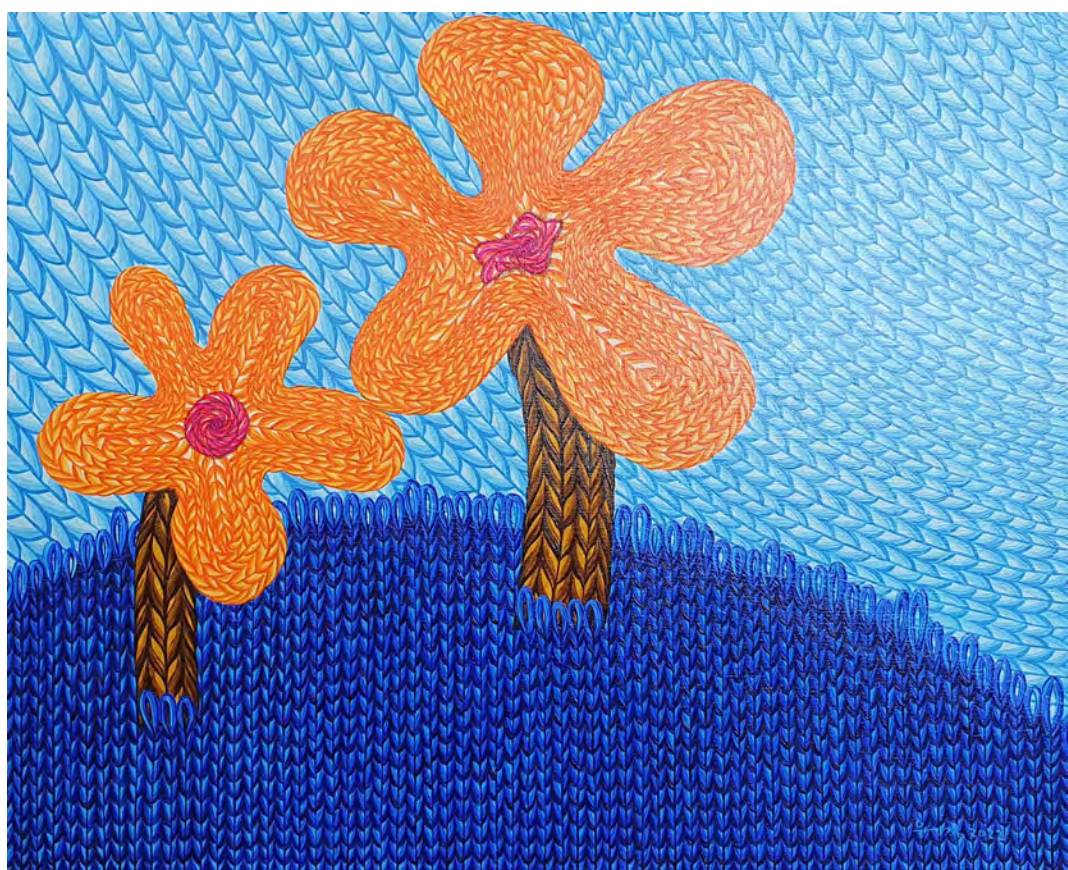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45.5 x 53.0cm | 2022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 65.1x 53.0cm | 2022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 65.1x 53.0cm | 2022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 45.5 x 60.6cm |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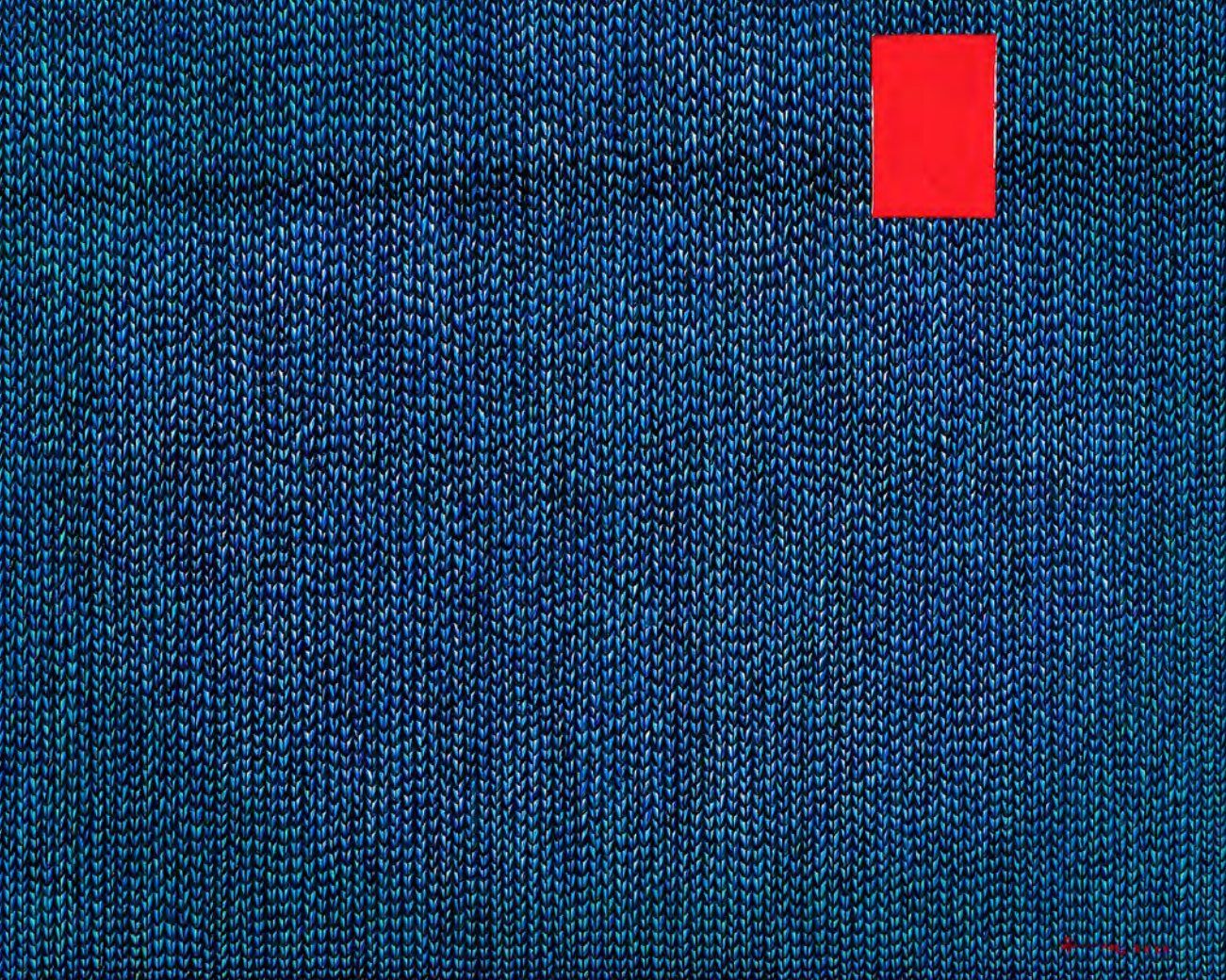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50.0 x 60.6cm |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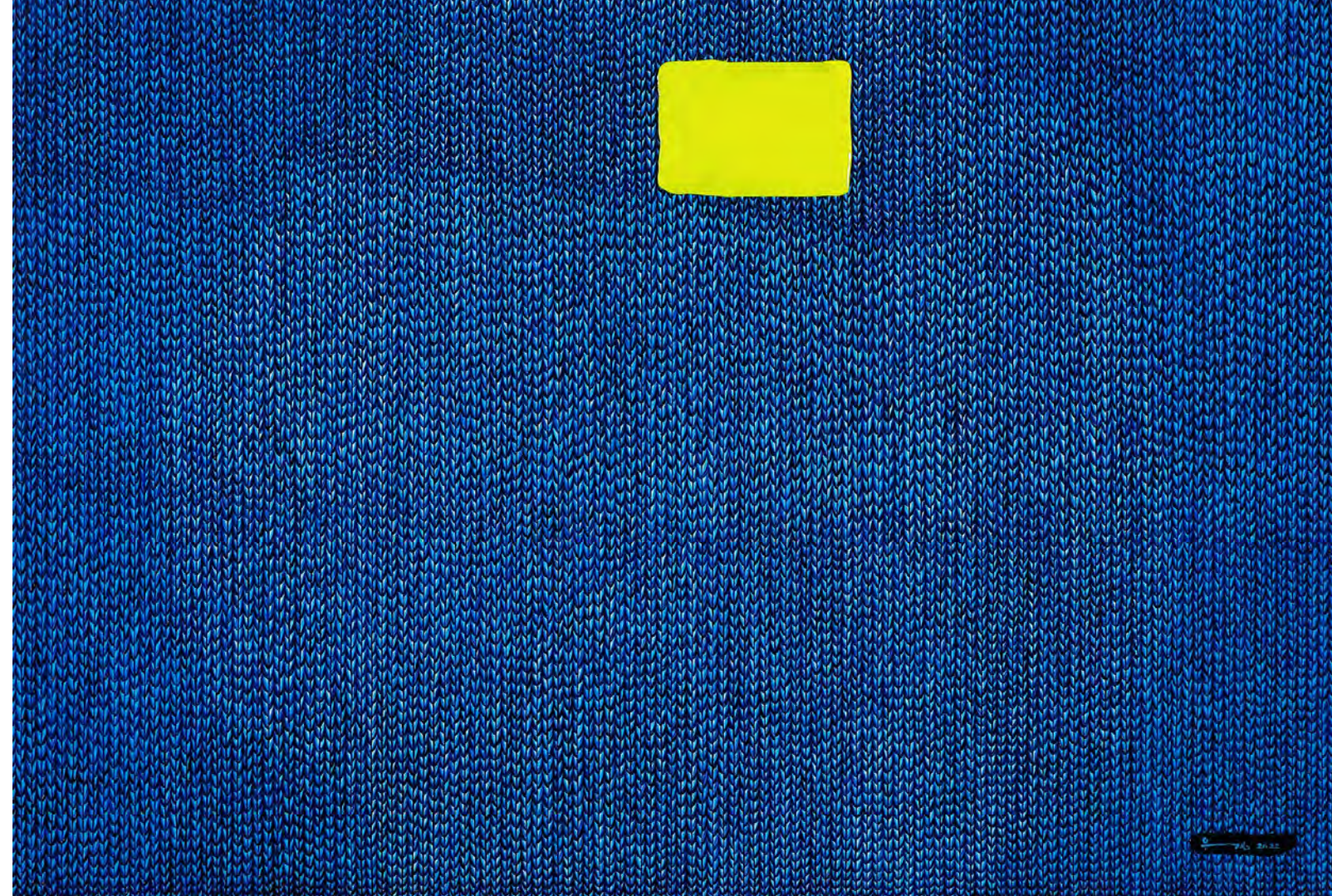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50.0 x 60.6cm |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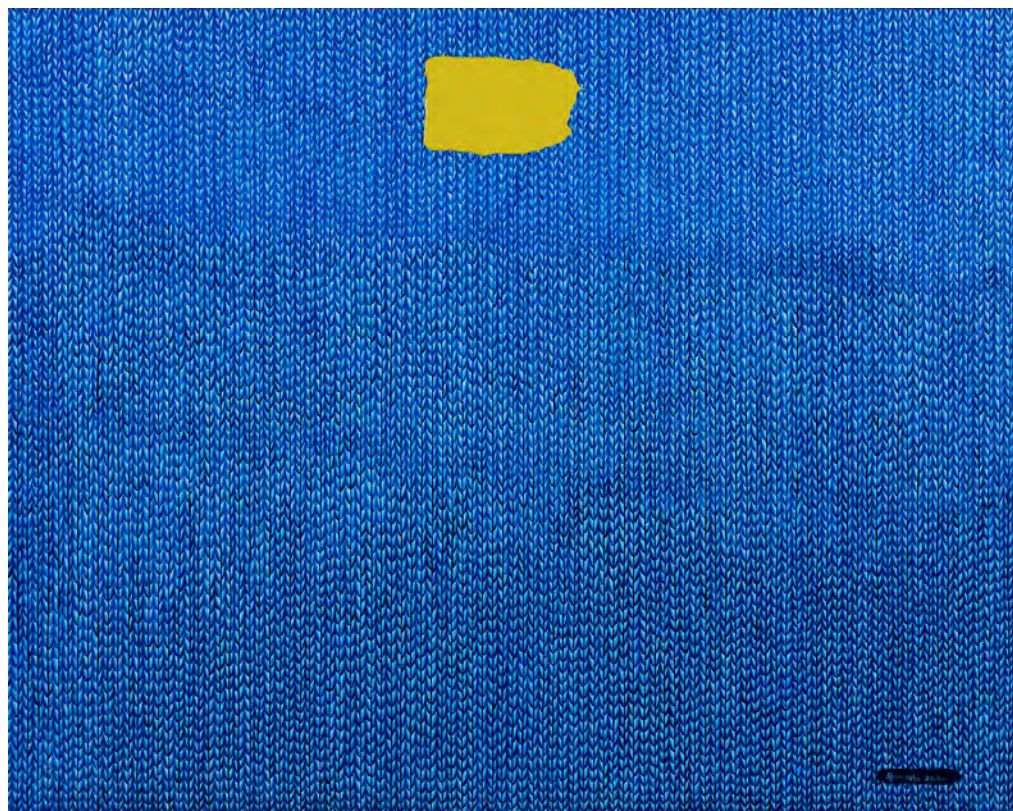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 100.0 x 80.3cm | 2022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 130.0 x 89.4cm | 2022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 100.0 x 80.3cm |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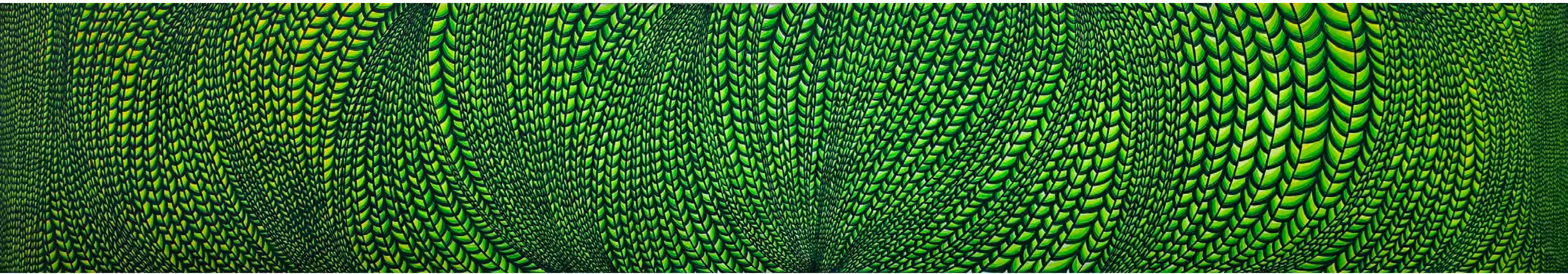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 130.3 x 162.2cm |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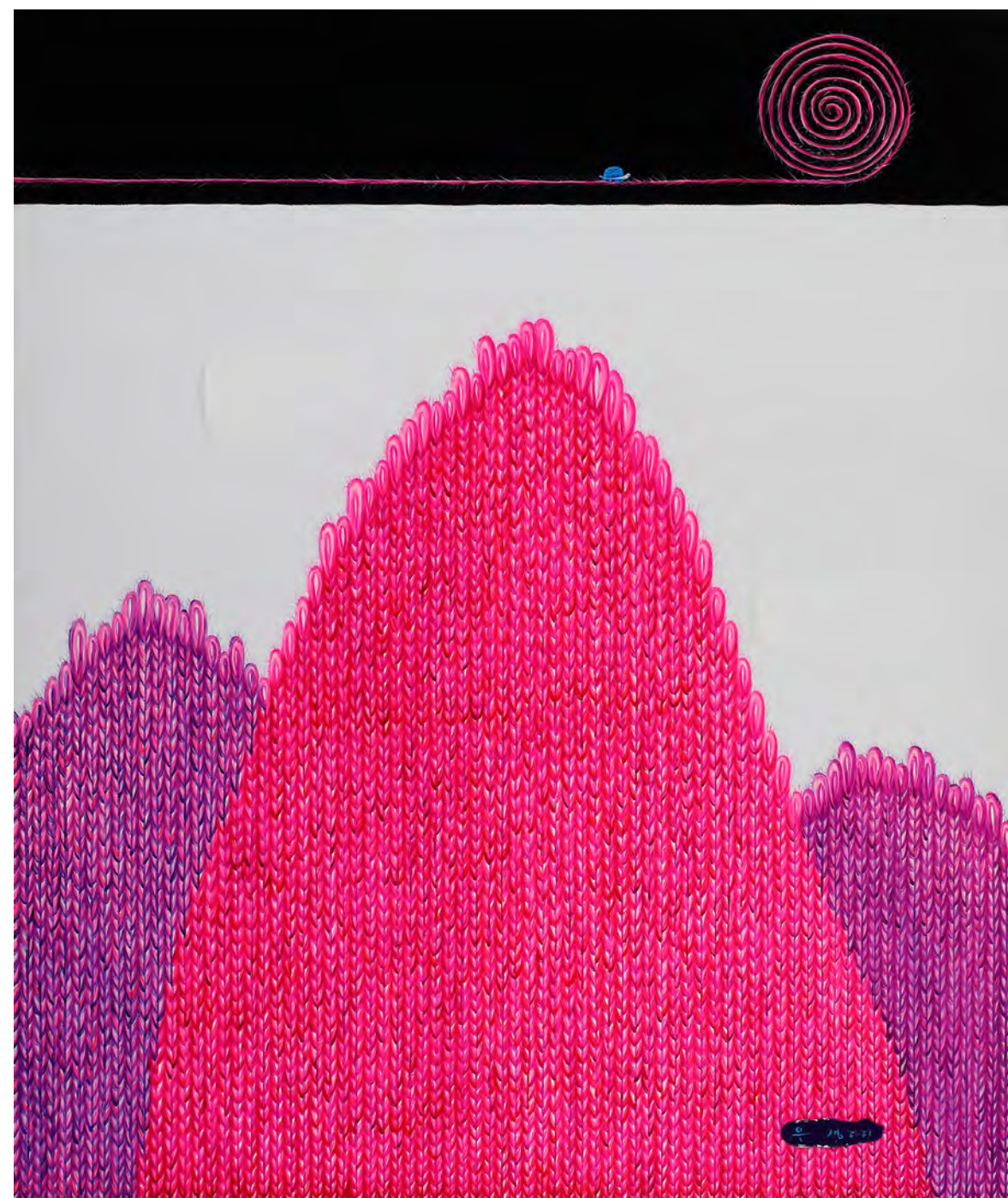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 130.3 x 89.4cm |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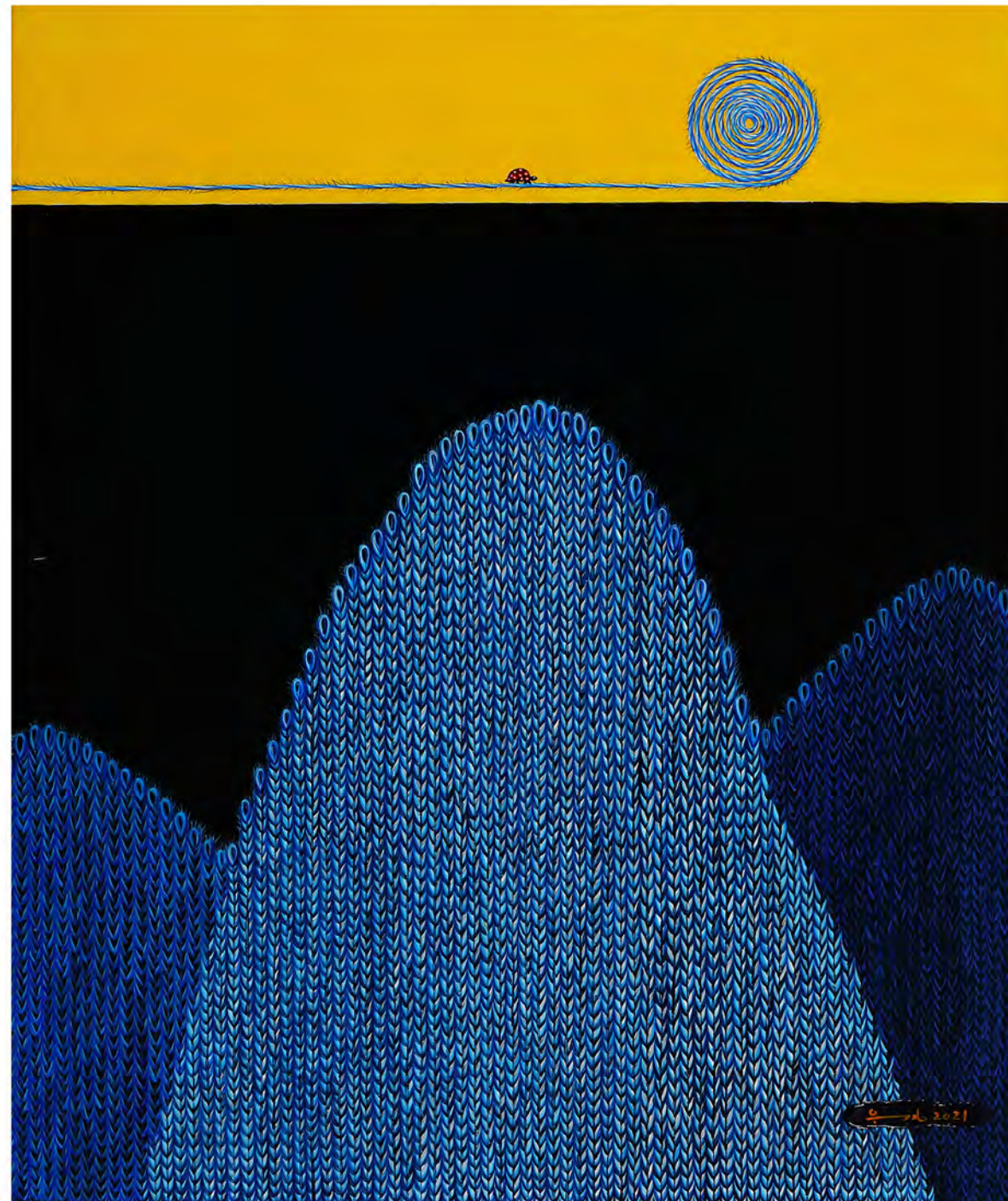
● Past, Present and...(Be faithful to the earth)  
Acrylic on Canvas | 900.0 x 162.2cm | 2021~2022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 60.6 x 72.7cm | 2021

# 2021~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 60.6 x 72.7cm |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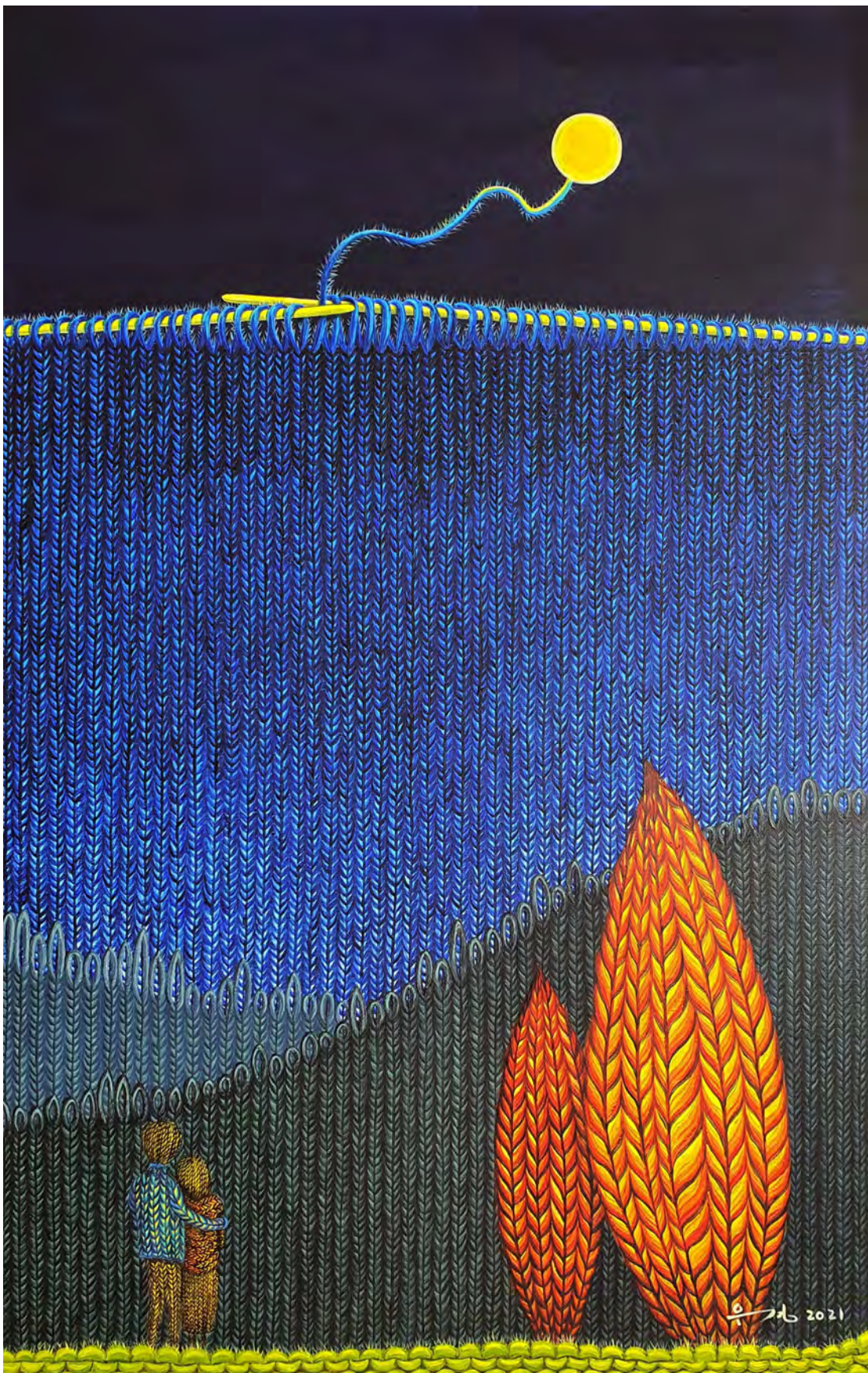


● Past, Present and... Mixed media on Canvas | 65.1 x 90.9cm | 2020



● Past, Present and... Mixed media on Canvas | 112.1 x 162.2cm | 2021





도토리술 이야기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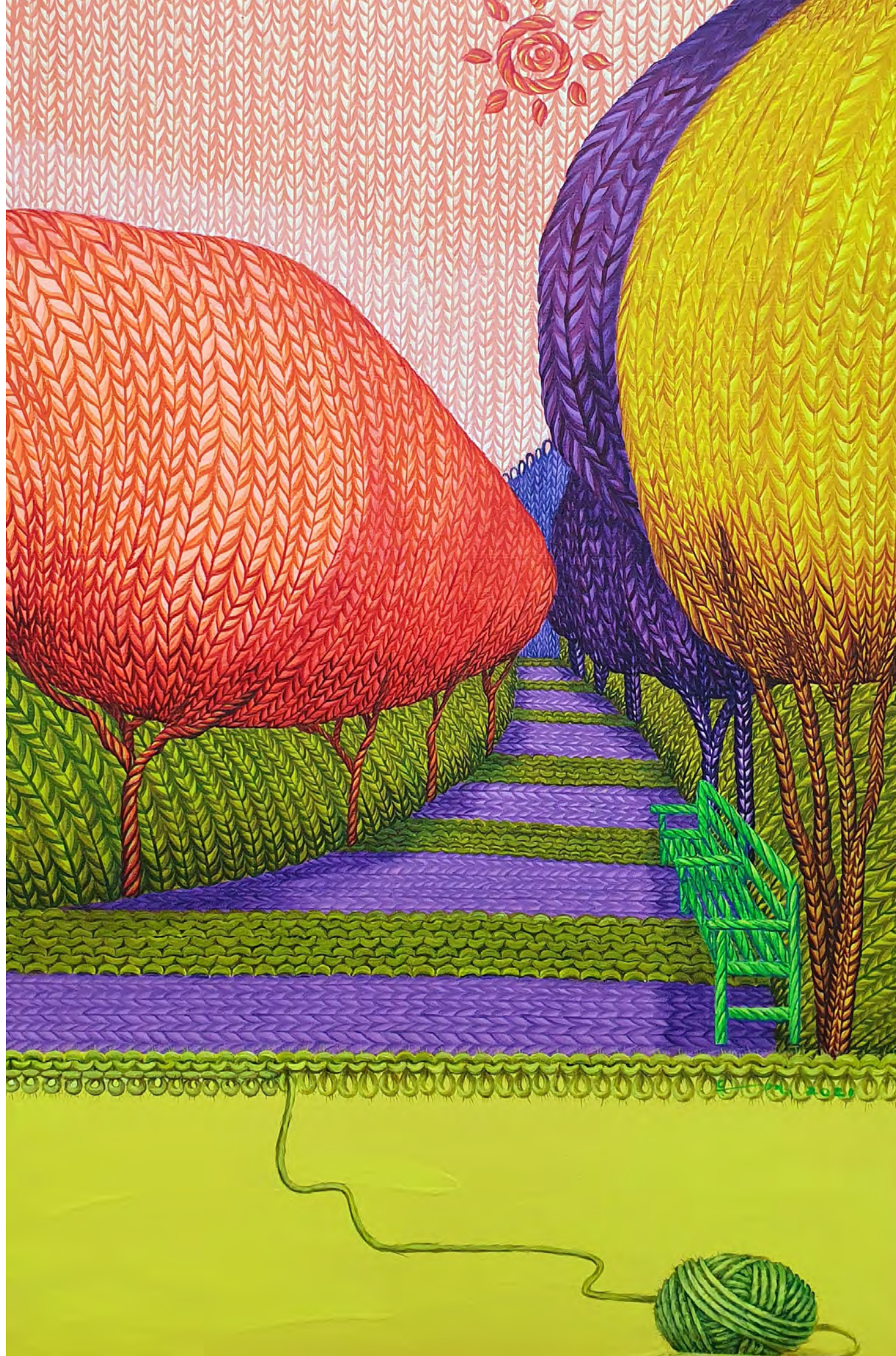
Acrylic on Canvas

83.5 x 53.6cm | 2021

도토리술 이야기 #2

Acrylic on Canv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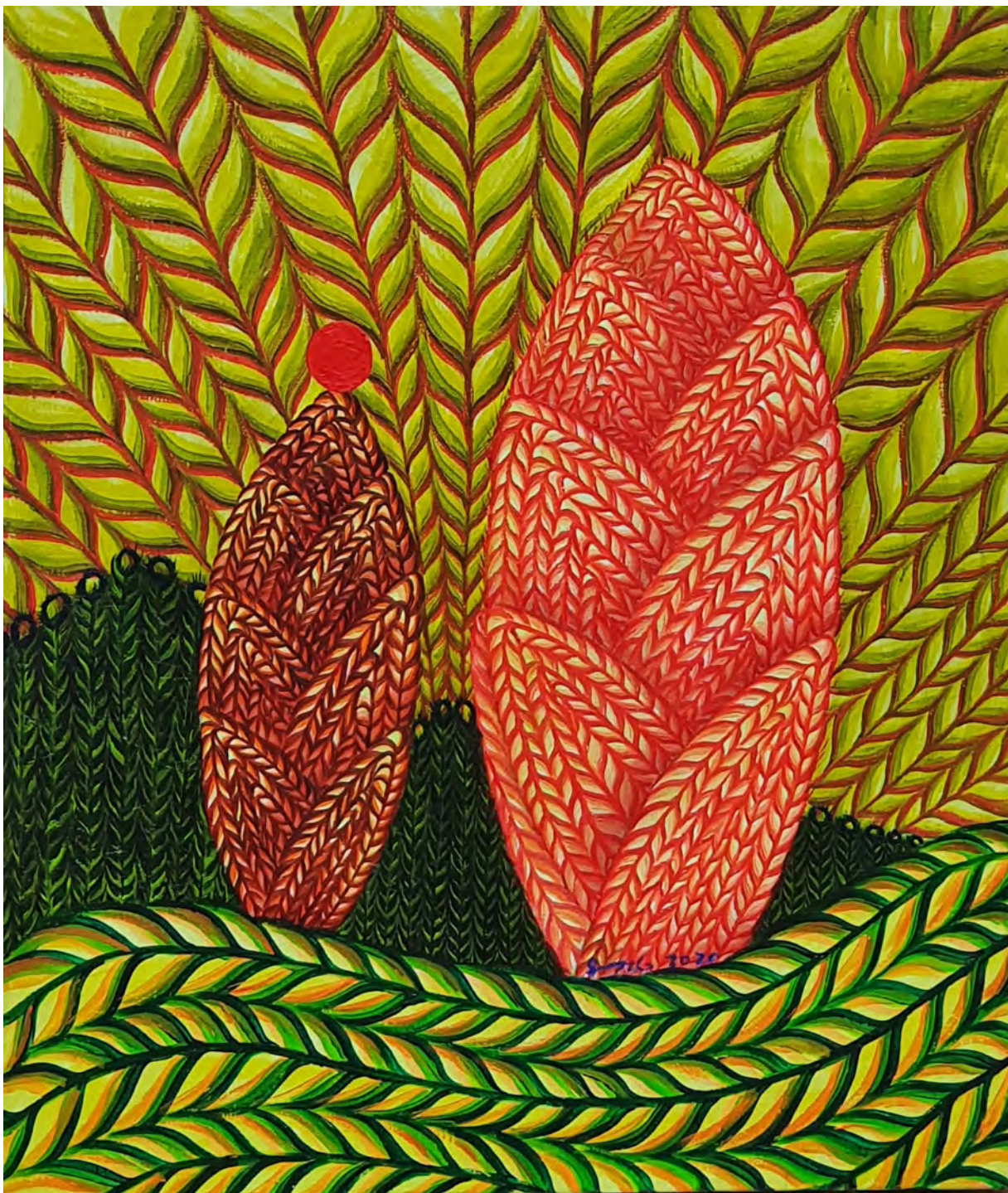
83.5 x 53.6cm | 2021





# 2020~

●  
**Past, Present and...**  
 Oil on Canvas  
 40.9 x 53.0cm | 2020



●  
**Past, Present and...**  
 Oil on Canvas  
 40.9 x 53.0cm | 2020





Past, Present and...

Oil on Canvas

50.0 x 65.1cm | 2020



Past, Present and...

Oil on Canvas

53.0 x 65.1cm | 2020





## 정우경의 '뜨개질 화풍'은

정우경의 '뜨개질 화풍'은 자연, 꽃, 인물 등에서 점차 에너지의 파동을 형상화하며 입체적이고 추상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 에너지의 파동은 우주 만물의 생겨남과 사라짐, 생멸(生滅)의 무한한 순환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끝없는 순환 속에서 존재는 생명의 다함과 동시에 사라져버리는 개념이 아니라 기억의 공유와 연결을 통해 이어지고 영속하는 개념으로 승화됩니다. 에너지의 파동 속에서 말이죠.

'과거와 현재, 그리고' 시간의 영원성을 잇는 에너지, 그 파동을 작동시키는 힘을 작가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에너지의 강력한 파동을 따라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 속에 빠져들게 되죠.

세상의 근원인 '사랑의 힘', 그 에너지의 파동이 존재와 순간에 부여하는 영속성!

그의 많은 작품에는 '과거, 현재, 그리고...'란 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이 타이틀은 '뜨개질 화풍 made by 정우경'의 브랜드나 마찬가지예요. 작가가 화폭에 담는 것은 화가 자신입니다. 잃어버린 시간 속에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며, 자신만의 가치관, 철학을 담는 작업이지요.

"과거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의 정보와 역사가 돼 현재를 이끌어 가는 힘이 된다."

문화저널 맥 by 이충건 (<http://www.themac.co.kr>)

Past, Present and...

Oil on Canvas

130.0 x 130.0cm | 2020





## Jeong Wookyung's "Knitting Style"

Jeong Wookyung's "Knitting Style" gradually shapes the waves of energy in nature, flowers, and figures in a three-dimensional and abstract direction.

These waves of energy can be interpreted as the endless cycle of creation and destruction, the infinite circulation of birth and extinction.

In this endless cycle, existence is not a concept of disappearing along with the completeness of life, but rather it is transformed into a concept of continuity and permanence through the sharing and connection of memories.

The force that drives the waves of energy, connecting the eternity of "past and present," is described by the artist as "lo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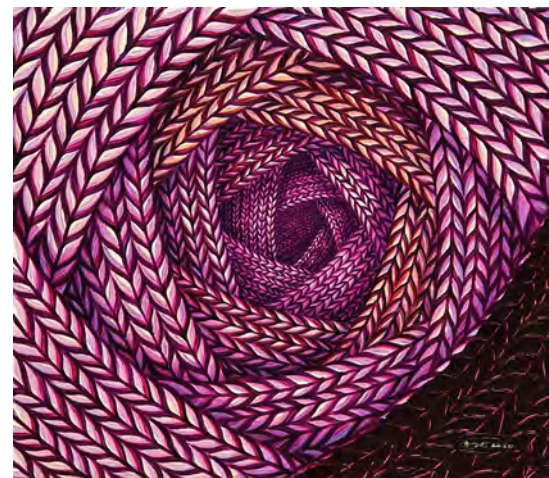
Although invisible to the eye, we are drawn into the profound abyss along with the powerful waves of this energy.

The force of "love," the origin of the world, bestows permanence upon existence and mo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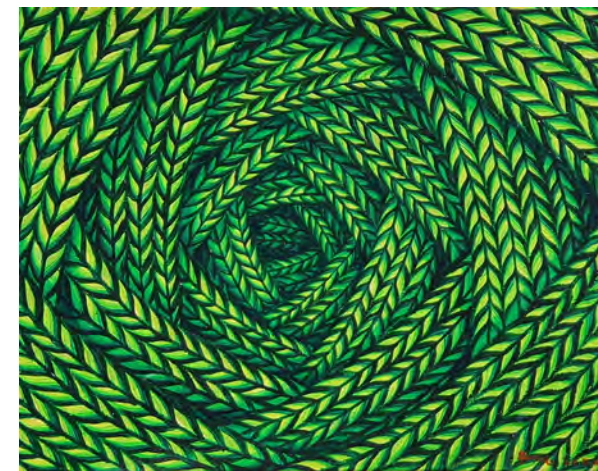
Many of his works are titled "Past, Present, and...," which is akin to the brand of "Knitting Style made by Jeong Wookyung." What the artist puts on the canvas is the artist himself. It is a journey to find oneself in lost time, a task of embodying one's own values and philosophy.

"The past does not disappear, but becomes a source of information and history, guiding the present."

Culture Journal MAC by Lee Chung-gun



●  
**Past, Present and...(Energy)**  
Oil on Canvas  
53.0 x 45.5cm | 2020



●  
**Past, Present and...(Energy)**  
Oil on Canvas  
40.9 x 27.3cm | 2020



●  
**Past, Present and...(Energy)**  
Oil on Canvas  
45.5 x 33.4cm |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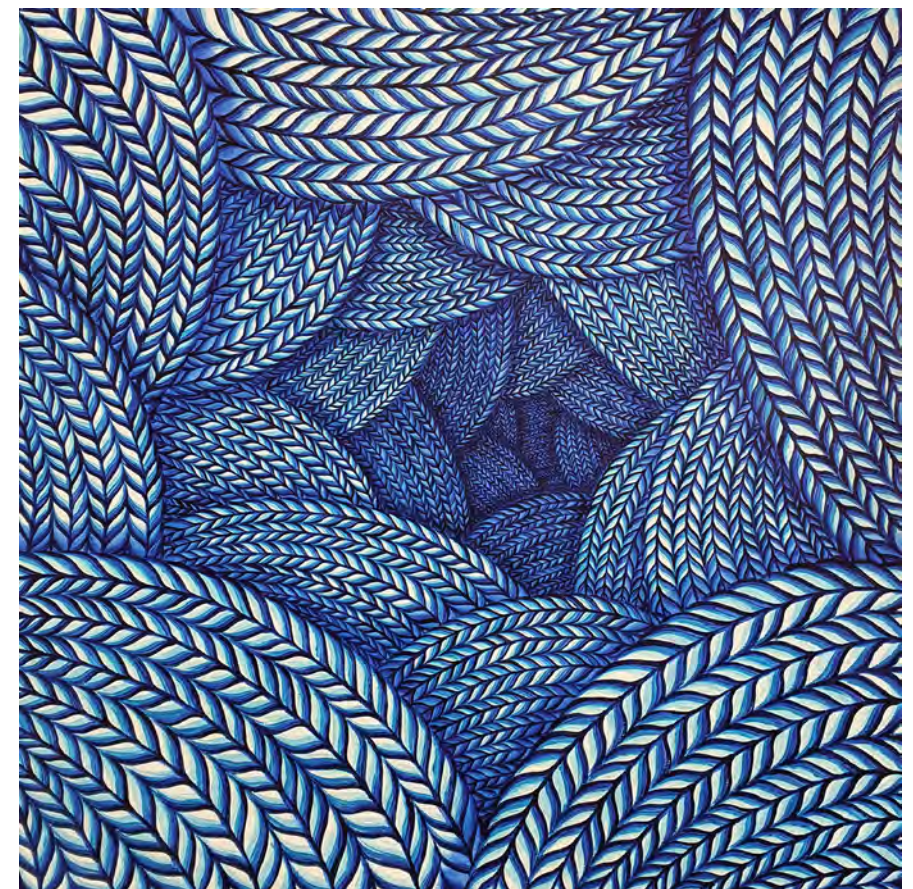


●  
**Past, Present and...(Energy)**  
Oil on Canvas  
53.0 x 45.5cm | 2020





● Past, Present and...(Energy) Oil on Canvas | 100.0 x 100.0cm | 2020



● Past, Present and...(Energy) Oil on Canvas | 100.0 x 100.0cm | 2020



● Past, Present and...(Energy) Oil on Canvas | 72.7 x 53.0cm | 2020



● Past, Present and...(Energy) Oil on Canvas | 130.0 x 130.0cm | 2020





**Past, Present and...**  
**(Love beats everything)**

Oil on Canvas  
65.1 x 90.9cm | 2020

## 뜨개는 사랑이다. II

뜨개 화풍으로 그리기 시작하면서 인터넷으로 뜨개질의 유래를 찾아보았다.그중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 대바늘 뜨개질의 역사는 북유럽이 유명하다. 특히 영국 스코틀랜드 북동쪽 북해에 위치한 셰틀랜드 제도라고 전해진다. 이곳에서는 웨딩 링(wedding ring) 술을 처녀들이 집에서 기르는 양의 털을 잘라 실을 짜서 몇 년에 걸쳐 뜨개질한 작품으로 결혼식의 신부 베일로 사용하고 자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준다고 한다.

이 웨딩 링 술은 아주 가는 실로 떠서 결혼반지가 가볍게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얇고 정교해야 한다고 한다. 이 얼마나 섬세한 정성과 사랑을 담았을까!

나는 사실 뜨개질로 몇 번의 결과물을 완성한 경험이 있다. 선물하기 위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한코 한코 떠가는 재미와 상대방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생각하며 덩달아 행복했던 기억이 난다. 그 경험은 뜨개질 무늬로 그리는 작업에 큰 도움이 되었다. 실(Yarn)은 뜨개질이라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며 어떤 실을 고를지와 계절에 따라 또 누가 입을지에 따라 실의 촉감과 색상 실의 무게도 중요하고 입어 봐야 결과를 알 수 있듯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결과물이 완성된다.

뽀족한 바늘일수록 뜨개질할 때 곱게 떠진다. 붓도 끝이 살아있어야 섬세하게 작업할 수 있다. 실 마다 다른 매력이 있듯 작품마다 다른 매력을 볼 수 있고 작품에 시간이 녹아있고 내 정성을 기록할 수 있어서 좋다.

뜨개질로 결과물이 완성되는 것도 더디고 힘들지만 내 작업 과정은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이 집약된 노동의 결과물이다. 세 번에 걸쳐 배경이 되는 밑 작업은 원하는 느낌이 나올 때까지 계속된다.

밑 작업이 끝난 뒤 가장 먼저 하는 게 자로 줄을 긋는 것이다. 자를 이용해 줄을 긋고 또 자유롭게 선을 그은 다음 뜨개질하듯 여러 번 반복하며 점점 밝아지거나 점점 어두워지게 색의 변화를 쌓아가는 방식으로 붓을 움직이며 천천히 차근차근하게 색의 겹침에 중점을 두고 겹뜨기 무늬를 가진 편물의 모습으로 캔버스 위에 이미지가 입체감으로 전달된다. 안다는 것은 서로의 공감대 형성에 큰 도움을 준다. 뜨개질도 그중 하나다. 감성과 열정이 담긴 작품은 입체감과 두께감이 있어서 따뜻함을 느끼고 관람객들이 손으로 만지고 싶은 충동을 유도하기도 한다.

한코 한코 내 생각이 캔버스 위의 물감이 붓놀림으로 반복되면서 작품이 완성된다.



붓 놀림을 하다 보면 지나간 시간만큼 흔적들이 그 시간을 가지 있게 만들어 준다.

작품이 완성될 때마다 내 감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과 같다.

뜨개질 한 올에 사랑도 한 올 함께 담아 그리고 있다.

공간을 아늑하게 해주는 폭신한 쿠션처럼 독특한 '뜨개 화풍으로 그리다'는 대중들의 공감을 이끄는 소재로 전시장에서 관람객은 걸음을 멈추고 작품 속을 사유하기도 한다.

대바늘 뜨개질의 가장 기본적인 겹뜨기 무늬는 다양한 형태로 형상화되어 나의 창작 세계를 풍성하고 재미있게 열어주고 있다.

외롭고 힘들지만 작품 활동을 꾸준히 하는 이유라면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언제나 주고 싶어서이고 또 살아남기 위해서 견디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내 경험을 비춰보면 뜨개질이라는 행위가 가장 좋은 순간은 무아지경에 이를 때이듯 캔버스 위에 물감을 이용해 붓으로 그리는 반복되는 행위도 이와 비슷하다.

나는 붓으로 뜨개질하면서 껍부리지 않고 한눈팔지 않고 인생의 완성작을 향해 정진하고 있다.

내 작품의 특징은 정교하고 섬세한 뜨개질 무늬로 때론 무심한 듯 거칠고 굵은 실(Giant Yarn)로 뜨개질하듯 독특한 창작기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래서 대중에게 더 많이 기억되고 사랑받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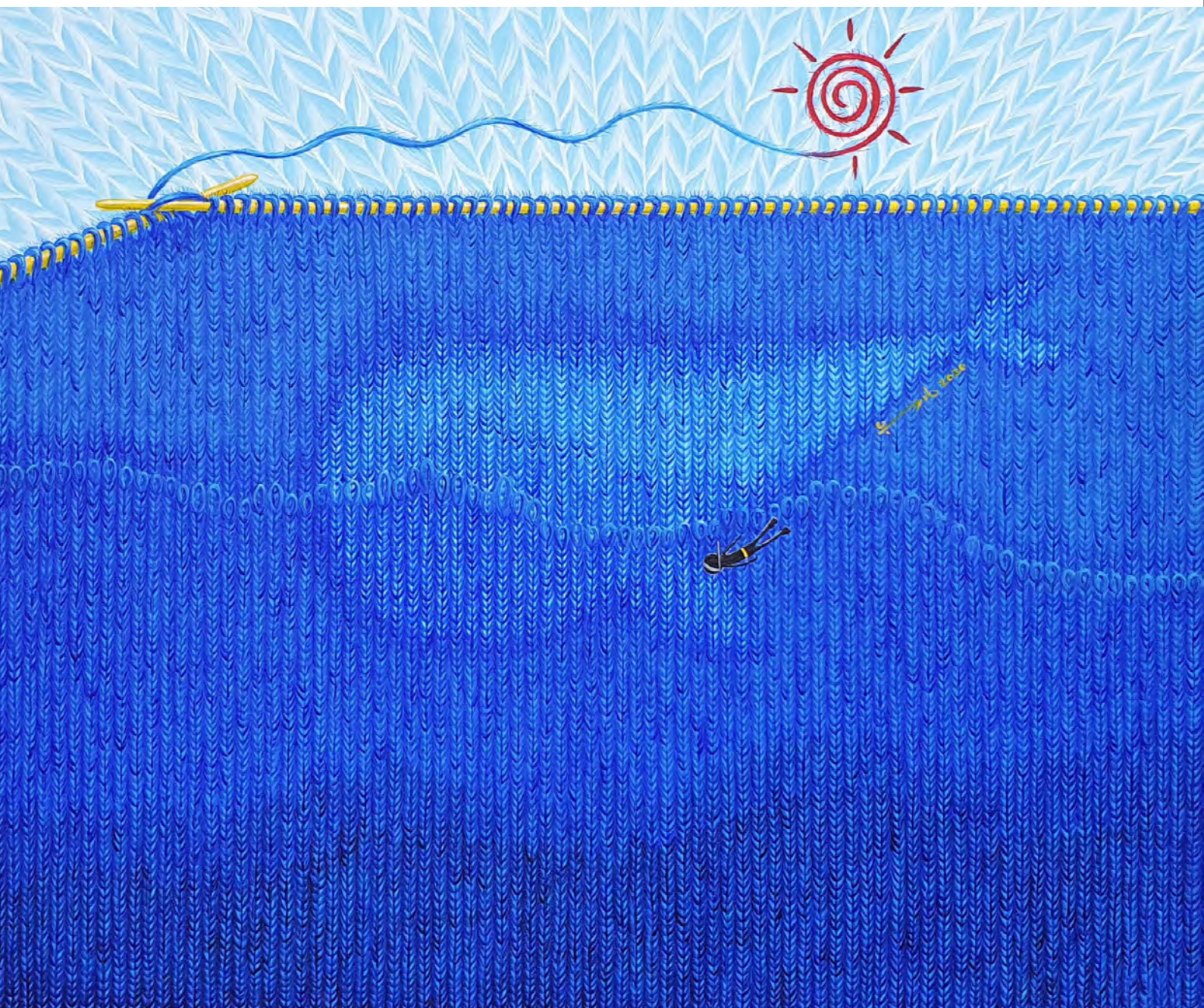
●  
**Past, Present and...  
(Sunflower)**

Oil on Canvas  
150.0 x 150.0cm | 2020



6-24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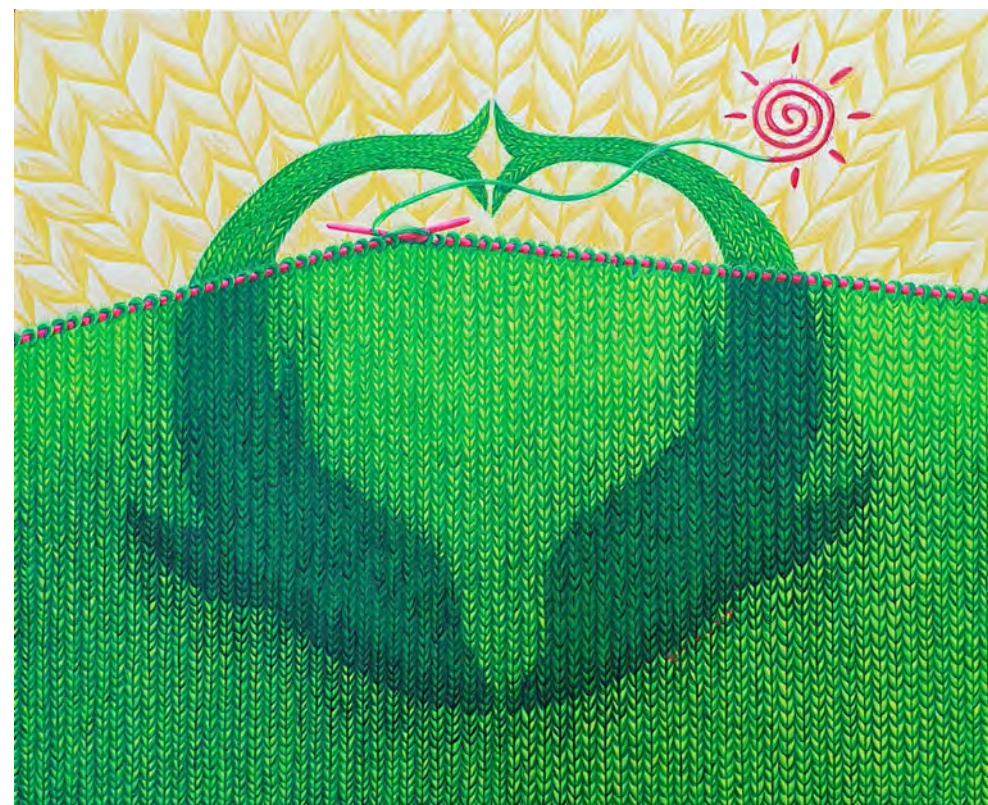




●  
Past, Present and...  
(어느 멋진 날 #1)  
Acrylic on Canvas  
65.1 x 53.0cm | 2020



● Past, Present and....(제주 이야기) Acrylic on Canvas | 53.0 x 45.5cm | 2020



● Past, Present and.... (어느 멋진 날 #2) Acrylic on Canvas | 65.1 x 53.0cm | 2020





● **Smiling Family**  
Acrylic on Canvas  
60.6 x 72.7cm | 2020



● **Smiling Family** Acrylic on Canvas | 90.9 x 72.7cm | 2020

## "Knitting is Love. II"

As I began drawing in the knitting style, I searched the internet for the origins of knitting. Among them, there is one memorable story. The history of large needle knitting is famous in Northern Europe. Particularly, it is said to be prominent in the Shetland Islands, located northeast of Scotland, near the North Sea. It's said that young maidens in this area would trim the wool from their home-raised sheep, spin it into yarn, and over several years, knit it into a wedding ring shawl, which they would then use as a bridal veil for weddings, passing it down through generations.

This wedding ring shawl must be incredibly delicate, woven with very fine yarn, so that the wedding ring can easily pass through it. How much delicate care and love must have been poured into it!

In truth, I have completed several knitting

projects myself. I remember the excitement of knitting each stitch with anticipation, thinking about the happiness it would bring to the recipient as a gift. That experience greatly aided me in drawing with knitting patterns. Yarn undergoes various transformations through the knitting process, and just as one must choose the right yarn depending on who will wear it and the season, the texture, color, and weight of the yarn are all crucial, and the result can only be known through trial and error.

Sharper needles knit more finely. A brush must also have lively ends to work delicately. Just as each yarn has its own charm, each piece has its own appeal. It's wonderful to be able to record my time and effort through the process.

Though knitting takes time and effort to complete, my work process is the result of concentrated labor and dedication. The



background work, done in three stages, continues until the desired feeling is achieved. After the background work is completed, the first thing to do is to draw lines with charcoal. By drawing lines and freely drawing lines repeatedly, gradually layering color changes to create a piece with a knit-like texture, the image on the canvas is conveyed with a sense of dimensionality.

Understanding fosters empathy, and knitting is one way to achieve this. Artworks imbued with emotion and passion have a warmth that invites viewers to touch them. Each stitch on the canvas is like a stroke of paint on a brush. As strokes are repeated, the artwork is completed, and the traces left behind make the time spent worthwhile. Completing a piece feels like baring my emotions. With each stitch, I weave love into my 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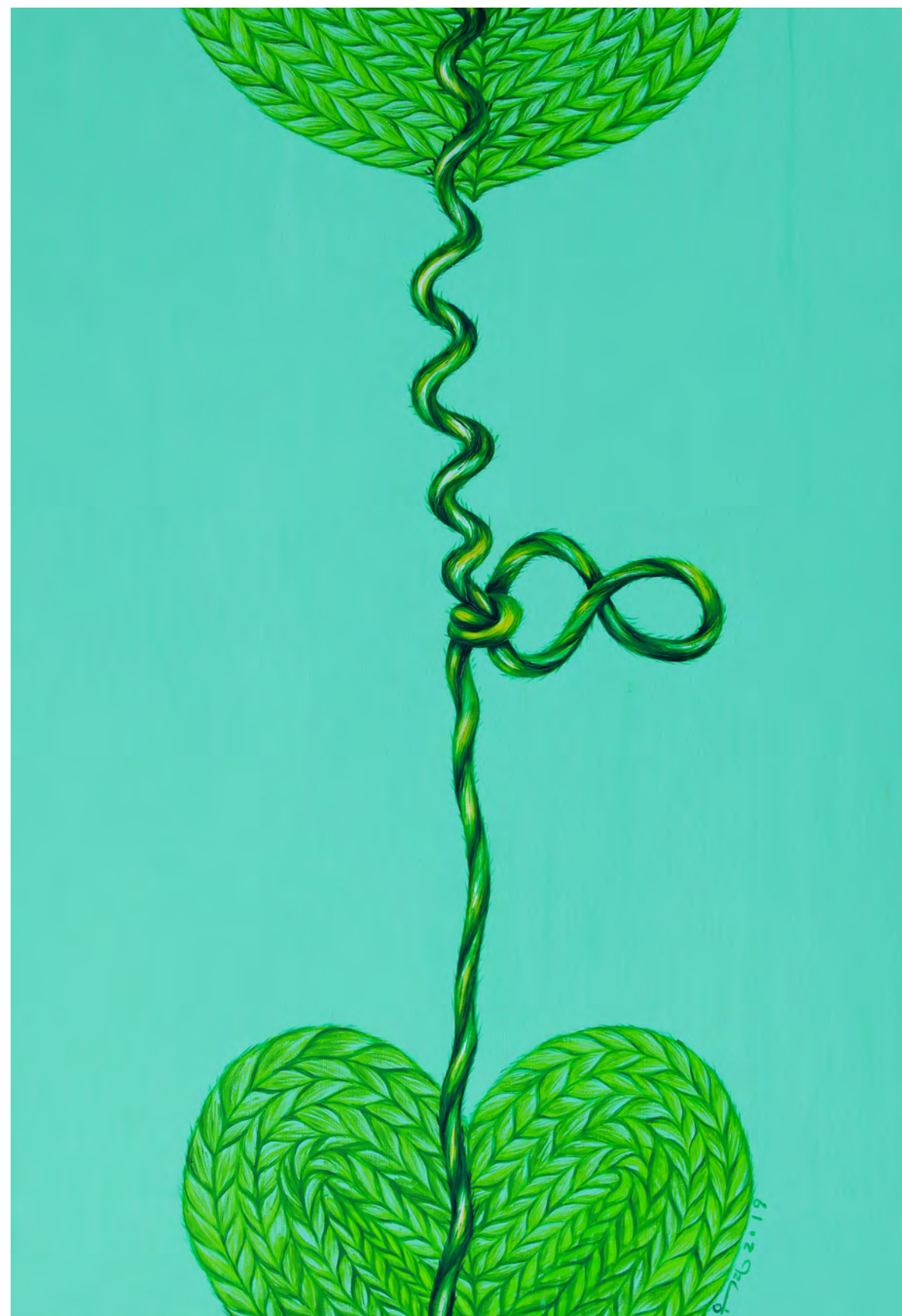
"Drawing with the knitting style," like a soft cushion that makes a space cozy, resonates with the public, causing gallery visitors to pause and contemplate the artwork.

#### Smiling Fami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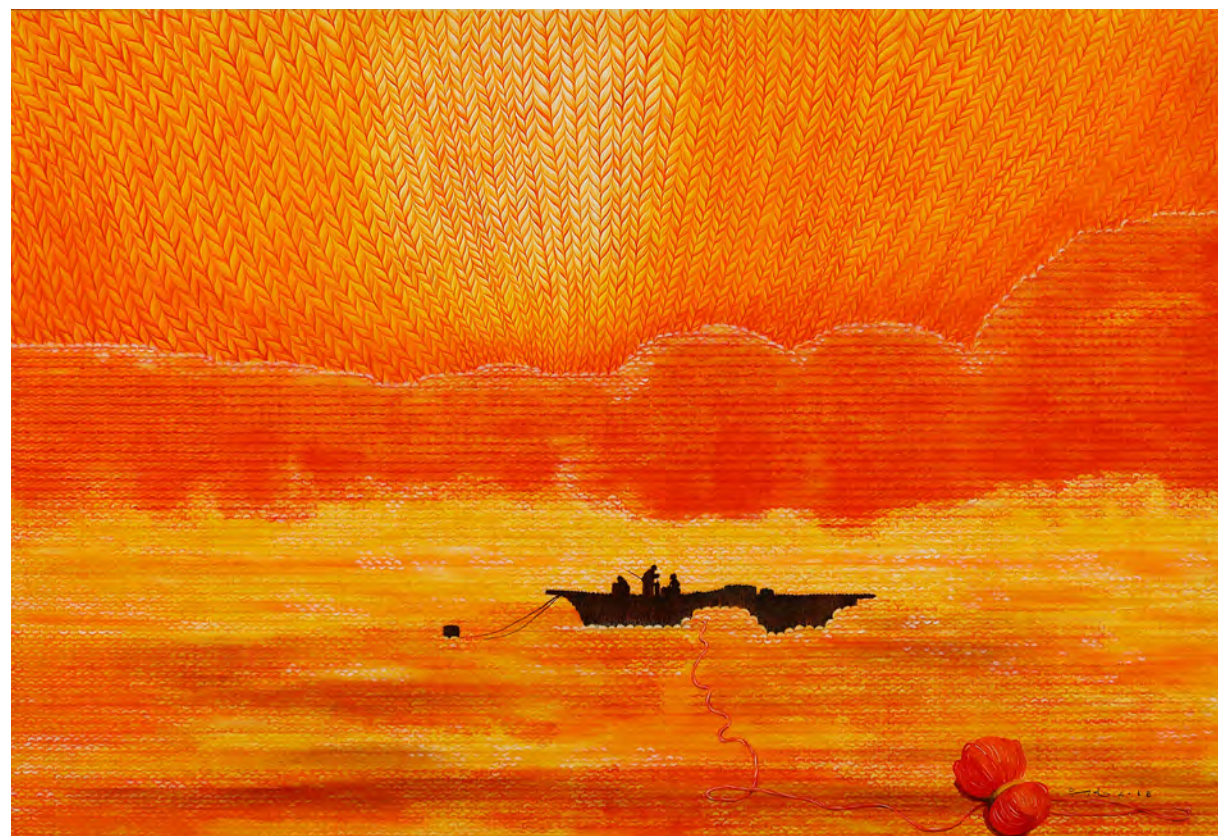
Acrylic on Canvas  
72.7 x 90.9cm | 2020







● **Past, Present and...**  
Oil on Canvas  
89.4 x 130.0cm | 2019



● **Past, Present and... (Sunrise)**  
Oil on Canvas  
130.0 x 89.4cm | 2018

## 2019~

The basic knit stitch of large needle knitting has been visualized in various forms, enriching my creative world. Though lonely and challenging, the reason I persist in artistic endeavors is because I want to give to my loved ones whenever possible, and also to endure and survive.

Reflecting on my experience, the best moments of knitting come when I reach a state of flow, much like when using paint on a canvas with a brush. Just as knitting is about advancing towards the completion of a life's work without artifice, I am dedicated to creating my masterpiece. The hallmark of my work is the intricate and delicate knit pattern, sometimes using coarse and thick yarns in unique creative techniques. Perhaps this will make it more memorable and beloved by the public.



## 정우경 개인전에 부쳐 - 뜨개질 그림, 과거 현재 그리고 -

주성열(세종대 겸임. 예술철학)

### I.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기간에 흥미로운 소식이 전해졌다. 핀란드 코치와 선수들이 마음의 안정과 경기 집중을 위해 휴식이나 응원 중에도 뜨개질에 열중한다는 것이었고, 게다가 선수들은 핀란드 대통령 자녀에게 선물할 담요를 만든다고 했다. 핀란드에는 뜨개질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의미로 ‘네올루시(neuloosi)’라는 용어가 있으며, 뜨개질처럼 손을 정교하게 움직이는 일은 운동선수들에게 기분 좋은 신경 물질이 증가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울에서도 겨울에 손뜨개로 만든 알록달록한 옷을 입혀 따뜻해 보이는 가로수를 만난 적이 있다. 이런 특별한 설치행위는 2015년에 영국 스코틀랜드 ‘수터스토머스’라고 알려진 뜨개질 그룹이 페스티벌을 위해 처음 시작했는데 손뜨개의 포근한 마음을 실천하고 전하려는 행위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 필자는 손뜨개와 관련된 특별한 그림을 그리는 정우경 작가를 만나려 한다. 하나의 실이 엮이면서 면이 되고 나아가 입체가 되는 뜨개질 작업은 화가의 말처럼 사람과 사람이 인간관계를 구성하여 사회를 이루는 방식과도 유사하며 삶의 모습과 닮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밀접한 관계망 속에서 살아간다는 연결적 세계관을 화엄경에서는 인드라마이라는 그물망으로 설명한다. 화가 정우경에게 뜨개질은 어린 시절 어머니 그리고 자신과 딸로 이어지는 각별한 관계로서 ‘아장스망(agencement)’의 사유를 품고 있다. 아장스망은 관계를 구성하는 다중체로서 공감과 공생으로 역동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가치 의미다. 순결한 마음은 순결한 것에 약하다 했던가,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 존재 가치를 생생하게 인식하고 문득 자신의 감수성과 직관에 의한 손뜨개의 미감을 발견한 것이다.

### II.

정우경은 뜨개질을 붓으로 그리는 흥미로운 화가다. 그림을 대면하는 감상자들은 실제 뜨개질로 작업을 구상하고 조형화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으나 정교한 털실 그림은 뜨개질이 아니라 대나무 바늘에 의해 직조된 면을 붓으로 그려 재현한 것이다.

사실보다 더 사실적인 재현이어서 감상자는 그림 앞으로 바짝 다가서야만, 관찰이 가능하다. 다가서야 느껴지고 물러서야 보이는 그림이므로 반복적인 거리두기를 필요로 수반한다. 그렇다고 ‘트롬프 뢰이오(trompe-l'oeil)’처럼 눈속임을 위해 의도적으로 그린 것은 아니며 단지 뜨개질의 심미적인 직조 문양이 그를 사로잡았다. 화면 가득 촘촘하게 그린 패턴은 그에게는 또 하나의 바탕이며 다양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상상의 세계이다. 패턴화한 직조 이미지는 털실의 부드러운 촉각성이 느껴지도록 섬세하게 재현되어 붓으로 그린 패턴이 실제 뜨개질 형상보다 더 촉각적이며 미적인 감수성을 소환하는 효과도 있다. 그림이 조형 언어를 토대로 삼아 느낌을 직조하는 것이라면 화가의 감수성은 손뜨개를 정신의 기반으로 삼았다.

정우경 작업은 구상과 반구상의 조형 작업에서 출발하여 심리상담사로서 교감의 중요성을 체험한 후 뜨개질 형식의 그림으로 변모한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어머니와의 기억을 화두로 삼아 여성적인 정서를 시각화하면서 뜨개질의 형상을 바탕으로 한 조형 실험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꿈꾼다. 그리고 기억 속 전통적인 이미지, 지폐에 새겨진 인물, 풍경과 정물, 특별한 인물의 이미지 등으로 끊임없이 변주하고 있다. 이번 전시 작품의 특징은 ‘자아 찾기’라는 주제를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아 찾기 과정에서 어머니의 흔적과 유년기의 기억을 통해 풍경의 실마리를 얻었고, 어머니를 통해 투사된 자신의 이미지를 뜨개

질이라는 마티에르에 접속하여 조형 영역을 확장한다.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수직 문양은 어머니의 삶을 기록한 경전으로도 읽힌다. 뜨개질의 패턴은 텍스트로서 화가에게 효율적인 조형 형식이면서 텍스트로서도 매우 보편적인 속성을 지닌다. 의식과 대상이 하나의 이미지로 통합되는 몰입의 순간을, 경험을 통해 감지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우경의 예술적 가치와 성과는 기법이나 양식에 있어서 자신에게 적합한 조형 형식을 찾아야 한다는 의지에서 출발한다. 주체를 확인하면서 잃어버린 어머니의 역사가 복원되었고 기억과 추억은 손뜨개라는 정체성으로 삼투되어 시간과 공간을 새롭게 짜내고 있다. 새로운 판을 짜고 연결하고 접속하는 일은 잠재성을 발현하는 장이 되고 생각과 표현이 팽

팽하게 그물망을 형성하여 상상의 세계와 현실 세계를 넘나 들고 있다. 어린아이의 순수한 감성이 투영된 나비나 자동차를 기호로 삼아 희망적인 상상의 세계를 제시한다. 기억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봉인되어 있다가 잠재력을 발휘한다.

정우경의 그림은 상상력의 힘보다는 삶의 표정을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빛난다. 사랑이자 희생의 이미지를 파악하는 순간 화가는 친밀한 이미지를 떠올려 소망하는 사물을 배치한다.

컴퓨터 자판이 손뜨개 그림과 연결 접속한 것도 어느 시대나 교류의 목적은 소통이자 교감임을 상징하는 것이다. 정우경의 조형 이미지들은 제 삶을 조각내어 자식들의 삶을 연명하게 만든 어머니의 사랑, 정성, 공감으로 투사되어 털실은 접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50.0 x 65.1cm | 2019



## Jeong Wookyung's solo exhibition - Knitting Paintings, Past, Present, and -

By Joo Sungyeol

(Sejong University, Art Philosophy)

I. During the period of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interesting news emerged. Finnish coaches and athletes were reported to be engaging in knitting for mental stability and focus during breaks or cheering, and furthermore, they were said to be making blankets to gift to the children of the Finnish president. In Finland, there is a term "neuloosi," which means relieving stress through knitting, and the argument that activities involving precise hand movements like knitting increase the production of pleasant neurotransmitters among athletes is gaining credibility. I once encountered a street in Seoul adorned with colorful clothes

made by hand knitting during winter. This special installation was initiated by a knitting group called "Souter Stormers" from Scotland in 2015 for a festival, and it was an act to embody and convey the warm-heartedness of hand knitting.

Now, the author is about to meet artist Jeong Wookyung, who creates special paintings related to hand knitting. The process of knitting, where a single thread becomes fabric and then takes on a three-dimensional form, i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it resembles the way people form relationships and constitute society, mirroring the appearance of life itself. The

world of interwoven relationships, where everyone is interconnected, is explained in Buddhist philosophy as "Indra's net." For the painter Jeong Wookyung, knitting carries the thought of "agencement," a special relationship connecting his mother, himself, and his daughter from childhood. "Agencement" is a multiple configuration that constitutes relationships, involving empathy and symbiosis to bring about dynamic change. Through his relationship with his mother, he



vividly recognizes the value of existence and unexpectedly discovers the beauty of hand knitting based on his own sensibilities and intuition.

속된다. 화가는 밝고 아름다운 세계를 몽상하고 희망하면서 그림에 인간의 삶을 기쁘게 바라보려는 연민과 애정을 담는다. 타자의 생명을 기꺼이 받아들여 품어 임신하고 출산하는 숭고한 모습 또한 손뜨개 그림으로 제시한다. 붓질로 그린 직조 패턴은 그 자체로서 기억된 이미지가 되고, 다양한 이미지를 접속시키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구성하기도 한다. 그림 곳곳에 안식, 교감, 사랑, 보호, 평화의 이미지가 스며들어 있음을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다. 고치실처럼 풀려 나오는 고불고불한 접속은 또 다른 접속으로 연결되어 시작도 끝도 없는 듯한 구조 속에서 무한한 상상의 세계로 전개된다.

그에게 자연과 세계는 공존하는 모든 것과 상호작용으로 호흡하고 밀접하게 관계 맺기를 하고 있다는 관점이 중요하다. 사실에서 벗어난 조형 언어는 상징적인 이미지를 감각적 인식으로 수용하여 단순한 조형 의지로 발현된다. 뜨개질처럼 오랜 시간 동안 수행적 행위의 결과물로 탄생한 작업은 자신의 세계를 보다 분명하게 구축한 수고로 빛을 발한다. 물성이 충분히 발현되었을 때 화면은 촉각적 성질의 깊이를 얻는데 이는 감상자들이 시각뿐 아니라 촉각적인 느낌에도 도달할 수 있도록 화가가 의도하므로 가능한 일이다. 작업 과정은 생명체가 태동하여 성장하는 자연의 원리와도 닮아있다. 소복소복 쌓여가는 눈처럼 올 하나하나가 구체적인 의미를 지니는 어머니의 경전이며 신에게 접속하여 기도를 드리던 마음이다. 화가의 감각으로 떠난 소망이며 축복이다.

### III.

들숨과 날숨, 접힘과 펼쳐짐 기호의 구성 원리를 가진 정우경만의 손뜨개 기법은 감상자들의 주목을 이끌고 있다. 접속의 형식을 빌려 다양체를 형성함으로써 주름을 접고 타자와의 관계에서 발생된 주름을 펼쳐 다채로운 마주침과 삶의 흔적을 발견하고 공유한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지닌 자연의 섭리는 음과 양의 선율과 리듬으로 얹혀있다는 것이다. 규방 공예의 속성을 수용하여 장식적인 패턴을 조형화하고 세계를 뜨개질의 형식으로 분해하여 화가의 감각으로 직조한다. 어머니 흉내 내기와 존재에 대한 강렬한 열망에서 출발한 그의 뜨개질은 그리움을 온전하게 만날 수 있는 뜨거운 교감의 장이다. 어머니의 따뜻한 유대감을 인식하기에 앞선 사람의 기억보다는 뒤에 사는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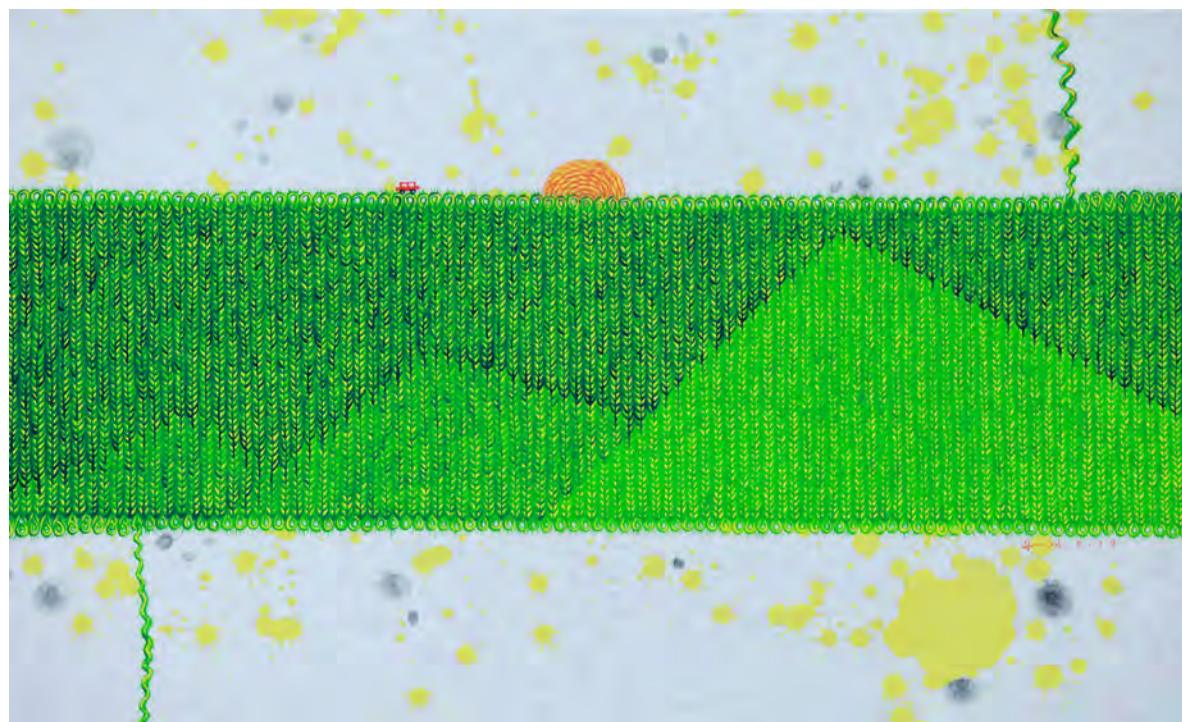
람의 기억이 더 아프기에 그리움이 차가움으로 느껴지는 이유다. 그의 작업은 또한 다른 세계를 창조하려는 화가의 놀이 방식이자 소통이며 치유의 가치를 품는다. 자신의 능력을 초극하려는 초인(Ubermensch)은 대지를 의미한다. 차라투스투라는 언제까지나 '대지에 충실하라'는 말을 전한다.

정우경은 위버멘쉬로서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폭 9미터가 넘는 화폭에 장장 3년 동안 손뜨개 문양을 가득 채우기도 했다.

삶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상처들은 그림에서 끊어져 매듭지는 색실로 묘사되었으나 가까이 다가서야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내가 행한 상처 준 연행은 쉽게 잊혀도 나에게 받은 상처는 좀체 잊을 수 없는 것처럼 자세히 살펴야 보이는 감춰진 상흔이다. 희망을 말하고 행복을 전하면서 그 안에 내재한 상처를 보듬는 일 또한 화가의 몫인 양 교감하고 있다. 그는 작가노트에서 '매듭은 상처인 동시에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를 의미한다'며 과거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정보라고 적고 있다. 실로 구멍을 만들고 그 구멍에 걸어 매듭을 이어가는 뜨개질 구조는 현실의 삶을 유지하려는 복잡하고 다양한 가치들이 얹히고설킨 이야기의 복합체이기에 사람의 마음이나 감정을 환기할 수 있다. 궁극적인 기쁨은 서로가 만나 관계를 맺고 의미를 만들고 가치를 나누면서 느끼는 감정인 것이다.

상투적인 이미지는 열정에 반비례할 뿐 아니라 독창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앞으로의 창작과정에서 정우경의 열정이 마티에르 효과를 벗어난 독창성을 회복하는 잠재적 능력임이 증명되었기를 기대한다. 수행적 행위에 대한 새로운 사유와 드로잉적인 요소를 반영하는 창의적인 작업에 대한 가능성도 추가되리라 기대한다. 그림을 보는 순간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게 되는 정우경의 작품은 독특한 형식으로 재현된 세계가 추억이라는 감성을 자극하면서 대중에게 사랑받고 있다. 인간과의 공감과 교감이 부족해지는 현실에서 정우경은 관계의 가치를 일깨우고 자연의 질서를 인식하면서 자신만의 창의적인 삶을 지향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화가는 물입과 열정으로 새로운 변화의 잠재성을 구현하게 될 것이다. 한 땀 한 땀의 작업이 풀잎에 맺힌 아침이슬처럼 빛나기를 기대한다. ■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korean paper | 49.5 x 38.2cm | 2019

recalls intimate images and places objects that represent hopeful desires. The connection of the computer keyboard to hand knitting drawings symbolizes the purpose of communication and empathy in any era. The sculptural images of Jeong Wookyung's life projected through the love, dedication, and empathy of his mother, who carved his life into sculpture, connect with the wool thread. The painter incorporates empathy and affection for contemplating the images of human life while dreaming of a bright and beautiful world. The sublime act of willingly accepting and nurturing life like a womb, also represented in hand knitting drawings, is a blessing. The rugged connections that come out like loops intertwine into another connection, unfolding into an infinite world of imagination within the endless structure.

To him, it is important to view nature and the world as coexisting and interacting with everything through mutual action. A sculptural

language departing from reality is manifested as sensory perception accepting symbolic images. By accepting the properties of Gubang crafts and sculpting decorative patterns, he decomposes the world into the form of knitting, extending his senses to weave. Starting from mimicking his mother and intense desire for existence, his knitting is a warm arena of communication where longing can meet. Because memories of others living behind are more painful than memories of oneself, longing feels cold. His work is also a playful way of creating another world, communication, and cherishing the value of healing. He yearns for a creative life of his own while recognizing the value of relationships and understanding the order of nature. Continuously, the painter will realize the potential for new changes through immersion and passion. We hope that each work, like morning dew accumulated on a leaf, will shine brightly.

## II.

Jeong Wookyung is an interesting artist who paints with knitting. When viewers face his paintings, they may mistakenly think that the intricate wool thread patterns are actual knittings, but in reality, the meticulously drawn wool thread patterns are not knitting but rather woven fabric drawn with a brush on bamboo needles. It is a reproduction of the woven fabric created by bamboo needles, not knitting, even more realistic than reality, and viewers can only observe it by approaching closely. The painting requires repeated distancing as it feels when approached and becomes visible when moved away. However, it is not deliberately drawn for optical illusion like "trompe-l'oeil"; rather, it was the aesthetic weaving patterns of knitting that captivated him. The densely drawn patterns on the screen are another background for him, a world of imagination where various images are constructed. The patterned woven images are delicately reproduced to evoke the soft tactile nature of wool thread, making the brush-drawn patterns more tactile and evoking aesthetic sensibility. If the painting weaves feelings based on the sculptural language, the painter's sensibility is based on hand knitting as the foundation of the mind.

Jeong Wookyung's work starts from figuration and non-figuration in sculptural works, then transforms into paintings in the form of knitting after experiencing the importance of communication as a psychotherapist. In this exhibition, he visualizes feminine emotions by taking memories with his mother as a starting point and dreams of a new world through sculptural experiments based on knitting shapes. And he is constantly vary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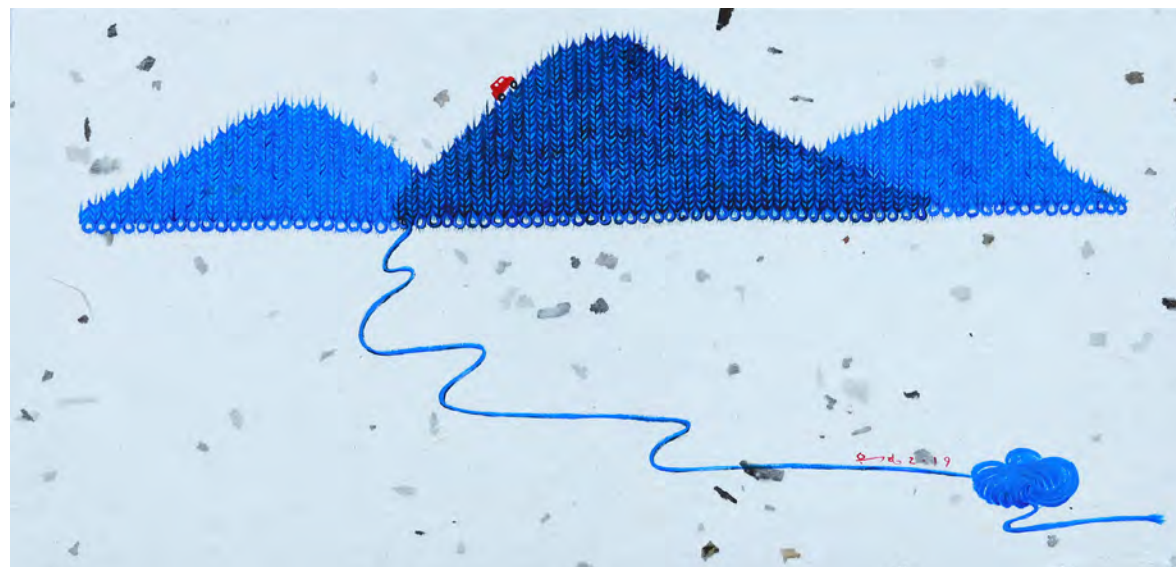
traditional images in memories, images engraved on banknotes, landscapes, and still life, and special images of individuals. The characteristic of the works in this exhibition is that they continuously explore the theme of "self-discovery." In the process of self-discovery, he obtained clues to the landscape through memories of his mother and extended the scope of sculpture by accessing the image projected through his mother to himself to knitting. The vertically undulating patterns are also read as sutras recording his mother's life. The pattern of knitting serves as an efficient form of sculpture for the painter, and at the same time, it has very universal properties as text. It seems that he sensed the moment of immersion, where consciousness and object are integrated into one image, through experience. Jeong Wookyung's artistic value and achievements start from the determination to find a sculptural form suitable for himself in terms of technique and form. Confirming the subject, the lost history of his mother was restored, and memories and reminiscences were integrated into the identity of hand knitting, reconstructing time and space anew. Creating a new plate, connecting and accessing it becomes a place to express potentiality, and thoughts and expressions form a tight network, moving back and forth between the world of imagination and the real world. He presents a hopeful world by taking butterflies or cars reflecting the pure emotions of children as symbols. Memories are not disappearing but are sealed, waiting to manifest their potential.

Jeong Wookyung's paintings shine not in the power of imagination but in vividly showing the expressions of life. When the image of love and sacrifice is grasped, the painter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korean paper | 54.3 x 26.0cm |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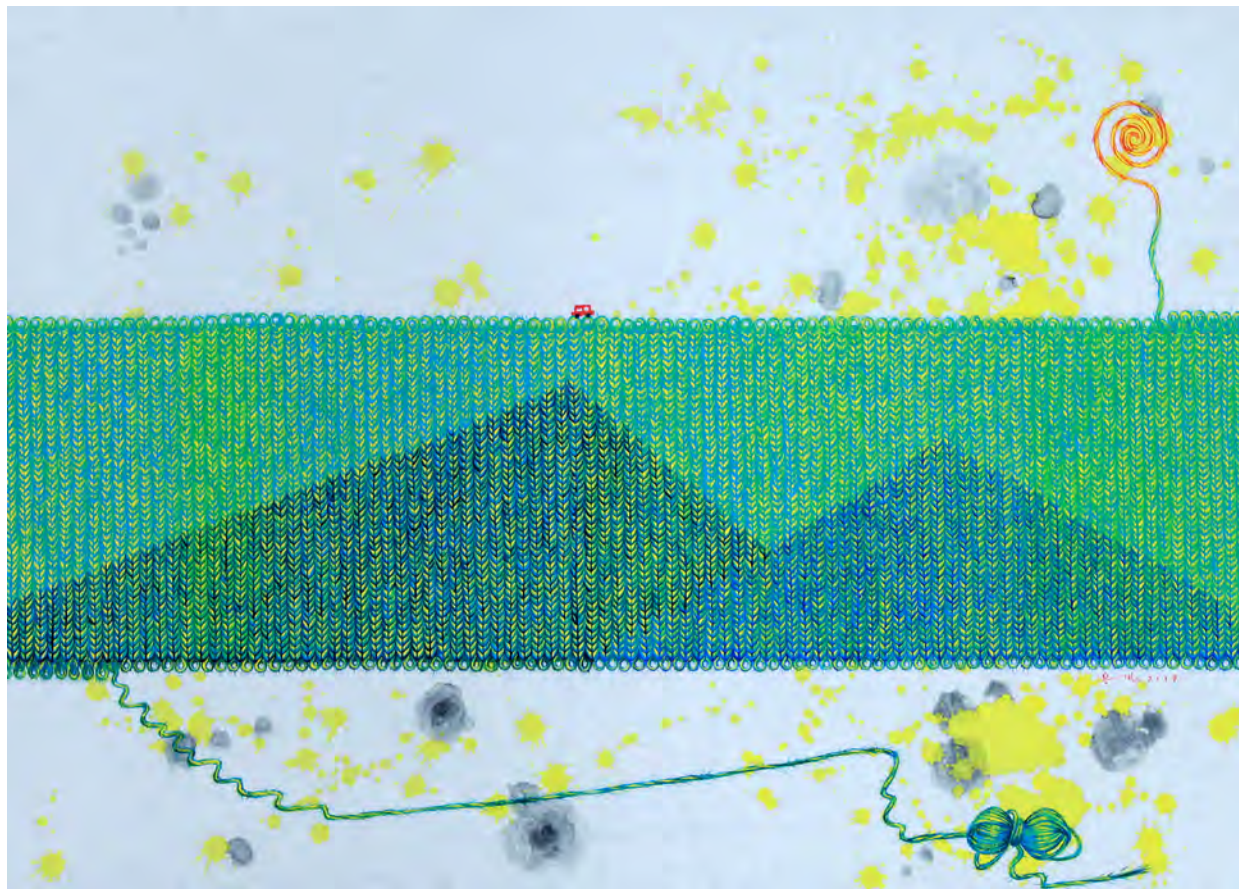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korean paper | 54.3 x 26.0cm | 2019

### III.

Jeong Wookyung's unique knitting technique, which has the composition principles of inhalation and exhalation, folding and unfolding, draws the attention of viewers. By forming various forms through the form of connection, he folds wrinkles and unfolds wrinkles that arise from the relationship with others, discovering various encounters and traces of life. The natural order inherent in everything in the world is entwined with the melodies and rhythms of yin and yang. Reflecting the properties of Gubang crafts, he shapes decorative patterns and decomposes the world into the form of knitting, sculpting with his senses. His knitting, which originated from mimicking his mother and a strong desire for existence, is a warm arena of communication where longing can be fully met. The pain of longing is felt as coldness because memories of others living behind are

more painful than memories of oneself. His work is also a playful way of creating another world, communication, and cherishing the value of healing. Recognizing the value of relationships and understanding the order of nature, Jeong Wookyung is striving for his own creative life amidst the reality of diminishing empathy and communication with humans. Continuously, the painter will realize the potential for new changes through immersion and passion. Each work, like morning dew accumulated on a leaf, will shine brightly, we hope.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korean paper | 75.7 x 54.6cm | 2019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korean paper | 33.0 x 53 .0cm | 2019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korean paper | 33.0 x 53 .0cm |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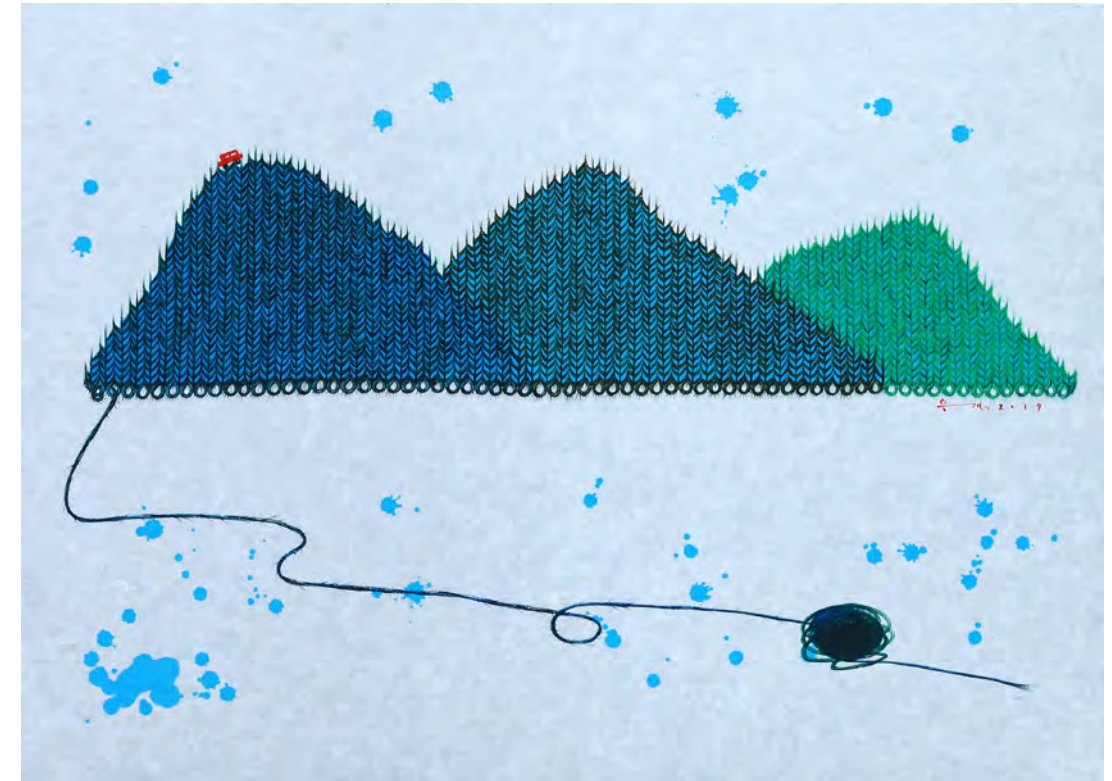
**Past, Present and...**  
Acrylic on korean paper  
36.5 x 53 .0cm | 2019



**Past, Present and...**  
Acrylic on korean paper  
74.7 x 54.20cm | 2019



**Past, Present and...**  
Acrylic on korean paper  
74.7 x 54.20cm | 2019





## Here's the New York travelogue #1

Here it is, October 2019 in Manhattan, New York, pre-COVID pandemic!

New York, the city with the highest population and bustling energy in the United States, known for its thriving industries such as finance, arts, fashion, and media, as well as its diverse cultural landscape. It's a city famous for its Broadway musicals, world-renowned art galleries and museums, and iconic landmarks. Yet amidst its grandeur, New York also holds deep pain and scars. And here I am, with my husband, in the midst of it all.

This is my third visit to the United States, following Miami in 2012 and Seattle in 2013. I've captured the little episodes I experienced here in New York, along with the awe-inspiring moments of witnessing world-famous artworks I had only read about in books.

By an unexpected turn of events, after six years, I seized the opportunity to showcase my artwork in the United States. With anticipation and excitement, my husband and I meticulously planned our travel itinerary, aligning it with our 9-day, 11-night schedule.

After a grueling 14-hour flight, akin to preparing for battle, we clenched our fists, took deep breaths, and embarked on our tight itinerary upon arrival at JFK Airport.

Using airport buses to reach Manhattan, then heading to New Jersey where our accommodation was located, we found ourselves wandering through the bustling streets of New York. Amidst the unfamiliarity, a group of people dressed as Disney characters warmly greeted us. We took photos together and engaged in brief conversations, feeling uplifted. But just as we were about to leave, their smiling faces suddenly changed, and they demanded money! It caught us off guard. Weren't they the ones who asked for photos first? It was a moment of realization.

Even upon arrival at the local bus terminal, when we encountered difficulties at the ticket vending machine, a passerby offered help. As we moved towards the ticket gate, the passerby looked at us with a smile, as if expecting something. Was it for money? Could it be they were not just ordinary passersby, but perhaps homeless? My husband handed over a handful of coins, and only



● Past, Present and...  
Mixed Media on Canvas | 53.0 x 40.9cm | 2019



● Past, Present and...  
Mixed Media on Canvas | 53.0 x 40.9cm | 2019

## 뉴욕 방문기 #1

여기는 코로나 펜데믹 이전인 2019년 10월 뉴욕 맨해튼!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활기찬 도시이자 금융, 예술, 패션, 미디어 등 다양한 산업이 발달해 있고 또한 분야별 다양성과 문화적 다채로움으로 유명한 도시로 Broadway 뮤지컬, 세계적인 미술관과 박물관, 그리고 유명한 랜드마크들이 있는 동시에 큰 아픔과 상처를 간직한 이곳 뉴욕에 남편과 함께 내가 있다.

2012년 마이애미, 2013년 시애틀에 이은 세 번째 미국 방문지인 이곳 뉴욕에서 경험했던 소소한 에피소드와 책으로만 봤던 세계적인 미술작품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꼈던 경험을 담았다.

뜻하지 않은 우연한 계기로 6년 만에 미국에서 내 작품을 선보일 기회를 잡고 기대와 설렘으로 9박 11일의 일정에 맞춰 출국 전 몇 날 며칠을 남편과 머리를 맞대고 미술관과 갤러리 투어 동선으로 여행 계획을 세웠다.

기획전 오픈 전날 14시간의 긴 비행을 마치고 JFK공항에 도착해 전투에 임하는 장수처럼 주먹을 불끈 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뻑뻑한 일정의 시작을 알렸다.

공항버스를 이용해 맨해튼에 도착 후 숙소가 위치한 뉴저지로 가기 위해 다시 로컬 버스터미널을 향해 큰 여행 가방을 끌면서 모든 게 낯설고 새로운 뉴욕 한복판을 활보하다 보니 디즈니 캐릭터 탈을 쓴 한 무리의 사람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함께 사진도 찍고 짧은 대화도 하면서 기분 좋게 자리를 떠나려는 순간 밝게 웃어주던 표정이 바뀌면서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 아~ 이런... 잠시 당황하며 마지못해 남편이 1달러를 건네니 당연한 듯 화를 내면서 10달러를 달라는 게 아닌가! 아니 이건 뭐지? 본인들이 먼저 사진 찍자고 하지 않았던가? 눈 뜨고 코 베인 순간이었다.

로컬 버스터미널에 도착해서도 티켓 판매기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지나가던 행인의 도움으로 발권받아 개찰구로 이동하려는 순간 그 행인은 우리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요구하듯 밝은 표정으로 눈웃음치는 게 아닌가! 돈을 줘야 하나? 행인이 아닌 노숙인이 아니었을까...

남편 주머니 속 동전 한 움큼을 손에 쥐니 그제야 Thank you를 연발하고 사라진다.

힘들게 숙소에 도착해 우리는 미국에서 호의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곱씹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니자고 다짐한 고단한 뉴욕의 첫날이었다.

전시회 오프닝에서는 뉴욕에 거주하는 딸 친구의 도움으로 작품 홍보와 의사소통에는 전혀 무리가 없었고 뉴욕 첼시는 유명한 미술관과 갤러리가 많아서 그곳 투어만으로도 부족한 일정이었다.

첫 번째로 센트럴파크와 인접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찾았다. 한 달을 봐도 다 못 본다는 미술관을 이틀 동안 보려니 자연스럽게 회화 위주로 보고 또 보기를 반복했다. 세계적인 명화를 인쇄된 종이를 통해서 보는 것과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의 차이를 경험하고 싶었다. 고흐의 이글이글 타오르듯 물결치는 붓의 두꺼운 터치를 직접 보았을 때의 감동에 몸이 저절로 반응했다. 마치 내가 그림을 그리듯 붓 터치 방향대로 손이 따라서 움직였고 색채가 다양한 고흐의 자화상과 해바라기는 개인적으로 가장 보고 싶었던 작품으로 오래 기억하리라!

내가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찾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작품과 유물을 통해서 그 시대의 생활상과 삶의 방식을 상상하고 이해하면서 그것에 영감을 얻어 작품활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아쉬움에 오랜 여운이 남는 미술관 투어를 마치고 유람선을 타고 허드슨강을 따라 아픈 기억을 간직한 911메모리얼 파크를 지나 미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이자 아메리칸드림의 상징인 자유의 여신상 투어를 마지막으로 이번 이야기를 마친다.

### 덧붙임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두 번을 다녀왔지만, 당연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곳이기에 미국을 다시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또 가겠다고 다짐한다.



then did they say "Thank you" repeatedly before disappearing.

Arriving exhausted at our accommodation, we reflected on the harsh reality that kindness comes with a cost in New York. We resolved to stay alert and composed throughout our challenging first day in the city.

During the exhibition opening, with the help of a friend's daughter residing in New York, we had no trouble promoting my artwork and communicating. Chelsea, New York, known for its numerous art galleries and museums, alone wasn't enough to fill our itinerary. Our first stop was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adjacent to Central Park. Though two days weren't enough to see everything, we naturally gravitated towards paintings, repeatedly viewing them.

I wanted to experience the difference between seeing world-renowned masterpieces through printed paper and witnessing them with my own eyes.

The sight of Van Gogh's bold brushstrokes, like waves of burning passion, moved me deeply. It was as if my hand followed the brush strokes as if I were painting myself. Among all of Van Gogh's

artworks, his self-portraits and sunflowers were the ones I most wanted to see, and they will stay in my memory for a long time!

One of the main reasons I visit art museums and galleries is to imagine and understand the lifestyle and way of life of the era through the artworks and artifacts, and to gain inspiration for my own artistic activities.

After an unforgettable art museum tour, we boarded a sightseeing boat along the Hudson River, passing by the poignant 9/11 Memorial Park, and ended our journey with a tour of the Statue of Liberty, the iconic symbol of the American Dream.

**Additional no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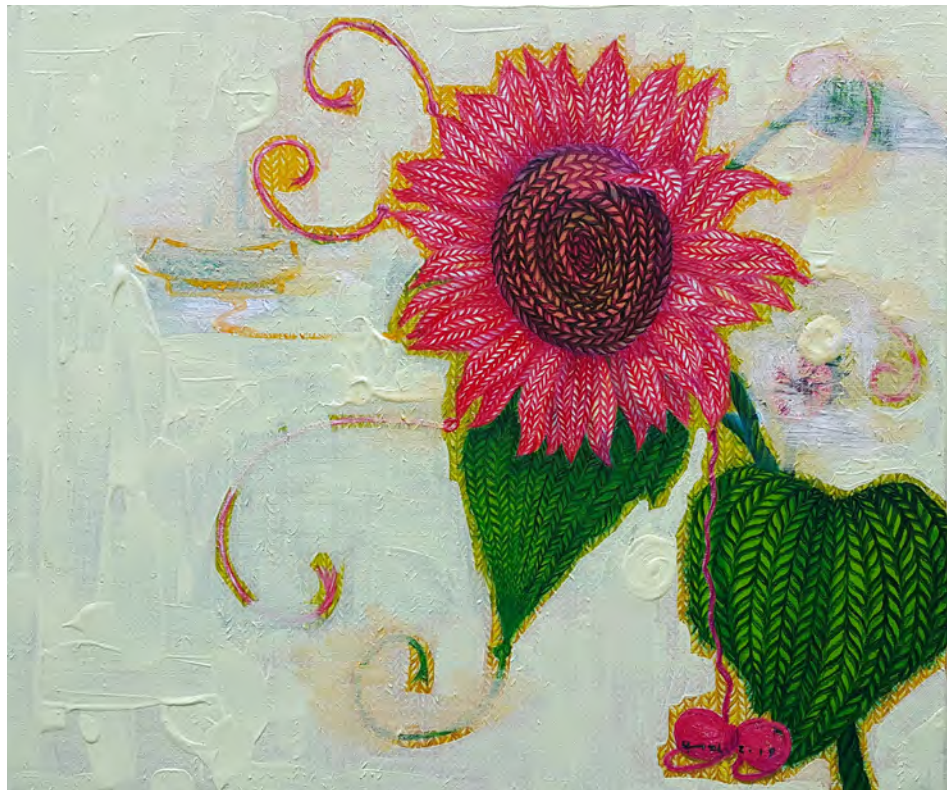
Although I visited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twice, I left with a lot of regrets. If I have the opportunity to visit the United States again, I will definitely go back.



● Past, Present and...  
Mixed Media on Canvas | 112.1 x 162.2cm | 2019



● **Past, Present and...**  
Oil on Canvas  
53.0 x 45.5cm |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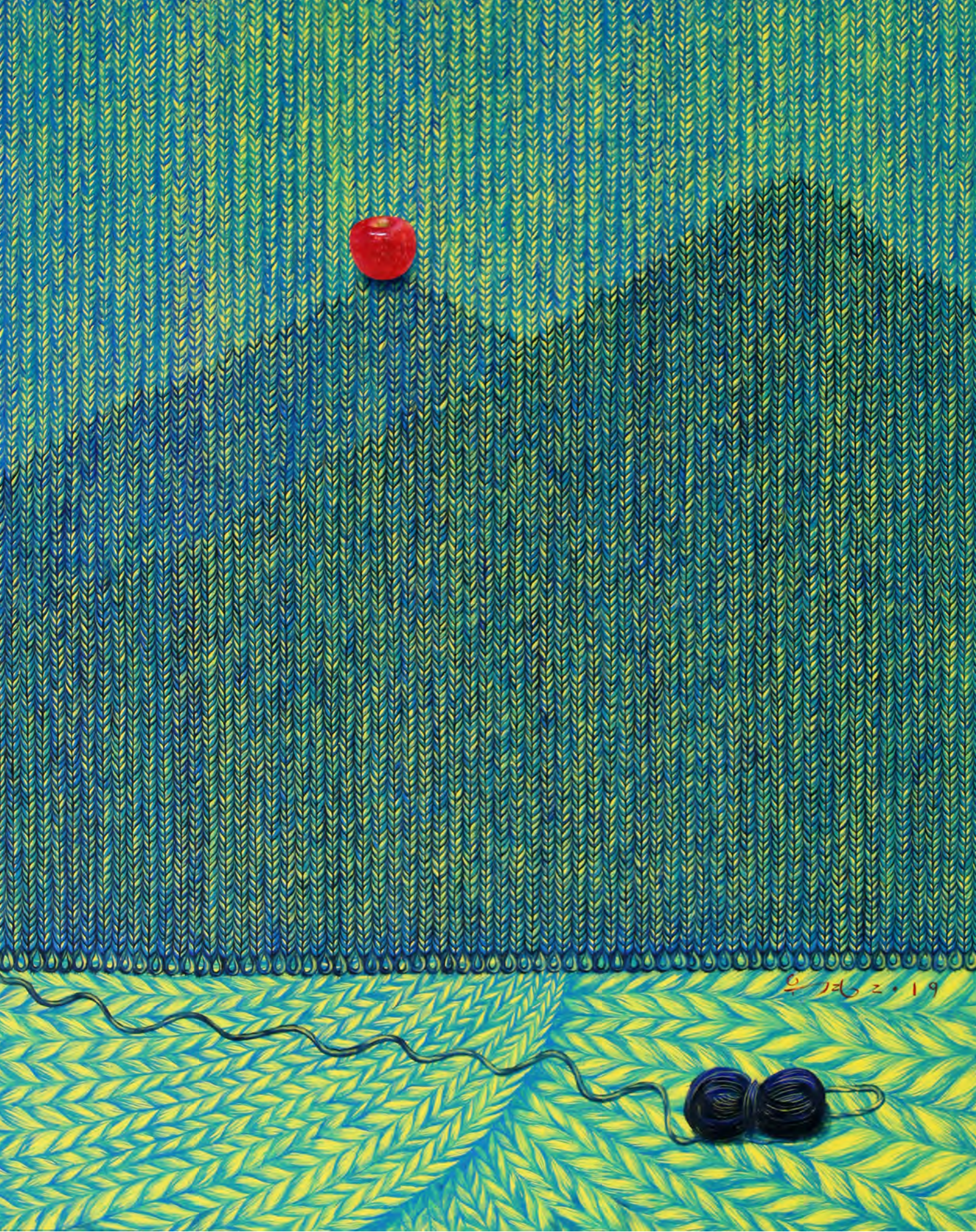


● **Past, Present and...**  
Oil on Canvas  
72.7 x 53.0cm | 2019

● **Past, Present and...**  
Oil on Canvas  
89.4 x 130.0cm |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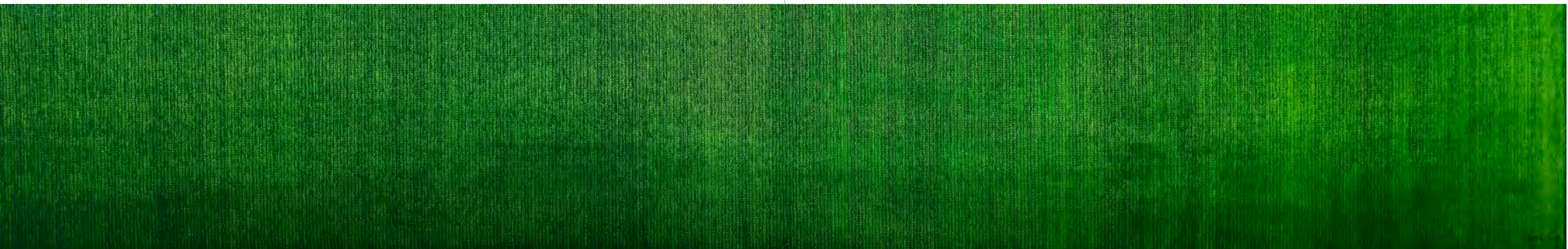
●  
**Past, Present and...**  
 Oil on Canvas  
 130.3 x 162.2cm | 2019





●  
**Past, Present and...**  
**(Be faithful to the earth)**  
Oil on Canvas  
900.0 x 144.5cm | 2016~2019  
(Shape trans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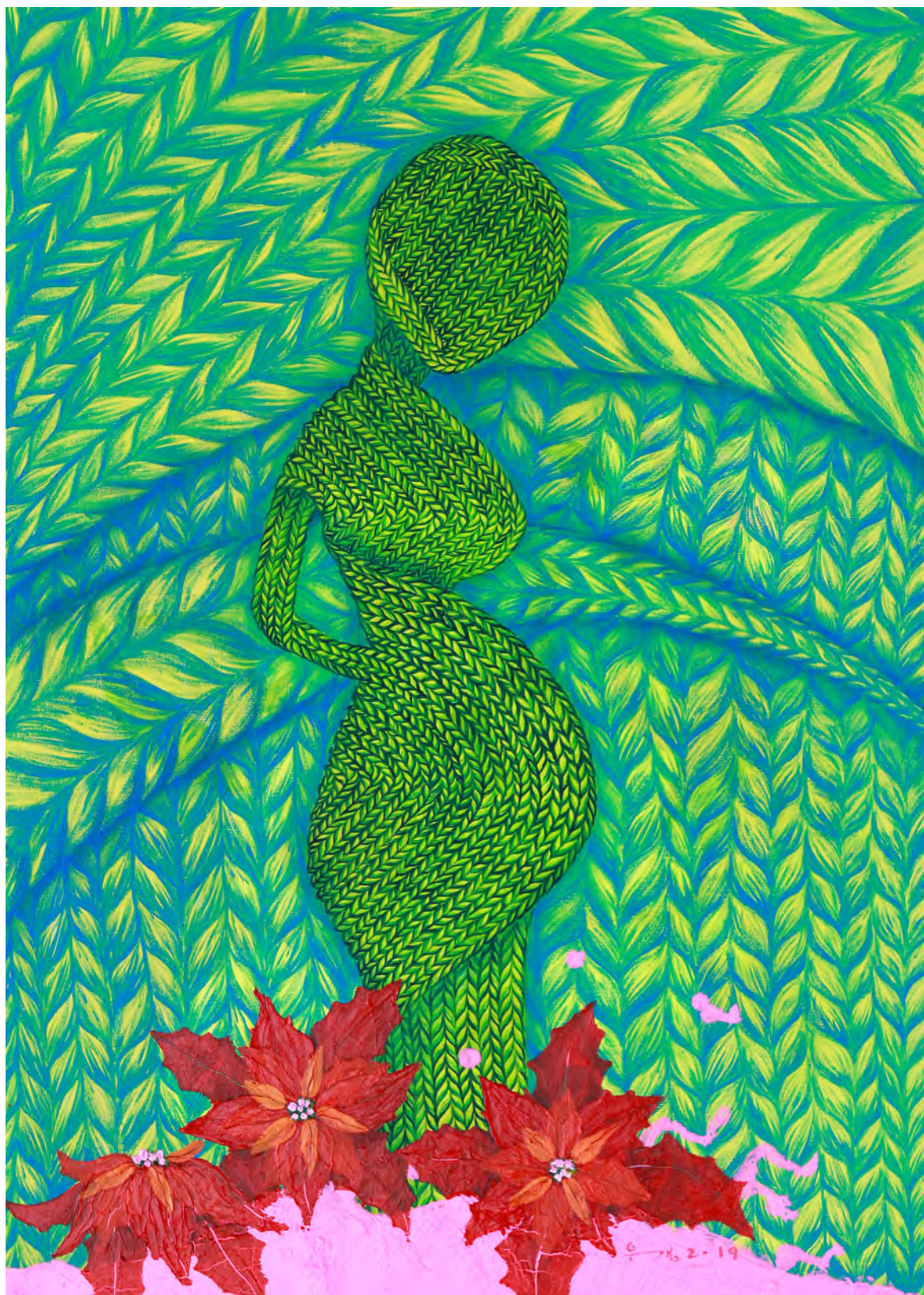
Past, Present and...

(Be faithful to the ear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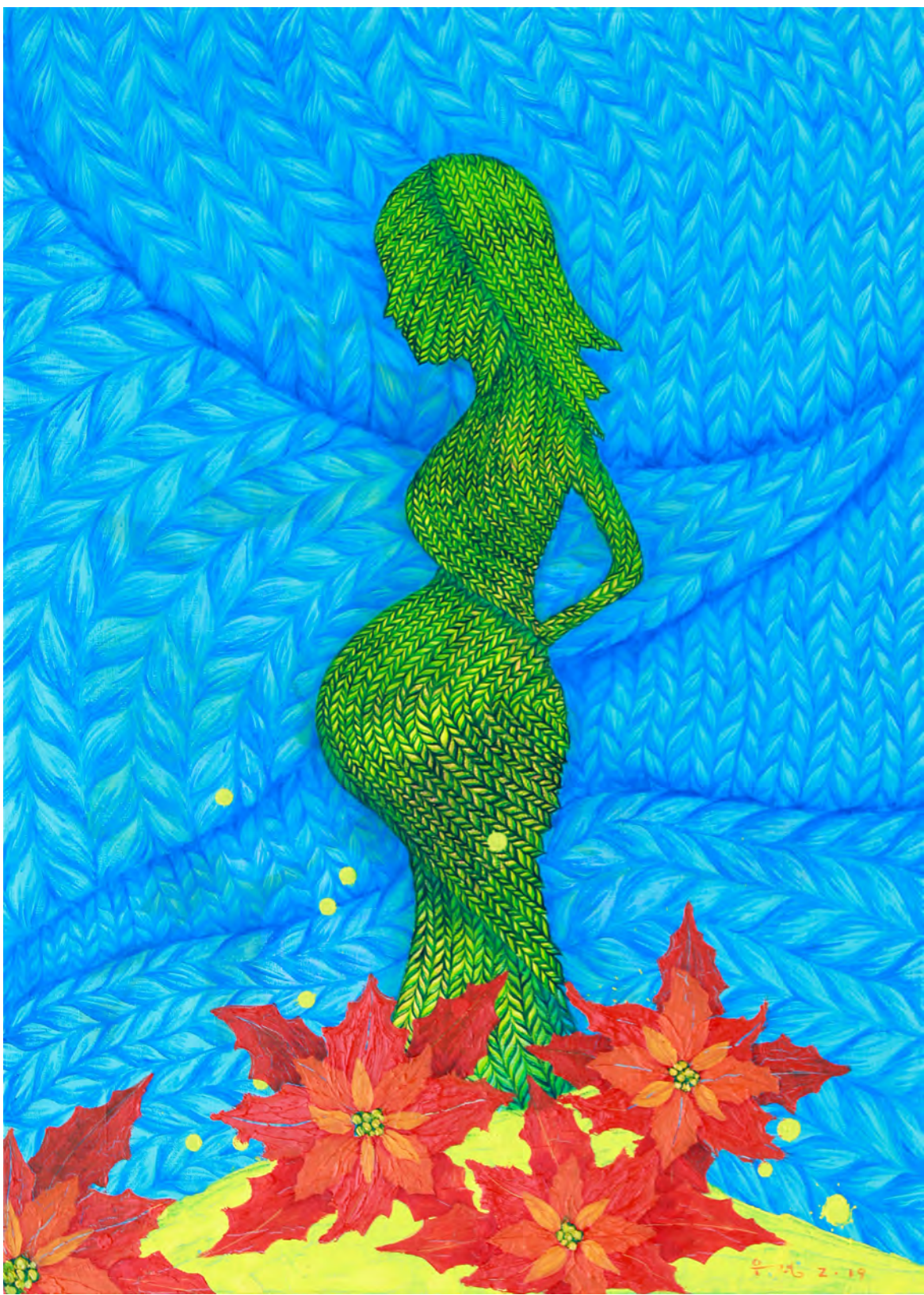
Oil on Canvas

900.0 x 144.5cm | 2016~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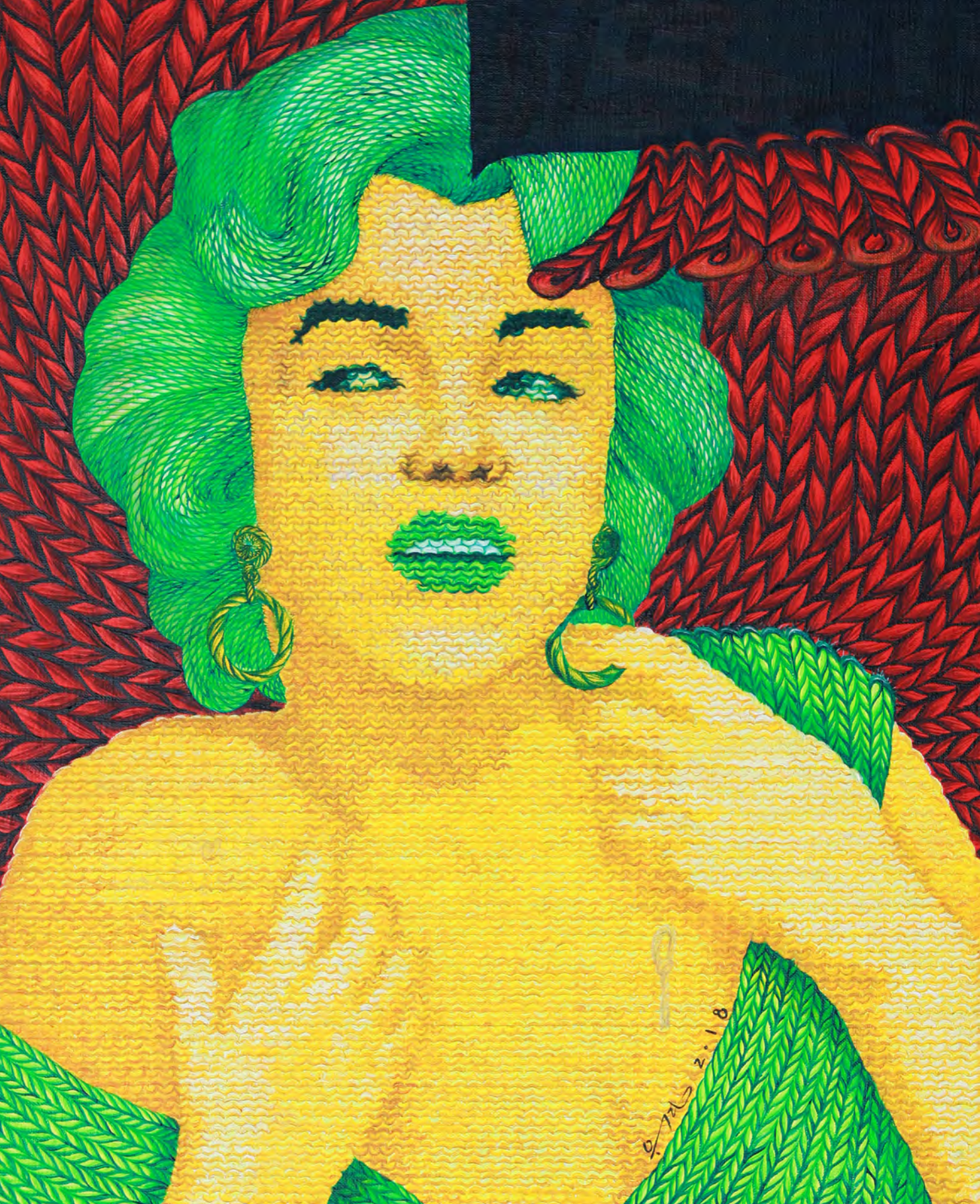


●  
**Past, Present and...  
 (Happiness)**  
 Oil on Canvas  
 65.1 x 90.9cm |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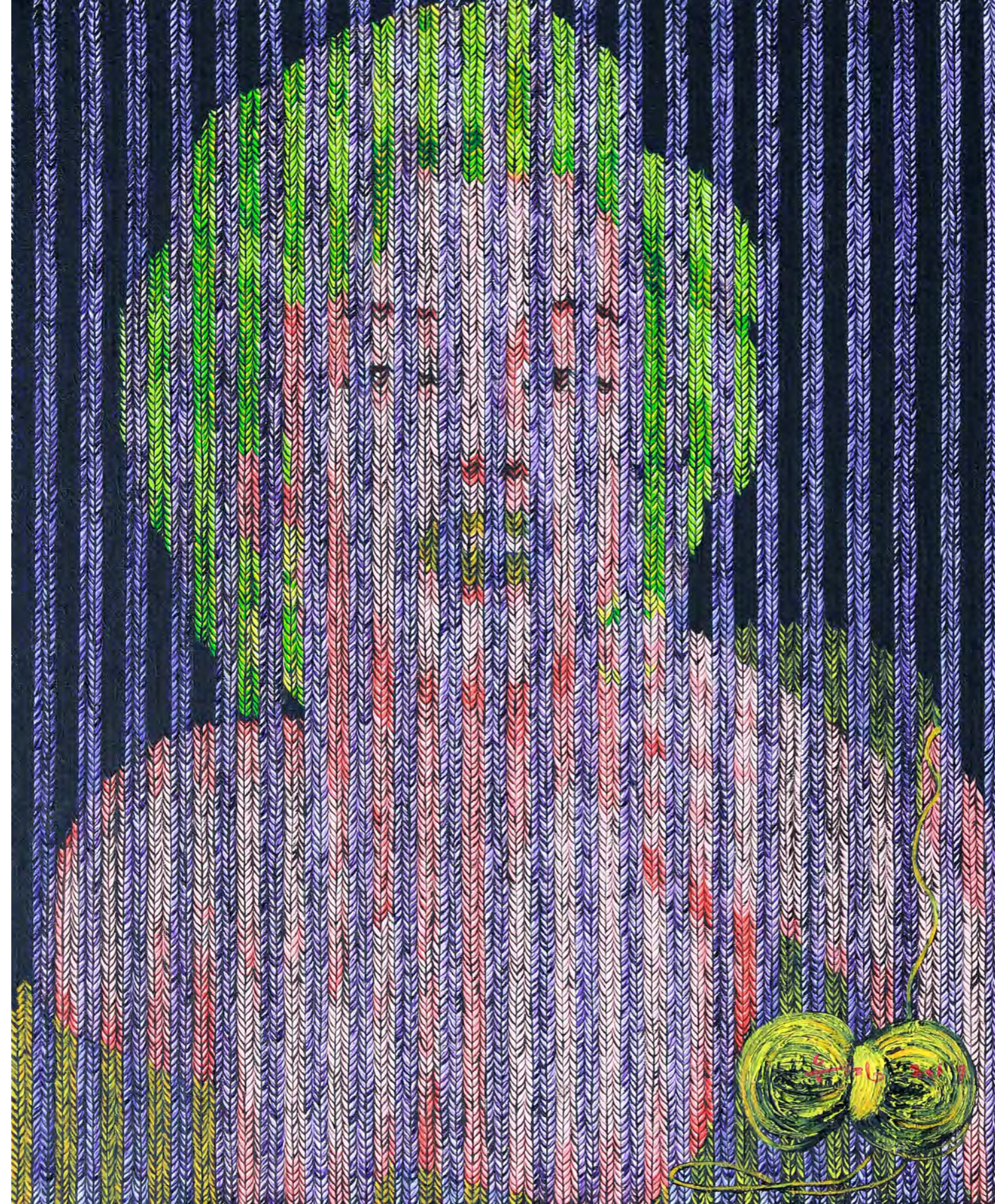


●  
**Past, Present and...  
 (Happiness)**  
 Oil on Canvas  
 65.1 x 90.9cm | 2019





●  
 Past, Present and...  
 (Marilyn)  
 Oil on Canvas  
 53.0 x 65.1cm | 2019



●  
 Past, Present and...  
 (Marilyn)  
 Oil on Canvas  
 53.0 x 65.1cm | 2019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 50.0 x 65.1cm | 2019



● Past, Present and...(Scent of Magogsa Temple)

Acrylic on canvas | 37.9 x 45.5cm | 2019



# 2018~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 45.4 x 38.0cm | 2018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 45.4 x 38.0cm |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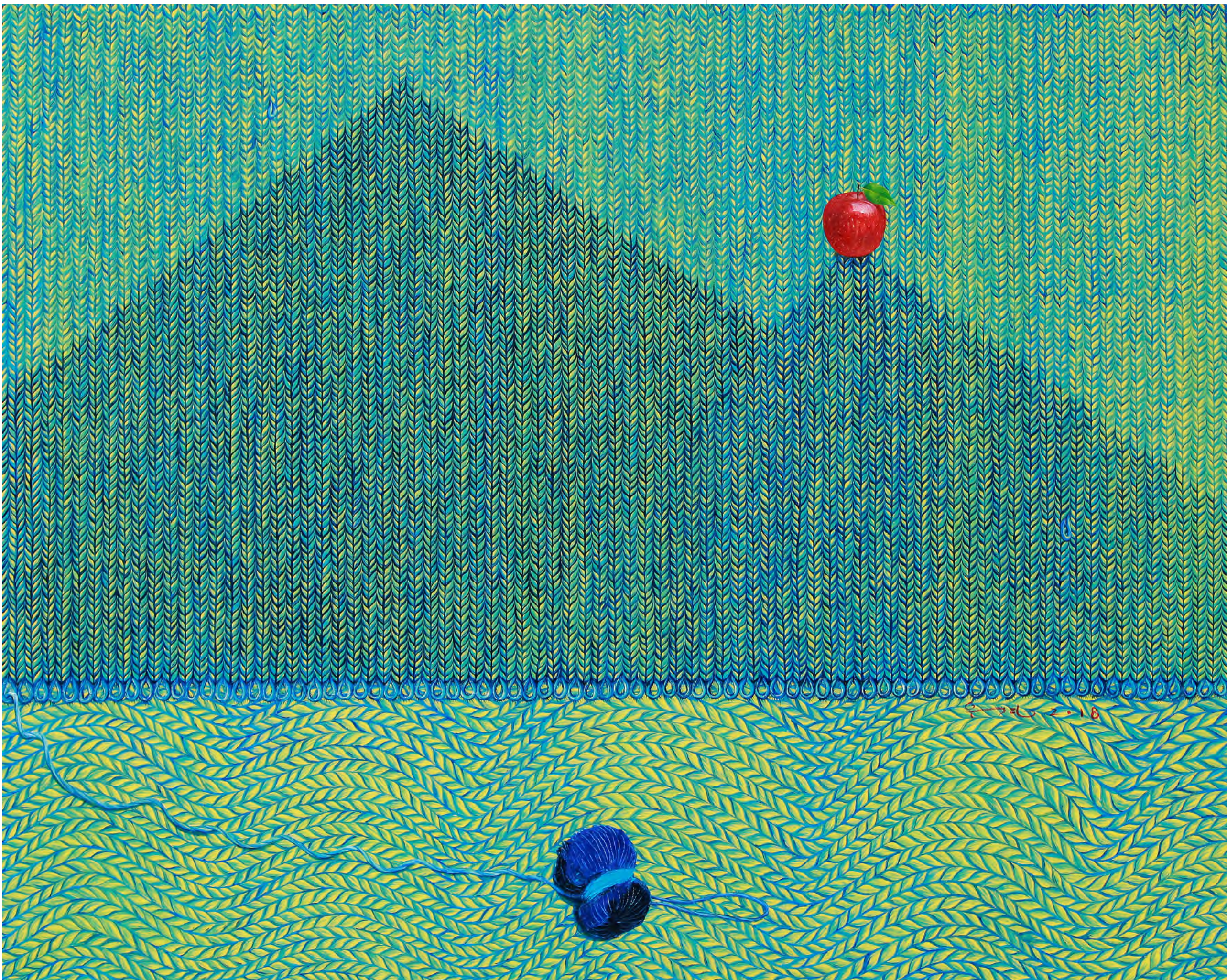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45.5 x 53.0cm | 2016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45.5 x 53.0cm | 2016

● Past, Present and...  
Oil on canvas  
90.9 x 65.1cm | 2016







●  
**Past, Present and...**  
 Oil on canvas  
 162.2 x 130.3cm | 2018



## Jeong Woo-Kyung Review

**Ruthie Tuc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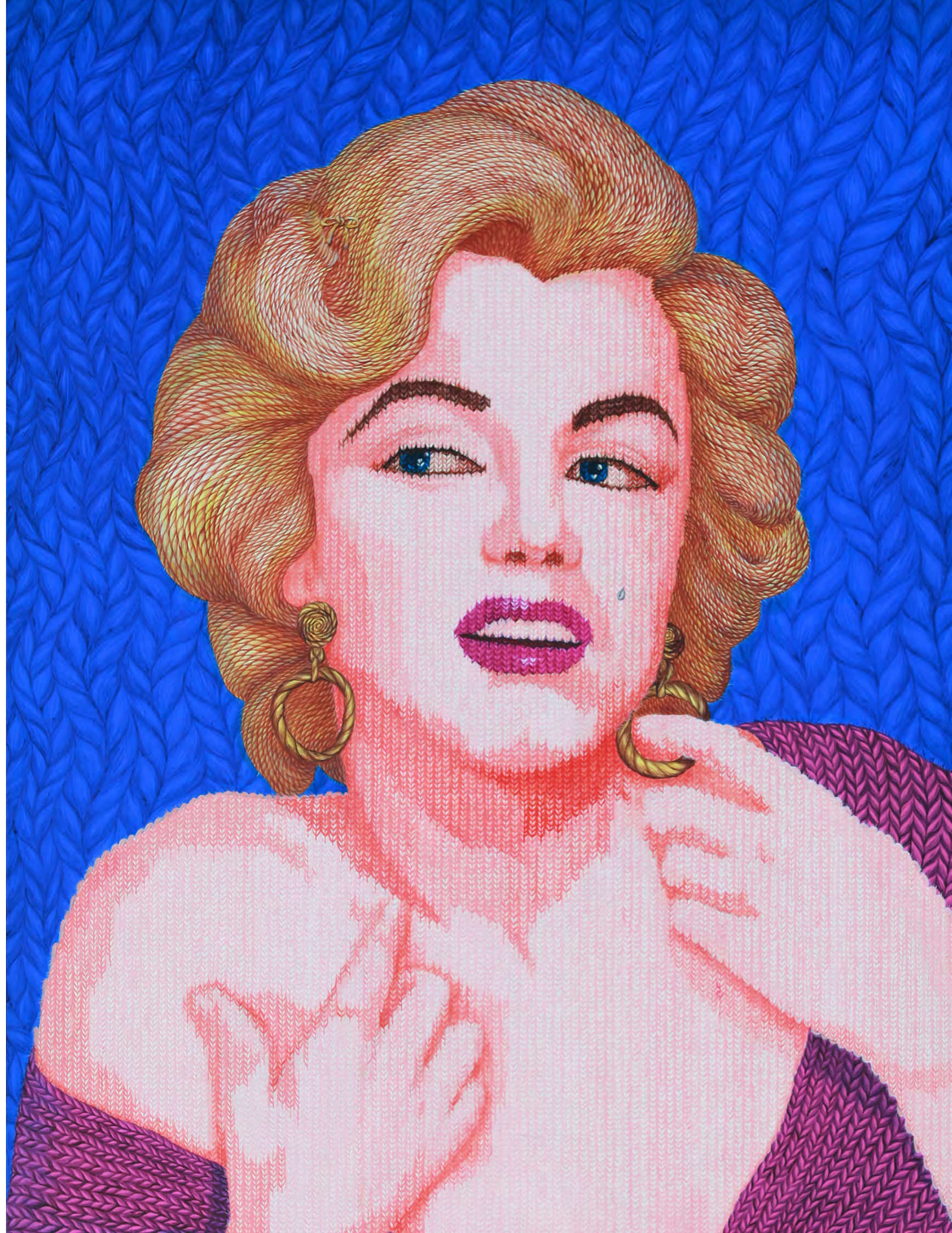
Amsterdam Whitney Gallery

Executive Director – Curator

Intrigued by Vincent van Gogh concept, "Paintings have a life of their own that derives from the painter's soul," Korean artist Jeong Woo-Kyung artistically aligns herself with this theory with paintings that express the powerful emotions from the heart and soul. Capturing the human spirit with images ranging from Mother Theresa to Marilyn Monroe, her "Past, Present and... Series" explores the apex of artistic imagination. By juxtaposing the legacy of a saint to the image of a sexual icon, she recontextualizes an atmospheric aesthetic environment which transcends time and place, celebrating noteworthy personas of the twentieth century. Through visceral compositions and expressive use of color, line, light and opacity, the artist invites us on a visual odyssey with a dazzling tableau that mirrors the human spirit.

"회화는 작가의 영혼에서 파생되는 고유의 삶을 가지고 있다"라는 빈센트 반 고흐의 개념에 호기심을 느낀 한국 작가 정우경은 자신을 고흐의 이론과 접목시켜 가슴과 영혼으로부터 강력한 정서를 그림으로 표현한다. 테레사 수녀에서 마릴린 먼로에 이르는 이미지들로 인간의 정신을 사로잡는 정우경의 "과거, 현재 그리고... 시리즈"는 예술적 상상의 정점을 탐색한다. 성자의 유산을 성적인 아이콘의 이미지와 병치함으로써, 그녀는 시공을 초월하는 분위기의 미적 환경을 재 개념화함으로써, 20세기의 주목할 만한 페르소나를 축하한다. 노골적인 구성과 색깔/선/빛/불투명성의 표현적 사용을 통해 그녀는 인간의 정신을 반사하는 현기증 나는 그림으로 우리를 시각적 오딧세이로 초대한다.

Jeong Woo-Kyung's "Past, Present and... Series," visually honors iconic heroines of the past, present, and future, emphasizing their historic importance. Symbolically underscoring their enduring quality, these famous personas continue to globally resonate in our worldwide culture with an alchemic mélange of magical allure. Timeless and unique, Jeong Woo-Kyung's mixed media oeuvre opens sensorial portals to fresh perspectives as she intermingles reality with imagination. Her emotional vistas create a sense of intrigue and fantasy which extend beyond the distractions of everyday life. At the heart of her oeuvre is a keen ability to capture the hidden emotions and strong personalities of her vignettes as she invites us to contemplate adventurous narratives fueled by our fanciful imagin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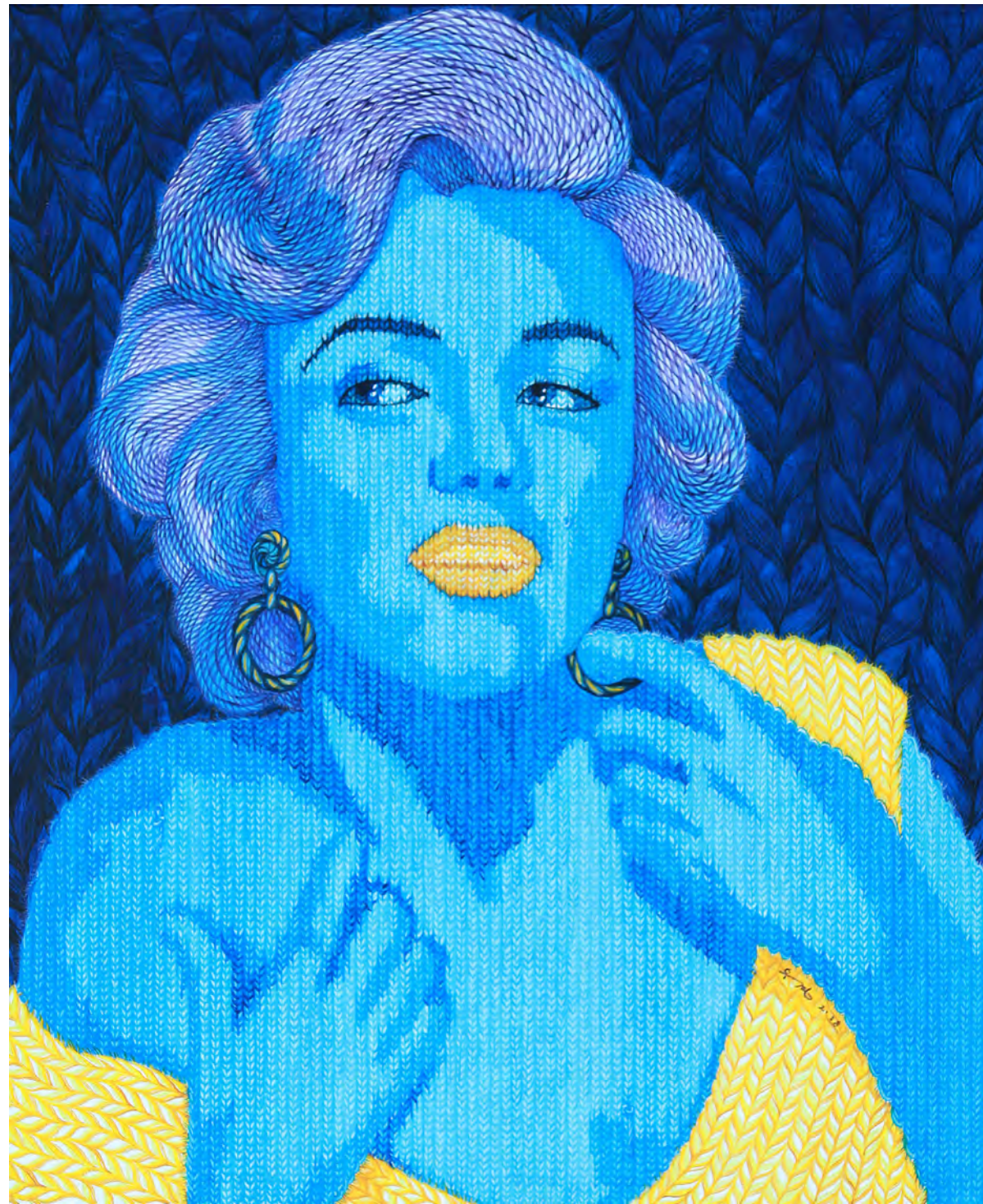
정우경의 “과거, 현재 그리고.. 시리즈”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표상적인 여성 영웅들을 시각적으로 존경함으로써 그들의 역사적인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 영속적인 특징을 상징적으로 강조하는 이들 유명한 페르소나는 마술적 유혹의 연금술 멜랑주로 우리의 글로벌 문화에서 전 세계적으로 계속 공명한다. 무한하고 독특한 정우경의 혼합 매체 작품은 현실과 상상을 혼합하면서 감각적인 문을 신선한 관점으로 개방한다. 그녀의 정서적인 전망은 신선함과 환상을 불러일으키며 이러한 신선함과 환상은 일상의 산만함을 넘어 확장된다. 그녀의 작품의 한 가운데에는 그녀의 상반신의 숨은 정서와 강한 개성을 포착하는 예리한 능력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 때 그녀는 우리의 환상적인 상상으로 구동되는 모험적 서사를 생각하도록 촉구한다.

These optical fantasies reveal a complex aesthetic and reverberate with a visual syntax which contributes to the expressionistic element. A sweeping huetopian palette dominates her tableaux featuring figures and panoramas which metamorphose into tangible forms. Electrifying hues undulatingly swirl through the canvases, allowing Jeong Woo-Kyung to metaphorically express emotions and thoughts through a brilliant color wheel which imbues her work with a rich, ebullient two-dimensional, textural effect. The explosion of syncopated hues enhances a dynamic, visual imagery of revelation and creates an exciting artistic drama on canvas. These emotional dioramas illustrate the deep heart's core of which we are and inspire us to contemplatively reflect on our inner being.

이들 광학적 환상은 복잡한 미학을 드러내며, 표현주의적 요소에 기여하는 시각적 통사와 함께 울려 퍼진다. 시원스러운 색채주의 팔레트는 인물과 전경들을 묘사하는 그녀의 장면을 지배하며, 이들 인물과 전경들은 유형적인 조형들로 은유 된다. 짜릿한 색조는 높으락 낮으락하며 캔버스에서 소용돌이치며, 그녀가 그녀의 작품을 풍부하고 열광적인 2차원적 구조의 효과로 채색하는 현란한 컬러 휠을 통해 감정과 사고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도록 해준다. 당김음과 같은 색조의 폭발은 계시의 역동적이고 시각적인 상상을 강화하며 캔버스에 짜릿한 예술적 드라마를 창출한다. 이들 정서적인 디오라마는 우리의 깊은 내면을 설명하며 우리가 우리의 내적 자아를 명상적으로 반성하도록 고무한다.

Our multicultural world becomes a verified reality through Jeong Woo-Kyung's artwork, inviting us to have a visual conversation and emotionally interact with these worldly icons. Applauded for her unique artistic vision, Jeong Woo-Kyung's exciting tableaux emotionally speak to her audience. The Korean-born award-artist has exhibited internationally and nationally in both group and solo shows throughout Asia,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Her artwork is treasured in public and private collections world-wide and Amsterdam Whitney Gallery is proud to showcase the artwork of this contemporary global art star.

우리의 다문화적 세계는 정우경의 예술작품을 통해 검증된 현실이 되어, 우리가 이 세속적인 아이콘들과 시각적인 대화와 정서적인 상호작용을 하도록 고무한다. 그녀의 독특한 예술적 비전으로 박수갈채를 받는 그녀의 짜릿한 장면은 그녀의 관객들에게 정서적으로 말한다. 이 한국 출신의 수상 작가는 아시아, 유럽, 미국에서 단체전 및 개인전을 개최해 왔다. 그녀의 작품은 전 세계적으로 공공 및 개인 소장품으로 선호되고 있으며 암스테르담 휘트니 갤러리는 이 현대적인 세계적 예술 스타의 작품을 선보이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다.



●  
**Past, Present and...  
(Marily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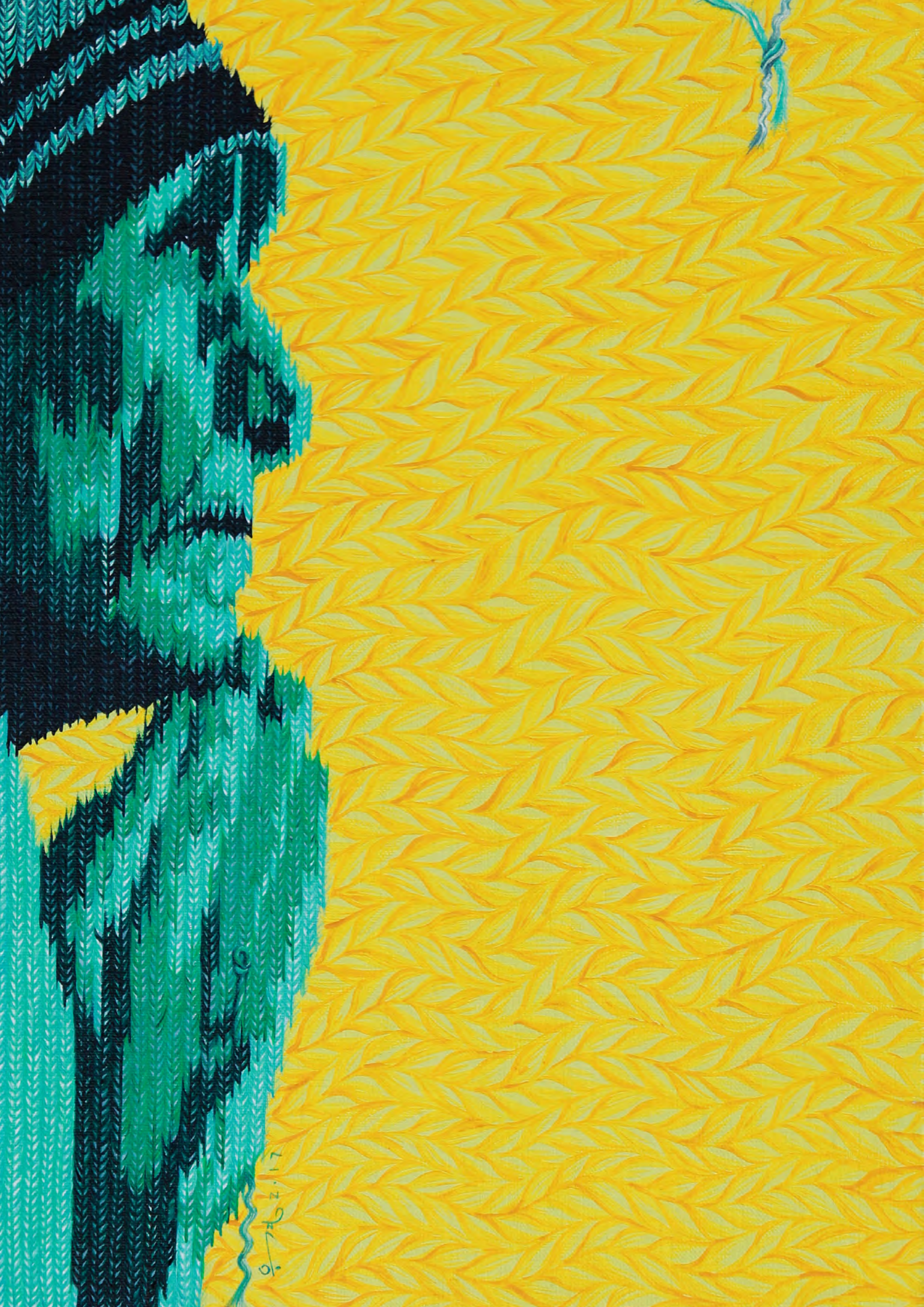
Oil on canvas  
53.0 x 65.1cm |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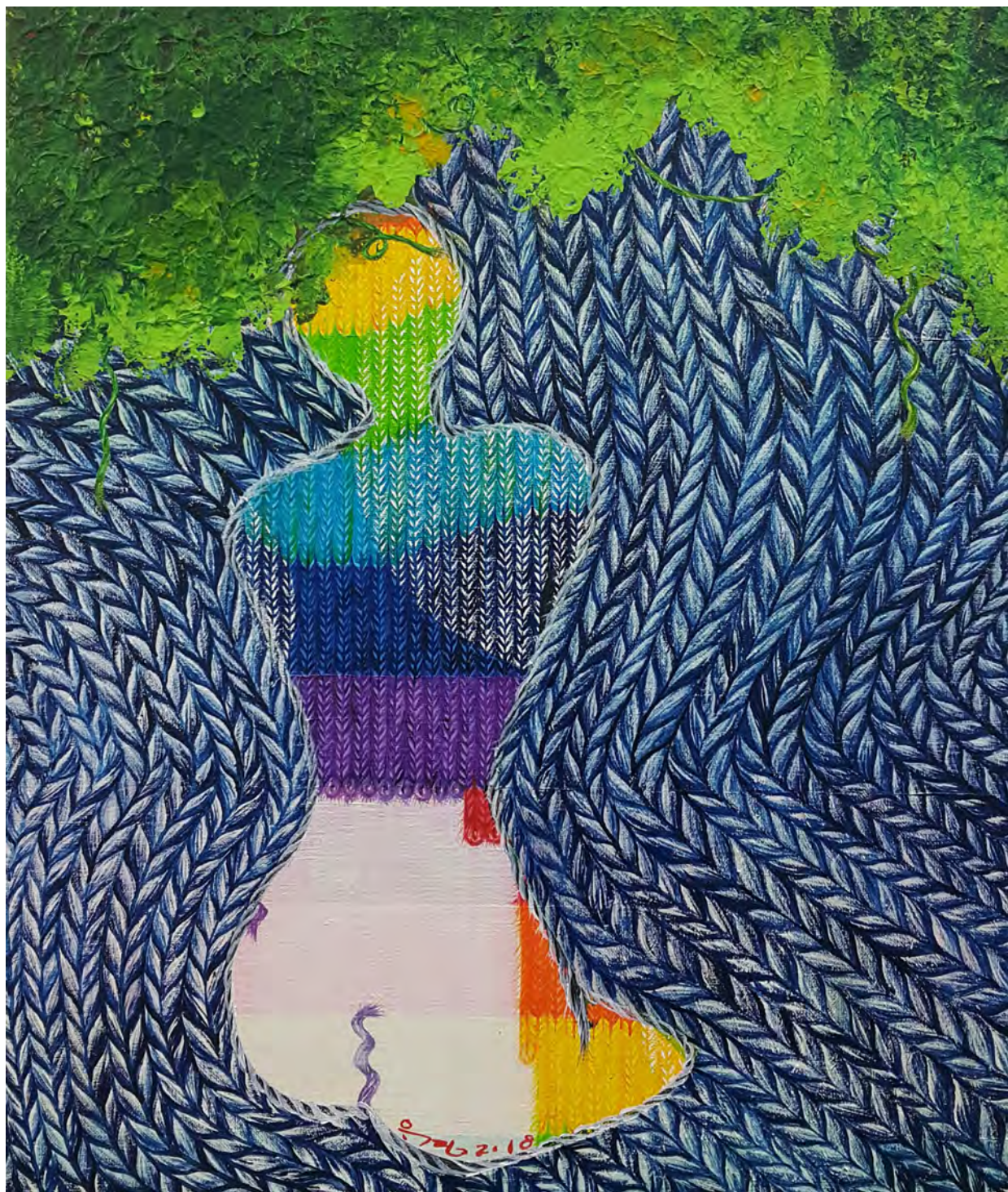


● **Past, Present and...  
(Mother Teresa)**  
Mixed media on Canvas  
27.3 x 40.9cm | 2018

● **Past, Present and...  
(Mother Teresa)**  
Mixed media on Canvas  
27.3 x 40.9cm |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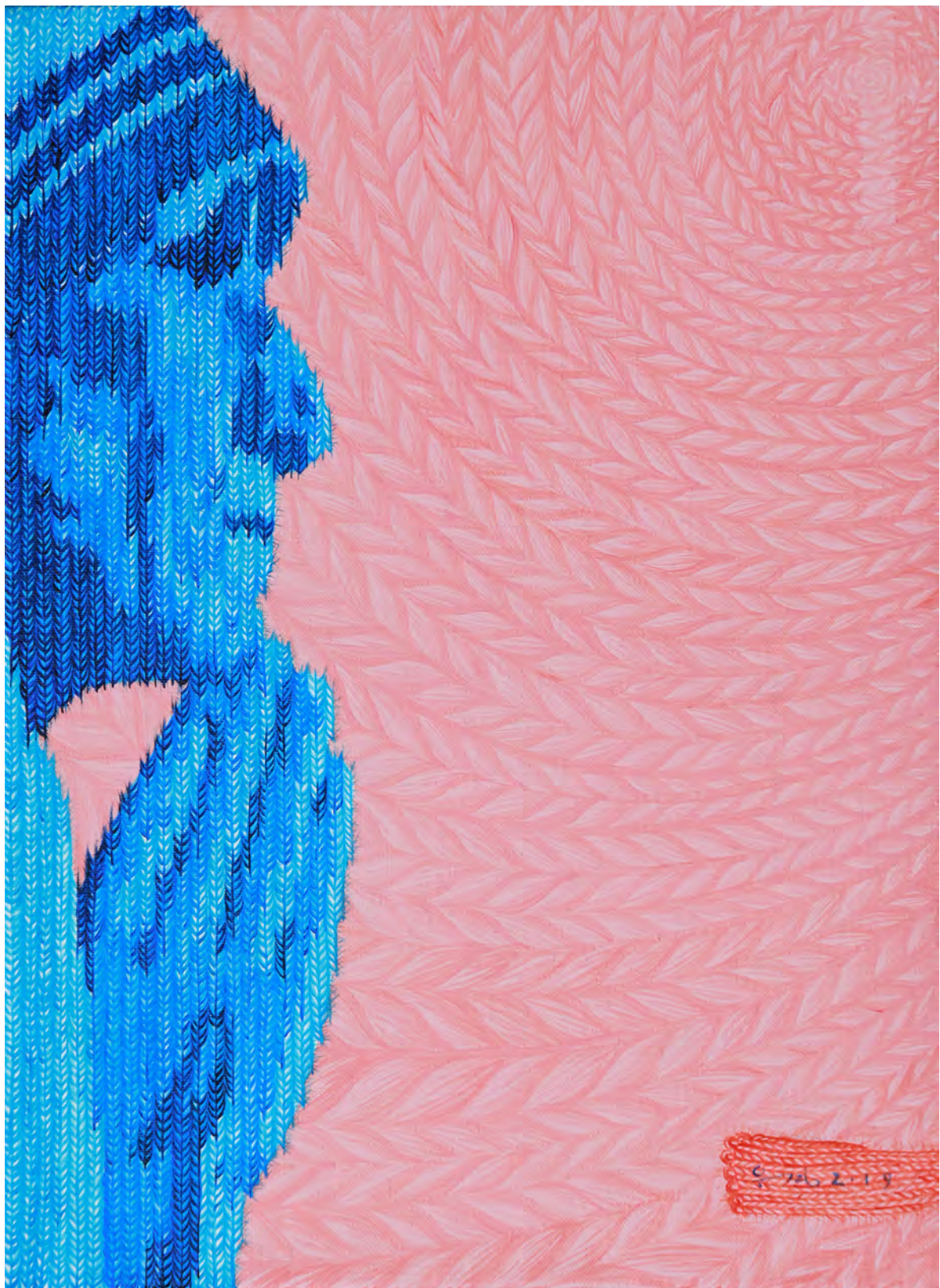






●  
Past, Present and...  
(Rainbow)

Mixed media on Canvas  
45.5 x 53.0cm | 2018



●  
Past, Present and...  
(Mother Teresa)

Mixed media on Canvas  
27.3 x 40.9cm | 2019



2017~

## 뉴욕 방문기 #2

뉴욕의 일정도 어느덧 5일이 지나고 절반의 성공으로 자평하며 전시회도 잘 마쳤다. 현대미술의 성지로 불릴 만큼 뉴욕에서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첼시의 유명 갤러리와 주변의 미술관을 구역으로 나눠 매일 관람하는 일정으로 계획을 짜고 전투적으로 실행에 옮겼다.

아침 일찍 숙소가 위치한 뉴저지에서 버스를 타고 맨해튼에 도착해 일정을 소화하고 저녁 9시쯤 다시 뉴저지행 버스를 타고 숙소로 돌아오는, 단순하지만 하루하루 매 순간이 우리에게겐 모험과도 같았다.

탁 트인 도시의 전망도 테라스에서 볼 수 있고 미국을 대표하는 현대미술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휘트니 미술관에서 감탄사를 연발하며 오후 늦게까지 관람을 마치고 나와

간단히 저녁을 먹고 브로드웨이를 대표하는 극장에서 뮤지컬 알라딘을 보는 내내 남편과 달리 나는 피곤함에 지쳐 졸면서 본 탓인지 장면과 장면이 연결되지 않았다. 뮤지컬이 끝나고 남편이 한마디 한다. (이게 얼마짜린데... 졸음이 오냐?)

우리가 예약한 좌석이 오케스트라 근처라서 비싸긴 했지만 아무리 비싸도 눈꺼풀이 자동으로 내려가는 걸 어찌라고... @@

갤러리와 미술관 투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는 단연 구겐하임 미술관이었다. 나선형의 흰색 외관은 달팽이를 연상시켰고 고개를 들어 경사로를 천천히 오르면서 관람하는 사람들을 밑에서 보는 것과 자연 채광이 들어오는



● Past, Present and... Oil on canvas | 90.9 x 65.1cm | 2017

● Past, Present and... (Rainbow)

Mixed media on Canvas  
45.5 x 53.0cm | 2018



덤의 형태도 흥미로웠다. 현대미술사의 책으로 볼 수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직관할 수 있어서 발걸음은 가벼웠고 4층에 왔을 때 내 발걸음과 맥박은 점점 빨라졌다.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의 작품이 보여서였다.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려는 남편에게 여기서는 꼭 사진을 찍어야 한다며 팔을 잡아당겼다. 그의 독특함과 불편함을 보고 싶었으며 책을 통해서 알게 된 작가의 삶과 작품이지만 그의 외로움과 불안 분노와 통증을 작품을 보면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뉴욕의 진정한 야경을 보기 위해서 안 가면 섭섭하다는 록펠러센터의 Top of The Rock에서 보는 뉴욕의 전경은 아름다움을 넘어 황홀감 그 자체였다. 우리가 며칠 동안 누웠던 뉴욕의 곳곳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정면으로 보였고 늦은 시간에 빼곡한 사람들 틈으로 맨해튼과 허드슨강 너머로 붉게 노을 지는 모습을 보며 우리도 저렇게 곱게 늙어가자며 손각지에 힘을 쥐었다.

갤러리와 미술관만큼이나 가고 싶던 곳이 바로 타임스 스퀘어(Times Square)다. 뉴욕 미드타운에 있는 교차로에 광고비가 가장 비싼 대형 전광판들이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 광고들로 가득한 광장이며 볼 드랍(Ball Drop) 새해 전야행사로 매우 유명해진 곳이다. 특히 현

대자동차, 삼성, LG 광고가 눈에 들어와 왠지 모를 뿌듯함도 있었다. 뉴욕은 우리나라 기후와 비슷한데 10월 초순 밤 기온이 더 낮아 옷깃을 여미기도 했다. 평일이라 출서기는 없었어도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고 곳곳에서 캐릭터 복장, 마임, 스트리트댄스, 마술쇼 등 볼거리가 많아 발걸음을 멈추게 만든다. 다양한 인종의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 편견 없이 재미있게 즐기는 모습에 감탄사를 연발하며 광장에 설치된 빨간 계단 중앙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양쪽으로 펼쳐지는 환상적인 장면들을 보면서 타임스 스퀘어의 한복판에 있다는 걸 온몸으로 실감하며 꿈꾸듯 순간순간을 눈에 담았다.

이번 뉴욕 기획전을 추진하고 다녀오면서 그동안의 나 자신을 성찰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잡았다는 큰 성과를 얻었고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에 때로는 좌절도 경험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응원해주는 가족과 주변 지인들의 격려에 계속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어도 과감히 미국행을 결정하길 잘했다는 생각과 외국 전시회를 망설이신다면 과감하게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뉴욕 방문기를 마친다.



● Past, Present and... Oil on canvas | 90.9 x 65.1cm | 2017



## Here's the New York travelogue #2

Five days have passed in New York, and we consider it a half-success as the exhibition went well. We planned our days aggressively, dividing our time between Chelsea's famous galleries and nearby art museums, known as the Mecca of contemporary art in New York.

Starting early in the morning from our New Jersey accommodation, we took the bus to Manhattan, tackled our itinerary, and returned to New Jersey around 9 p.m. each evening. Though simple, every moment felt like an adventure to us.

The expansive city views from the terrace and the awe-inspiring contemporary art at the Whitney Museum left us in awe. After exploring until late afternoon, we grabbed a quick dinner, then headed to a Broadway theater to catch the musical "Aladdin." However, unlike my husband, I found myself dozing off throughout the show, perhaps due to exhaustion.

As the musical ended, my husband quipped, "Was this worth the price... to just fall asleep?" Our seats were near the orchestra, so despite being expensive, what could I do when my eyelids kept drooping involuntarily?

One of the most memorable places during our gallery and museum tours was undoubtedly the Guggenheim Museum. Its spiral white exterior resembled a snail, and as we slowly ascended the ramp, observing visitors from below and the dome-shaped natural light, it was fascinating. Viewing works by artists found in modern art history books made my steps light, but as we reached the fourth floor, my pace quickened.

It was because of Francis Bacon's works. Unable to contain my excitement, I grabbed my husband's arm, insisting we take photos. Seeing his uniqueness and discomfort, I felt I could somewhat understand his loneliness, anxiety, and pain through his artworks.

To witness the true skyline of New York, we couldn't miss the Top of The Rock at Rockefeller Center. The view was not just beautiful but euphoric. We could see all the places we had visited over the past few days, including the Empire State Building, and beyond, the Manhattan skyline and the Hudson River glowing red in the late hours. Watching people bustling around even at that late hour, we squeezed each other's hands, promising to age gracefully like the city below.

As much as galleries and museums, one place we were eager to visit was Times Square. It's a bustling square in Midtown Manhattan, known for its large illuminated billboards and being the site of the Ball Drop event on New Year's Eve. The presence of ads from modern car manufacturers and tech giants like Samsung and LG made me inexplicably proud. Though the night temperatures in early October were lower than in Korea, causing us to shiver, we were amazed by the diverse crowds enjoying various street performances and shows without prejudice. Sitting on the red steps in the middle of the square, we marveled at the fantastic scenes unfolding on both sides, feeling the vibrant energy of Times Square pulsating through us.

Planning and experiencing this New Y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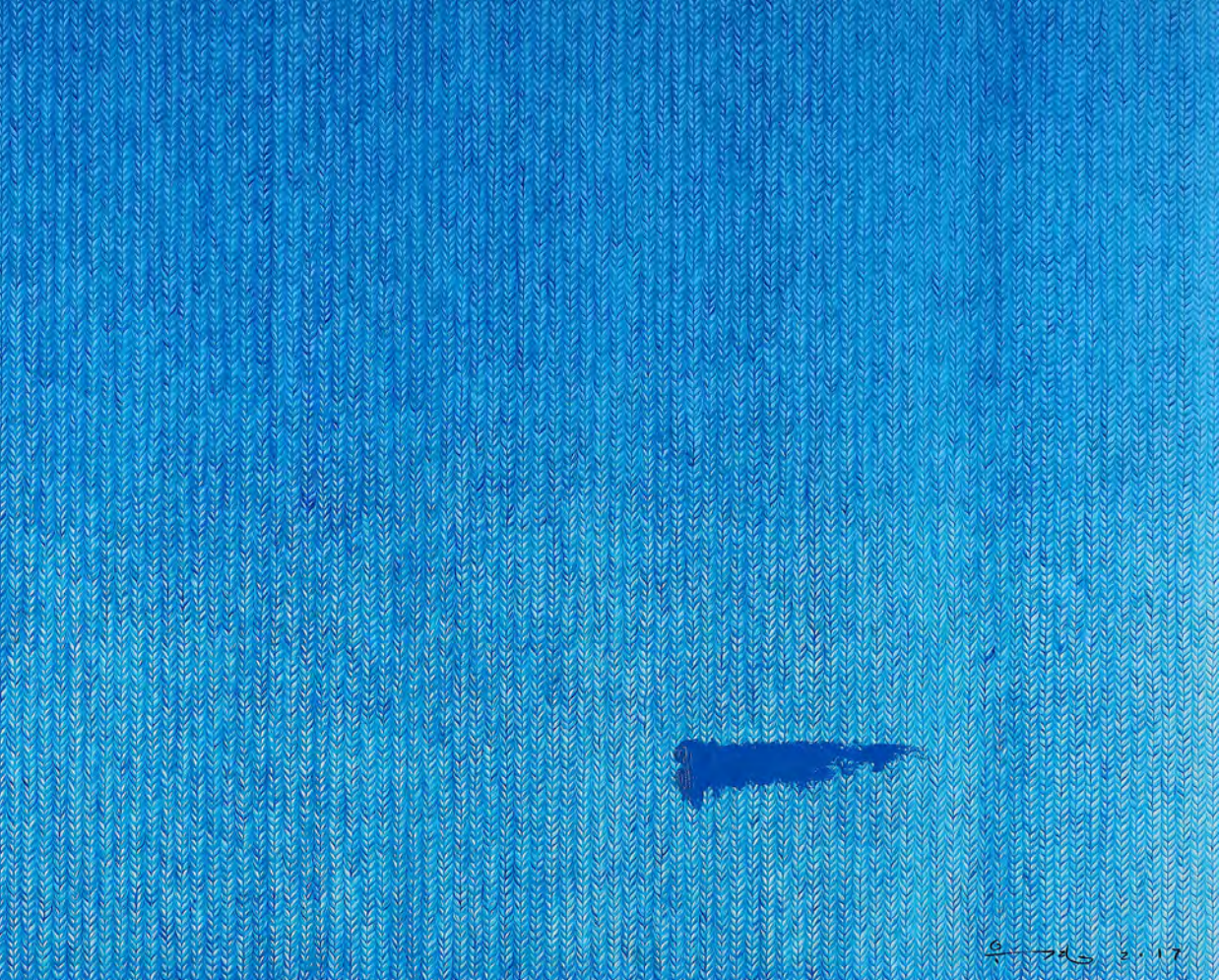


● Past, Present and... Oil on canvas | 90.9 x 65.1cm | 2017

exhibition has allowed me to reflect on myself and chart a course for the future. While I sometimes felt disheartened by the disparity between reality and ideals, the encouragement from my supportive family and friends kept me going. Despite not being financially abundant, deciding to boldly visit the United States was t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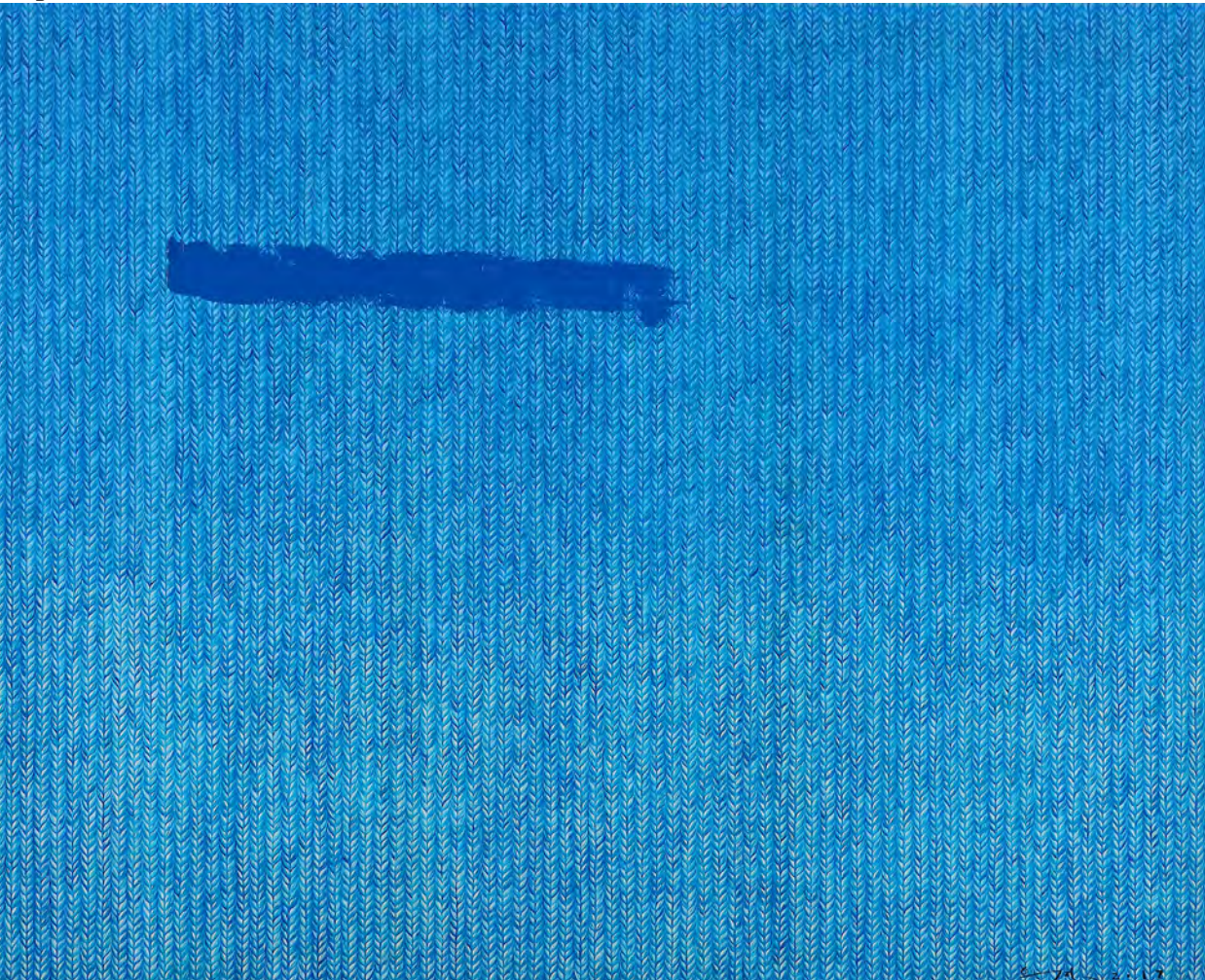
right choice, and I encourage anyone hesitant about attending foreign exhibitions to boldly take the plunge. With that, I conclude my New York travelogue.





● **Past, Present and...** Oil on canvas | 162.2 x 130.3cm | 2017

● **Past, Present and...** Oil on canvas | 162.2 x 130.3cm | 2017



● **Past, Present and...** Oil on canvas | 162.2 x 130.3cm | 2017



● **Past, Present and... (Cuteness)** Oil on canvas | 33.4 x 24.2cm | 2017





● Past, Present and... (Cuteness) Oil on canvas | 33.4 x 24.2cm | 2017



● Past, Present and... (Cuteness) Oil on canvas | 33.4 x 24.2cm | 2017



● Past, Present and... (Cuteness) Oil on canvas | 33.4 x 24.2cm | 2017



● Past, Present and... (Cuteness) Oil on canvas | 33.4 x 24.2cm | 2017



● Past, Present and... (Cuteness) Oil on canvas | 33.4 x 24.2cm | 2017





● Past, Present and... (Kor avatar)  
Mixed media on Canvas | 89.4 x 130.0cm | 2017



● Past, Present and... (Cuteness) Oil on canvas | 30.0 x 30.0cm x 6ea | 2017



2016~



● Past, Present and... (Mother Teresa) Oil on canvas | 89.4 x 130.3cm | 2016





● Past, Present and... (Mother Teresa) Oil on canvas | 89.4 x 130.3cm | 2016



● Past, Present and... (Mother Teresa) Oil on canvas | 89.4 x 130.3cm | 2016





● Past, Present and... (My President)  
Oil on canvas | 37.9 x 45.5cm | 2016

2015~



● Past, Present and...  
Oil on canvas | 45.5 x 53.0cm | 2015



## 도시 탐방(Paris)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3년간의 길고 엄격했던 여행 규제가 완화된 직후인 2022년 8월 29일, 기대와 설렘을 안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Art Fair에 참여하기 위해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고 있다.

마스크라는 심리적 저항선을 뚫고 오랜만에 말아 보는 공항 냄새와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로 가득한 터미널의 풍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10박 11일의 여정을 기대하기에 충분했다.

14시간 비행 후 입국과 동시에 놀라웠던 풍경으로는 여전히 우리에게 공포의 대상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행이 애초에 없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다. 성별과 나이에 상관없이 그 누구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버스나 지하철 대중교통 대부분에 에어컨이 없다. 프랑스 여름 평균기온이 우리나라보다 낮다고는 하지만 내가 느끼기에도 더운 날씨였음에도 승객들 모두 당연한 듯 짜증을 내거나 불편해하지 않아서 놀랐다. 호텔에 묵는 대신 전시장과 가까운 가성비 좋은 숙소를 택했던 탓으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무더운 여름날 에어컨 없이 선풍기 하나로 버텨야 한다는 사실에 잠시지만 남편을 원망도 했었다.

100년도 넘는 건물에 엘리베이터는 물론이고 에어컨도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나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

프랑스는 물론이고 유럽 전역에는 오래된 건축물의 각종 규제와 건축물 구조상 대안이 없고 특히 유럽인들이 에어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비싼 전기요금, 그보다 습도가 높지 않아 햇빛만 가리면 시원한 지정학적 요인이 제일 큰 이유다.

프랑스에 체류하는 동안 우리 부부가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공중화장실이 부족함을 넘어 아예 없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심각한 현실을 겪은 일이다.

우리나라는 화장실이 공공시설이라는 개념이 강해 국가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유럽은 그렇지 않다.

지하철역, 공원, 심지어 다중이 밀집한 백화점에도 공중화장실이 없다.

참으로 놀랍지 않은가! 어떻게 화장실이 없을 수가 있지? 프랑스의 화장실 부족 문제를 자세히는 알 수 없어도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현실적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쉽게 풀기는 어렵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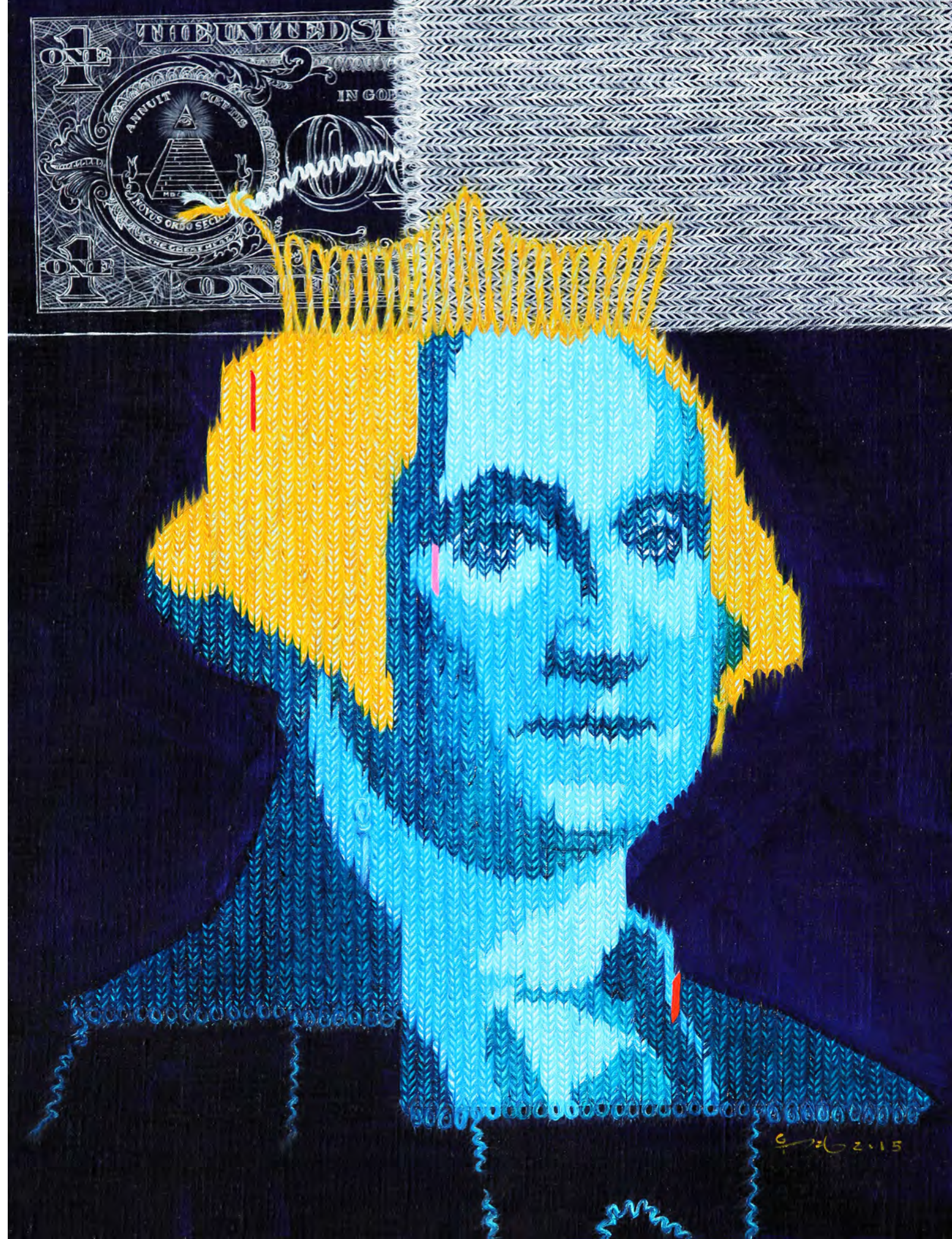
● Past, Present and...

Oil on canvas | 65.1 x 50.0cm | 2015



● Past, Present and...

Oil on canvas | 53.0 x 45.5cm | 2015



● Past, Present and... Oil on canvas | 65.1 x 50.0cm |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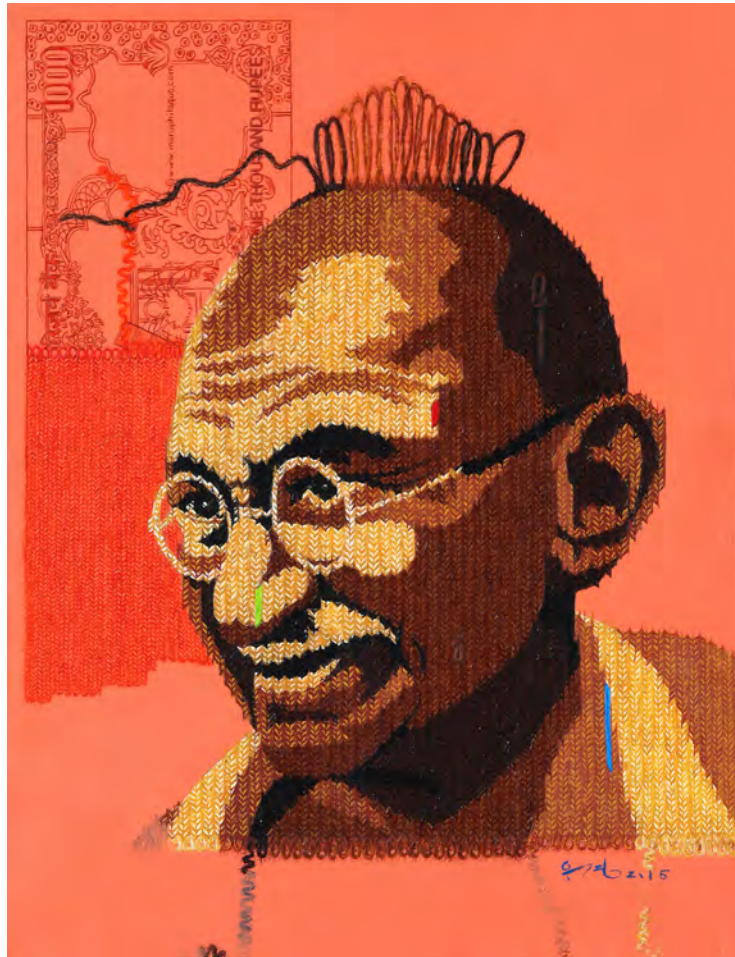




● Past, Present and... Oil on canvas | 50.0 x 65.1cm | 2015

카루젤 뒤 루브르에서 진행된 4일간의 Art Fair를 많은 관람객의 관심과 호응으로 성공리에 마치고 본격적으로 프랑스 곳곳을 누비며 도시 탐방에 나섰다.

숙소에서 걸어서 5분 거리의 오랑주리 미술관에서 원형의 벽면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모네의 작품에서 느껴지는 감동과 전시장 중앙의 긴 의자에 앉아 몸만 돌리며 이 거대한 크기와 아름다움은 나를 안아주는 듯한 착각이 들게 했고 천장에서 들어오는 햇빛과 타원형이 주는 편안함이 우리를 오래 머물게 했다. 모네는 비슷한 구도와 장소에서 그림을 그렸고 한 장면을 빛의 변화와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기 위해 다른 시간 다른 인상을 연구했다. 선명한 수련작품에서 형태가 모호한 작품을 수련 연작과 풍경에서 볼 수 있다.



● Past, Present and... Oil on canvas | 50.0 x 65.1cm | 2015

루브르 박물관에 입장 전 동선을 철저히 준비했음에도 워낙 넓어서인지 잠시 갈팡질팡하기도 했지만, 밀로의 비너스, 뱃머리 위에 올려진 니케 조각상, 다빈치의 모나리자, 베로네세의 가나의 혼인 잔치, 다비드의 나폴레옹의 대관식,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제리코의 메두사호의 뗏목, 베르메르의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등 이루 언급하기 힘들 정도로 수많은 명작과 명화를 직접 감상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해주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결혼 35년 소중한 친구 같은 사랑하는 남편께 이 기회를 빌려 감사함을 전한다.

센강에서 크루즈 타고 보는 파리의 풍경은 더 강렬하고

위대해 보였다. 오르세 미술관을 지나 나폴레옹 대관식이 있었던 역사적인 노트르담 대성당은 2019년 4월에 발생한 대형 화재로 인한 복원 작업이 한창이었다. 역사와 함께한 건축물들 사이로 높이 솟은 에펠탑, 사크레귀르 대성당, 몽뇌프 다리 등 보는 곳마다 박물관 속에 들어온 듯한 착각이 들었다.

어두운 밤 몽파르나스 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화려하게 반짝이는 에펠탑의 모습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으리...

Goodbye~ Paris!



currently undergoing restoration work due to a major fire in April 2019, amid the architectural wonders steeped in history, the towering Eiffel Tower, Sacré-Cœur Basilica, and Pont Neuf bridge gave the illusion of stepping into a museum at every turn.

The glittering sight of the Eiffel Tower from the observation deck of the Montparnasse Tower on a dark night will be etched in our memories for a long ti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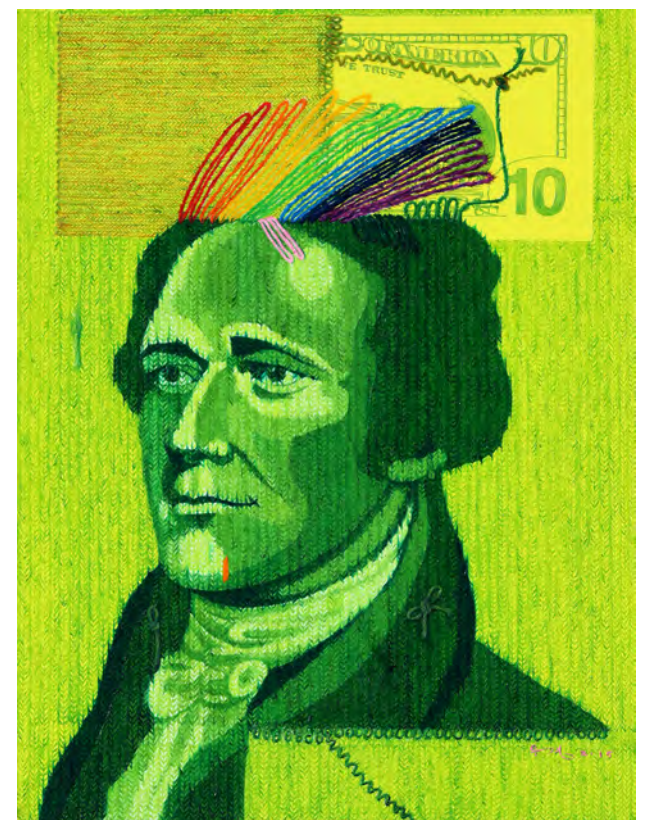
Goodbye~ Paris!

Vinci's Mona Lisa, Veronese's The Wedding at Cana, David's Coronation of Napoleon, Delacroix's Liberty Leading the People, and Vermeer's Girl with a Pearl Earring was always a cherished experience. With the unwavering support and companionship of my beloved husband, who is like a precious friend after 35 years of marriage, I extend my gratitude for this opportunity.

The view of Paris from a cruise on the Seine River seemed even more powerful and grand. Passing by the Orsay Museum and the historic Notre-Dame Cathedral,



● Past, Present and... Oil on canvas | 50.0 x 65.1cm | 2015



● Past, Present and... Oil on canvas | 50.0 x 65.1cm | 2015

## City Exploration (Paris)

It's August 29, 2022, just after the easing of travel restrictions following three long and strict years due to the spread of the COVID-19 virus. With excitement and anticipation, we await boarding the plane in Paris, France, to participate in the Art Fair.

Even breaking through the psychological resistance of wearing masks, just seeing the bustling terminal filled with the long-unfamiliar airport smell and people moving busily was enough to build anticipation for our 10-day journey.

After a 14-hour flight, upon arrival, we were still struck by the absence of what has been a constant source of fear for us: the COVID-19 virus pandemic. Regardless of gender or age, nobody was wearing masks.

Most buses and subways lack air conditioning. While the average summer temperature in France is lower than in Korea, it was still hot enough for me to be surprised by how passengers didn't seem to mind or complain, relying solely on a single fan to endure the heat.

Opting for a reasonably priced accommodation close to the exhibition venue instead of a hotel, we somewhat anticipated the lack of air conditioning. However, even knowing the reasons behind it, including the stringent regulations and structural limitations of centuries-old buildings, didn't entirely

diminish our despair upon realizing there was no elevator or air conditioning in buildings over 100 years old.

One of the most challenging aspects of our stay in France, beyond the scarcity, was the complete absence of public restrooms. Unlike in Korea, where public restroom facilities are taken for granted as a state-provided amenity, Europe does not share the same sentiment.

There are no public restrooms in subway stations, parks, or even crowded department stores. Isn't it truly astonishing? How can there be no restroom? Though we may not fully understand the reasons behind France's restroom scarcity, historical, social, cultural, and practical factors undoubtedly contribute to this complex issue.

After successfully concluding the 4-day Art Fair held behind the Louvre, amid the interest and applause of many visitors, we embarked on a comprehensive exploration of various parts of France.

Despite thorough preparation of our route before entering the Louvre Museum, its vastness occasionally left us momentarily disoriented. However, being able to directly appreciate countless masterpieces and masterpieces such as Milo's Venus, the Winged Victory of Samothrace, da





●  
Past, Present and...

Oil on canvas | 53.0 x 72.7cm | 2015



●  
Past, Present and...

Oil on canvas | 53.0 x 72.7cm | 2015





● Past, Present and...

Oil on canvas | 53.0 x 72.7cm | 2015

● Past, Present 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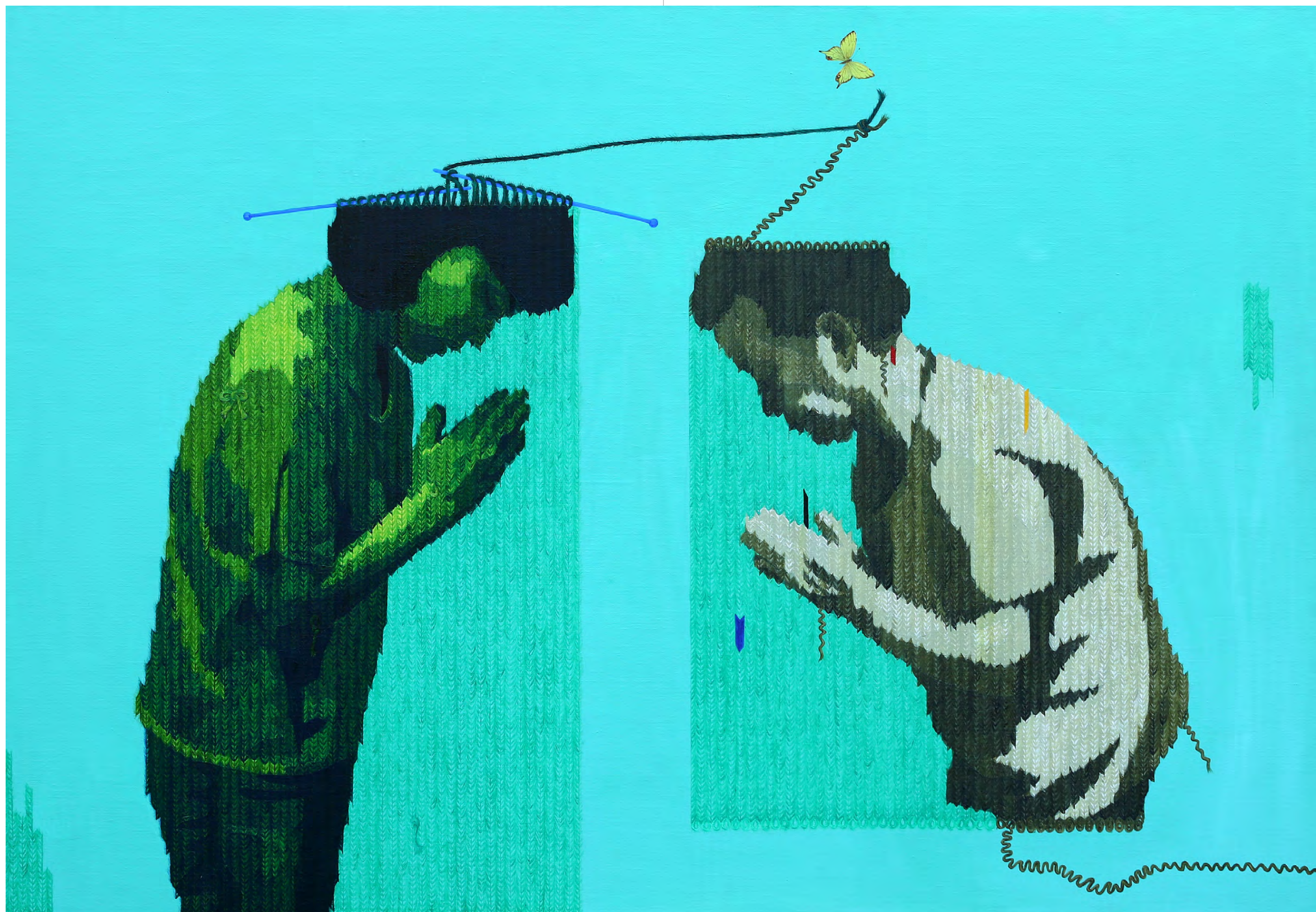
Oil on canvas | 53.0 x 72.7cm |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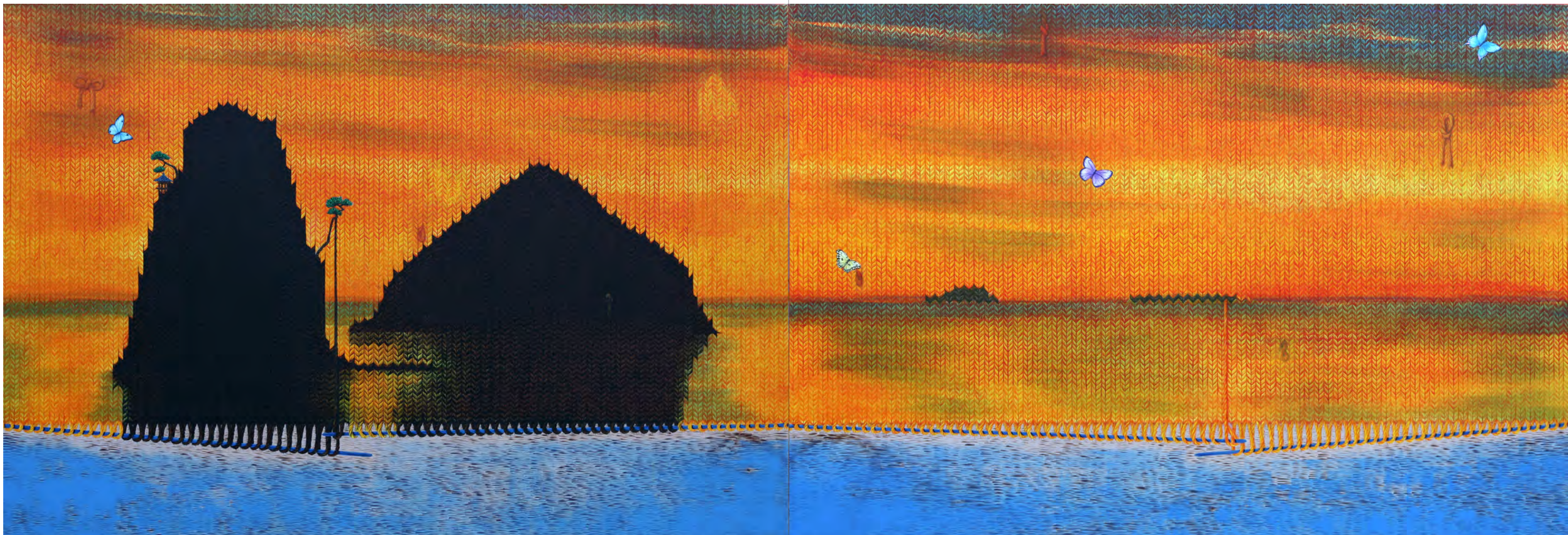


● Past, Present and... (Prayer) Oil on canvas | 65.1 x 90.9cm |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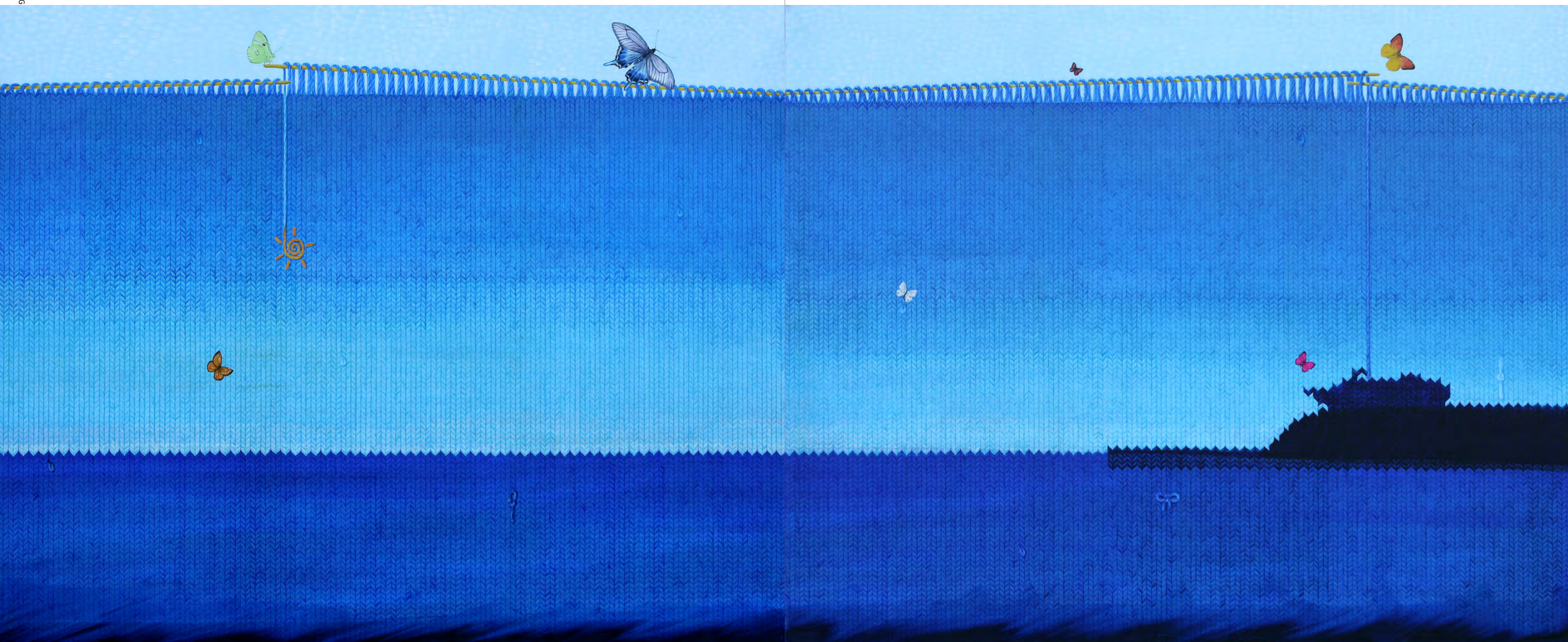




●  
**Past, Present 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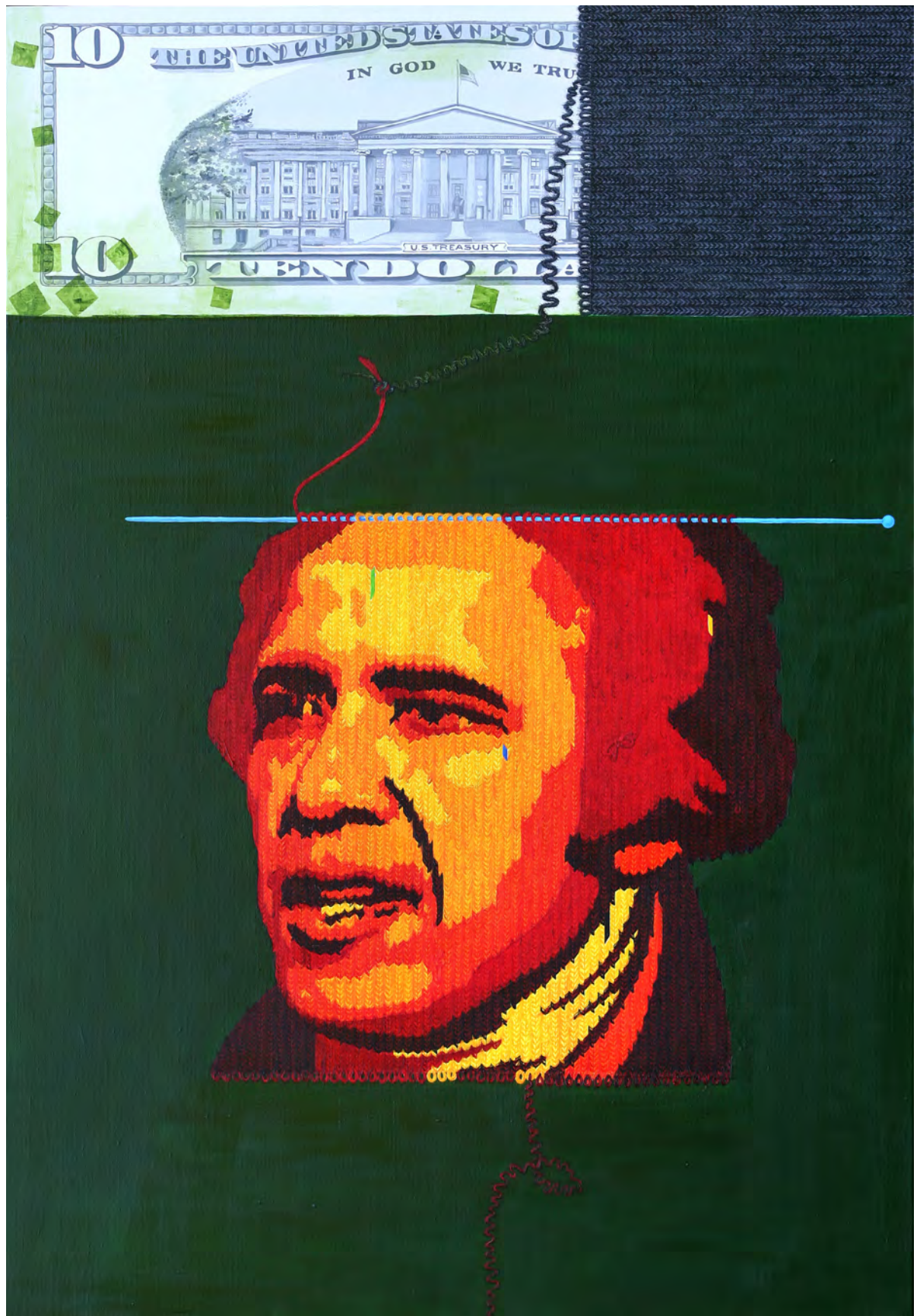
Oil on canvas  
324.4 x 112.1cm | 2014





●  
**Past, Present and...**  
 Oil on canvas  
 324.4 x 130.3cm |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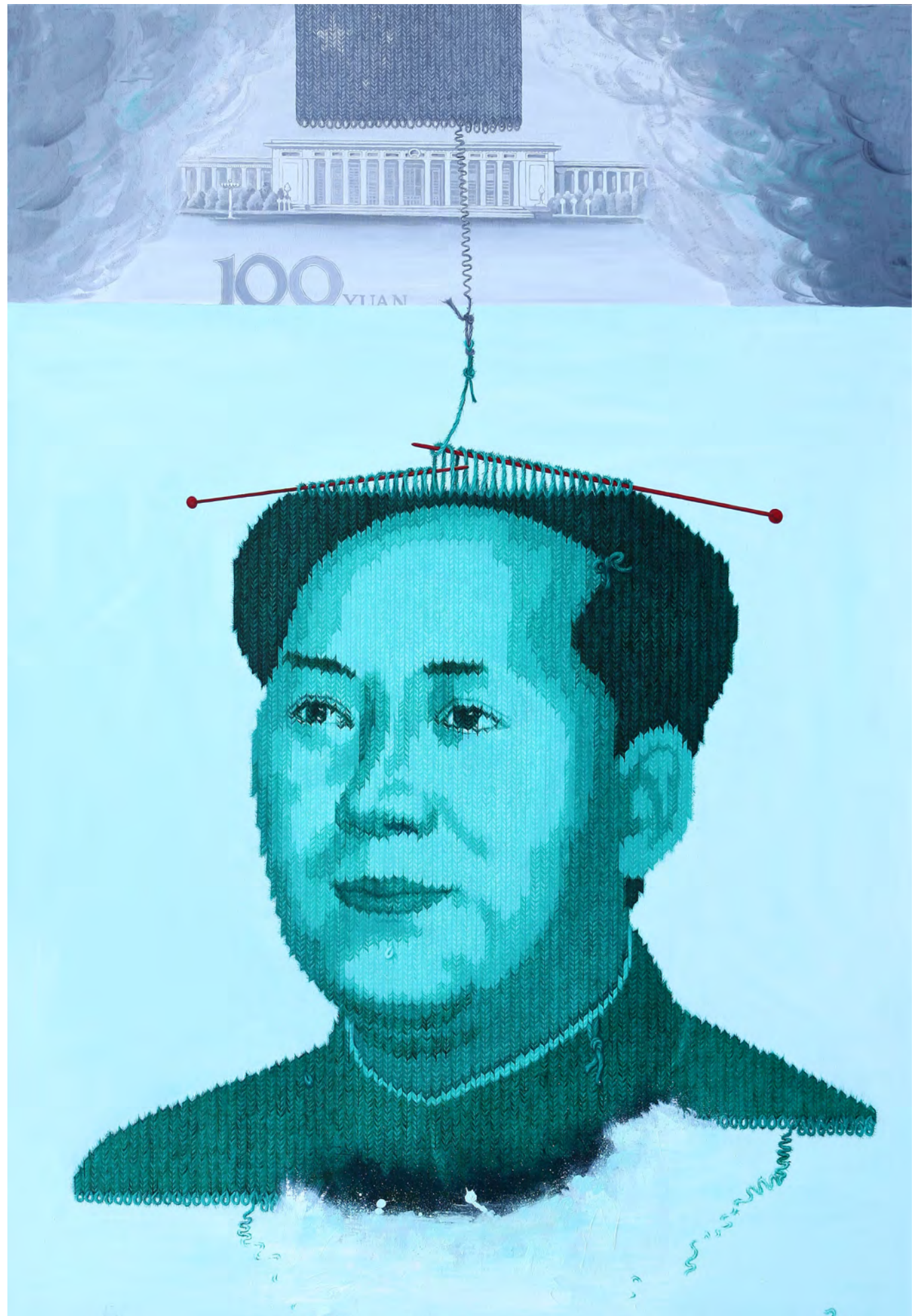




● **Past, Present and...**  
Oil on canvas  
112.1 x 162.2cm | 2014

● **Past, Present and...**  
Oil on canvas  
112.1 x 162.2cm | 2014





● Past, Present and... Oil on canvas | 112.1 x 162.2cm | 2014



● Past, Present and... Oil on canvas | 112.1 x 162.2cm | 2014





● Past, Present and... Oil on canvas | 112.1 x 162.2cm | 2014



● Past, Present and... Oil on canvas | 112.1 x 162.2cm | 2014



## 정우경- 뜨개질 그림

박영택 (경기대학교수, 미술평론가)

그림은 표면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 회화를 회화하게 하는 것은 주어진 납작한 표면이다. 그것을 평면성이라 부르든 혹은 피부라고 부르든 별 상관은 없어 보인다. 결국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주어진 표면에 대한 해석이고 그 표면을 어떤 방식으로 점유해 들어가느냐, 또는 물질이나 붓질을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느냐 하는 문제이기도 할 것이다. 물론 그림은 그것만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모더니즘회화(Modernist painting)가 평면성에 대한 강박으로 귀결되어 종내는 그저 물질, 사물 자체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상기해본다면 그림은 물질이기도 하고 표면이기도 하지만 그 표면, 물질이란 즉물적 차원에만 저당 잡히지 말고 좀 더 다양하게 해석되고 개별적으로 환생하며 여전히 미완의 영역으로 남아 그 무엇인가가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는 영역이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그림도 가능하고 화가들도 뭔가 작업할 명분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정우경의 그림은 희한하고 재미있다. 나는 실제 뜨개질로 이루어진 줄 알았지만 사실 그것은 캔버스에 물감과 붓질로 이루어진 '그림'이었다. 색상을 머금은 실이 길쭉한 대나무 바늘에 의해 촘촘히 직조되는 광경이지만 그것은 정성껏 그려놓은 붓질이다. 그 붓질, 물감은 보는 이의 눈을 속이고 실제 실인 것처럼 위장한다. 캔버스도 알고 보면 날줄과 씨줄로 직조된 화면이다. 그것은 일종의 텍스트다. 그 캔버스 천의 실을 다시 풀어서 뜨개질을 할 수도 있다. (실제 그런 작품도 존재한다) 반면 정우경은 실로 짜인 캔버스 표면 위에 다시 실을 그리고 그 실들이 직조되면서 모종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상황을 보여준다. 손은 부재하지만 바늘을 움직여 뜨개질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 무겁게 드리워진 실들이 사람의 얼굴이나 풍경을 만들어 보인다. 마치 유령이 뜨개질을 하는 듯하다. 보이지 않는 힘이 화면에 개입해 실을 늘어뜨리고 잡아당

기는 것이다. 나로서는 각 나라의 화폐를 화면 상단에 정교하게 재현한 후에 그 아래로 각 화폐에 자리하고 있는 특정 인물을 뜨개질로 묘사하고 있는 작업이 재미있고 좋았다.

정교하게 그려진 미국의 1달러 지폐 표면이 상단에 자리하고 있고 그 아래에는 단색의 화면을 배경으로 해서 워싱턴 혹은 워싱턴과 오바마 대통령의 얼굴이 합성된 상태에서 그려지거나(상단의 지폐를 유심히 보면 작은 총알구멍이 그려졌다.

이는 미국 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총기사고를 은유한다) 일본의 1만 엔권 지폐에는 후쿠자와 유키치(어두운 배경에는 희미하게 옥일승천기가 드러난다)와 아베 총리의 얼굴이, 중국의 위안화에는 당연히 모택동의 초상이 그려졌다. 한국 지폐의 경우는 1만 원권에 자리한 세종대왕(그 주변으로 한글이 꽃잎처럼 부유한다)과 5만 원 권의 신사임당(먹물이 뿜긴 흔적을 통해 그녀가 뛰어난 서화가임을 암시한다) 등이 그려졌다.

각 나라의 화폐와 그 화폐를 장식하는 특정 인물의 얼굴을 흡사 뜨개질처럼 보이는 야릇한 붓질, 기법으로 그렸다는 것도 무척 재미있었지만 각국의 화폐와 화폐를 장식하는 인물, 그 나라와 인물에 얽힌 이야기를 은연중 읽어 나가게 하는 장치가 흥미로웠다. 마치 숨은그림찾기를 하듯 화면 곳곳을 유심히 들여다보면서 작가의 풍자와 유머, 상상력을 접할 수 있다. 작가의 그림은 그렇게 두 가지 차원에서 묘미를 안긴다.

우선 붓질의 독특함이다. 이 붓질은 바탕화면에 정확한 간격을 재단한 후에 그 칸과 칸을 엇갈린 방향으로 칠해 나가면서 뜨개질한 느낌을 가시화한다. 아니, 마치 실제 뜨개질을 한 것처럼 붓질을 하나씩 올려서 완성해간다. '정성'어린 그림이고 집요한 그리기다. 한 코 한 코 떠나



●  
Past, Present and...  
Oil on canvas  
112.1 x 162.2cm | 2014





● Past, Present and... Oil on canvas | 112.1 x 162.2cm | 2014

hand, Jeong Wookyung shows a situation where threads are drawn on a canvas surface woven with threads and as those threads are woven, they create some kind of image. Although hands are absent, needles move to knit, and accordingly, the heavily draped threads create faces or landscapes. It's as if ghosts are knitting. Invisible forces intervene in the screen, stretching and pulling threads. I particularly enjoyed the work where each country's currency was meticulously

reproduced on the top of the screen, and below that, specific figures depicted on each currency were depicted through knitting.

The intricately drawn surface of the U.S. one-dollar bill is placed at the top, and below that, in the background of a monochrome screen, Washington or a synthesis of Washington and President Obama's faces are drawn (if you look closely at the top bill, small bullet holes are drawn.

가면서 두툼한 스웨터나 목도리를 짜주시던 어린 시절 엄마와 이모의 손길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이다. 전통적인 여성의 수공예 솜씨, 이른바 규방 문화적인 요소가 유화 기법과 조우하면서 하나의 풍경을 이루고 있는 게 신기해 보였다. 그것으로 인해 화면은 시각(착시를 유인해내는 화면)뿐만 아니라 일정한 볼륨을 지닌 실의 질감과 그것으로 인해 연상되는 여러 감각(촉각과 따스한 온기 등)을 풍성하게 자극하고 있다. 그림은 붓질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보여준다. 일정한 방향으로 칠해진 그 선/색은 추상적인 붓질이지만 그것들이 모여서 이미지를 안겨준다. 추상과 구상, 붓질과 이미지가 공존한다.

각국의 화폐는 단지 추상적인 기호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자국의 문화, 정치, 이데올로기 등을 방증하는 수단

이기도 하다. 그래서 주로 자국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역사적 인물이 등장한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 일본 근대화의 아버지 후쿠자와 유키치, 중국 공산혁명의 상징인 모택동 등이 그렇다. 한국 지폐의 경우는 조선시대 성리학적 가치를 지향하는 인물들로 채워져 있다. 지폐는 단지 돈의 가치가 아니라 그 나라의 삶의 가치, 문화와 이념의 가치가 들어있어야 한다. 정우경은 그 지폐를 차용해 특유의 뜨개질 기법으로 그려나가되 그 지폐가 함유하는 여러 맥락을 알레고리화해서 드러낸다. 그 전략이 소박하지만 무척 흥미롭다. 단지 독특한 기법에 머물지 않고 회화 자체를 개념적으로 다루는 한편 그림을 보고 알아가는 즐거움을 안기면서 보는 이의 시선과 마음을 은연중 흡입해 내는 묘미가 있다.

## Jeong Wookyung - Knitting Paintings

By Park Youngtae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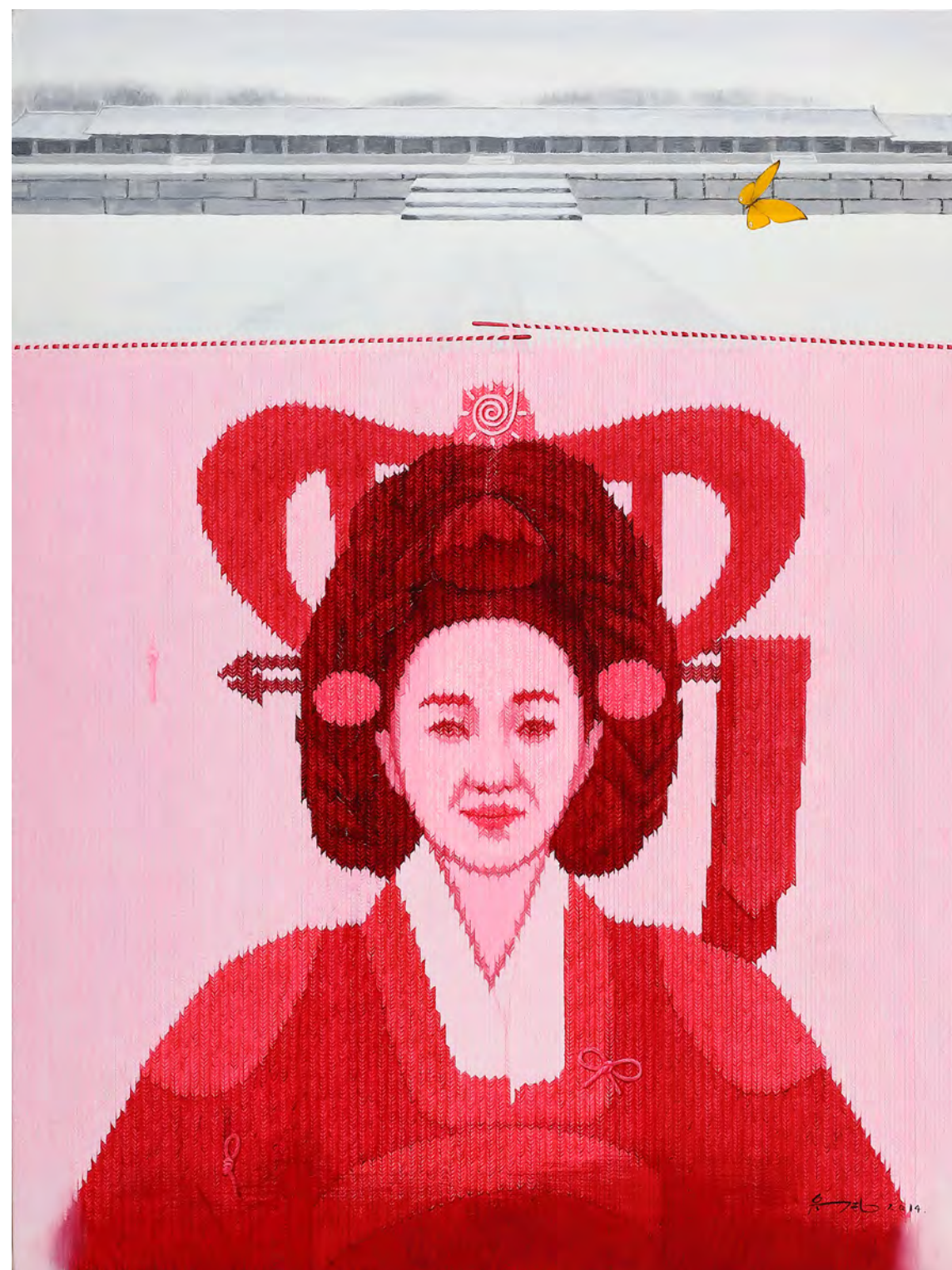
(Professor at Kyonggi University, Art Critic)

Painting occurs on the surface. So, what makes a painting a painting is the given flat surface. Whether we call it flatness or skin, it doesn't seem to matter much. Ultimately, painting is an interpretation of the given surface, and how one occupies that surface, or how one presents paint and brushwork, is also a matter of concern. Of course, painting is not satisfied with just that. Remembering how Modernist painting ended up being obsessed with flatness, where materiality and objects themselves could only become mere matter, we can see that a painting is not just material or surface; rather, it should be interpreted more diversely and individually, continually reinterpreted, remaining in the realm of the unfinished, where something lively can

unfold. Only then can painting be possible, and artists have a reason to work, don't you think?

Jeong Wookyung's paintings are strange and amusing. I thought they were actually made of knitting, but in fact, they were "paintings" made of paint and brushwork on canvas. It's a scene where threads soaked in colors are densely woven by long bamboo needles, but it's painstakingly drawn brushwork. That brushwork and paint deceive the viewer's eyes, disguising themselves as actual threads. The canvas, when examined closely, is a screen woven with warp and weft threads. It's a kind of text. The canvas cloth's threads can be unraveled again to knit. (There are actually works like that.) On the other





●  
**Past, Present and...**  
 Oil on canvas  
 89.4 x 130.3cm | 2014

This is a metaphor for the frequent gun incidents in American society). On Japan's 10,000 yen note, the faces of Fukuzawa Yukichi (the rising sun flag is faintly visible in the dark background) and Prime Minister Abe are depicted, and naturally, the portrait of Mao Zedong is depicted on the Chinese yuan. In the case of Korean currency, King Sejong on the 10,000 won bill (Korean characters float around him like flower petals) and Shin Saimdang on the 50,000 won bill (indicating her excellence as a calligrapher through traces of spilled ink) are depicted. Each country's currency and the faces of specific figures decorating that currency were drawn with a peculiar brushstroke technique, making them look like knitting, which was very interesting, but what was even more interesting was the device that subtly revealed the stories intertwined with each country's currency and the figures on them, almost like playing a game of hidden pictures, allowing one to encounter the artist's satire, humor, and imagination. The artist's paintings provide charm in these two dimensions.

Firstly, it's the uniqueness of the brushwork. This brushwork visualizes the feeling of knitting by cutting precise intervals on the background screen and painting in alternating directions. No, it completes the knitting by layering the brushstrokes one by one, just like actual knitting. It's a "meticulous" painting, a meticulous drawing. It reminds one of the touch of the hands of mothers and aunts who knitted thick sweaters or scarves, one stitch at a time, in childhood. Traditional female handicraft skills, the so-called Gubang cultural elements, intertwine with oil painting techniques, creating a single landscape. As a result, the screen stimulates not only visual

(enticing optical illusions) but also a rich variety of sensations (such as touch and warmth) through the texture of the thread. The painting meticulously displays each brushstroke. Although the lines/colors painted in a certain direction are abstract brushstrokes, together, they create images. Abstraction and representation, brushwork and image coexist.

Each country's currency doesn't just remain as an abstract symbol. It's also a means of signifying the country's culture, politics, ideology, and so on. So, historical figures symbolizing the country's identity usually appear. Queen Elizabeth of England, the first President Washington of the United States, the father of Japanese modernization Fukuzawa Yukichi, and the symbol of the Chinese Communist Revolution Mao Zedong are examples. In the case of Korean currency, it's filled with figures who advocate Confucian values from the Joseon Dynasty. Currency should contain not only the value of money but also the value of the country's life, culture, and ideology. Jeong Wookyung uses that currency, depicting it with his unique knitting technique, but he also allegorizes the various contexts contained in that currency. Although his strategy is simple, it's very interesting. Not only does it remain in the unique technique, but it also conceptually handles the painting itself, while providing the pleasure of looking at and understanding the painting, subtly drawing in the viewer's gaze and mi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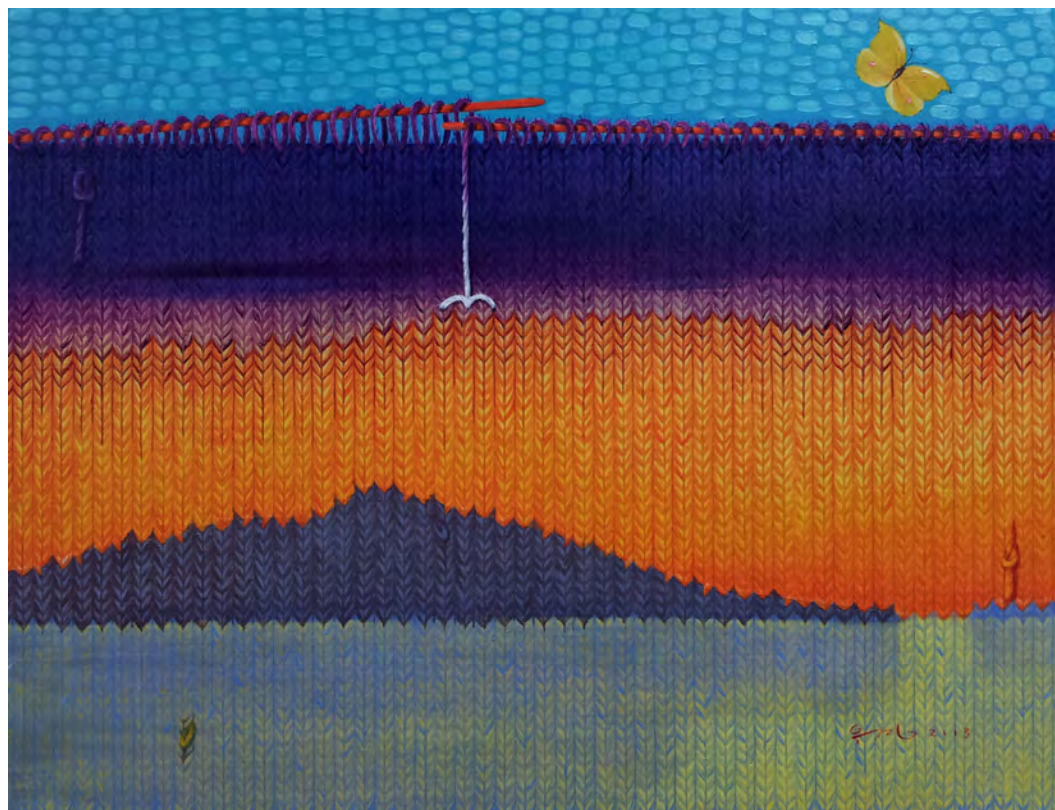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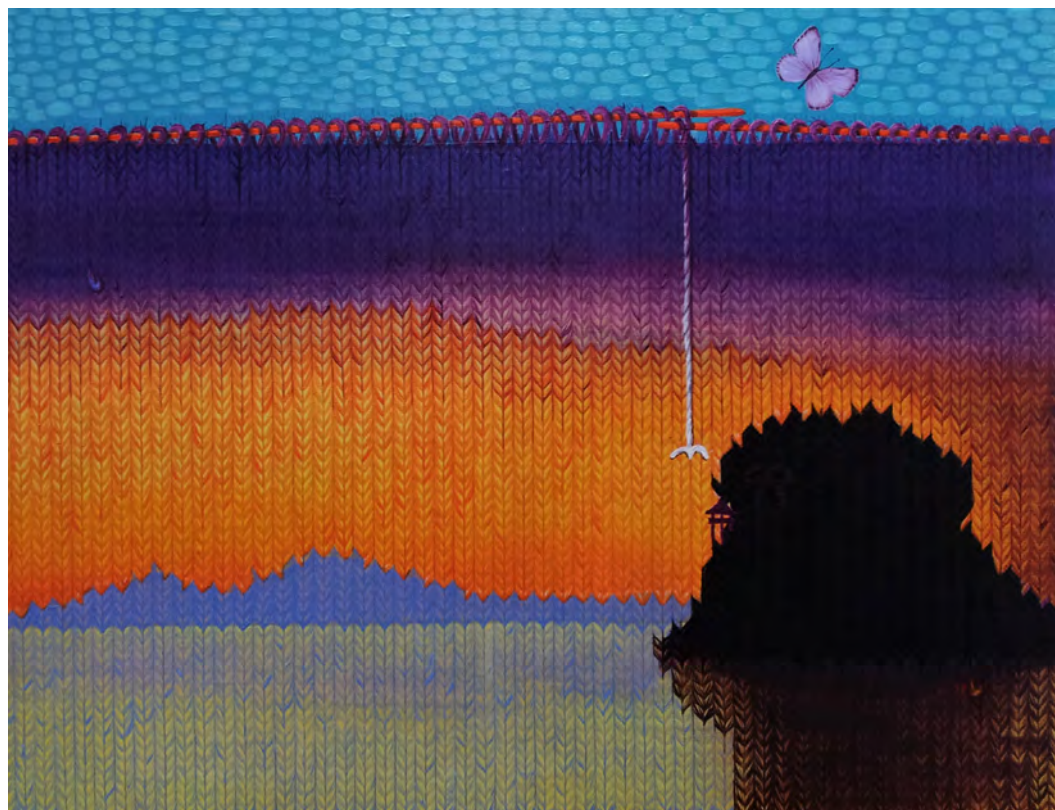
●  
**Past, Present and...**  
 Oil on canvas  
 112.1 x 162.2cm |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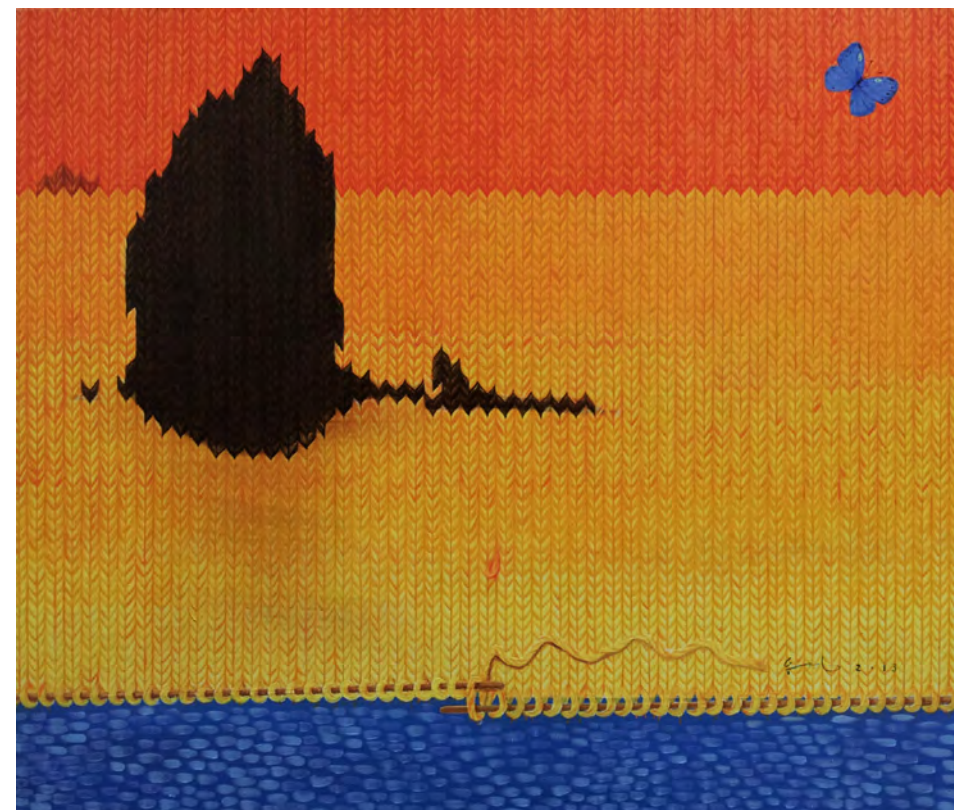
#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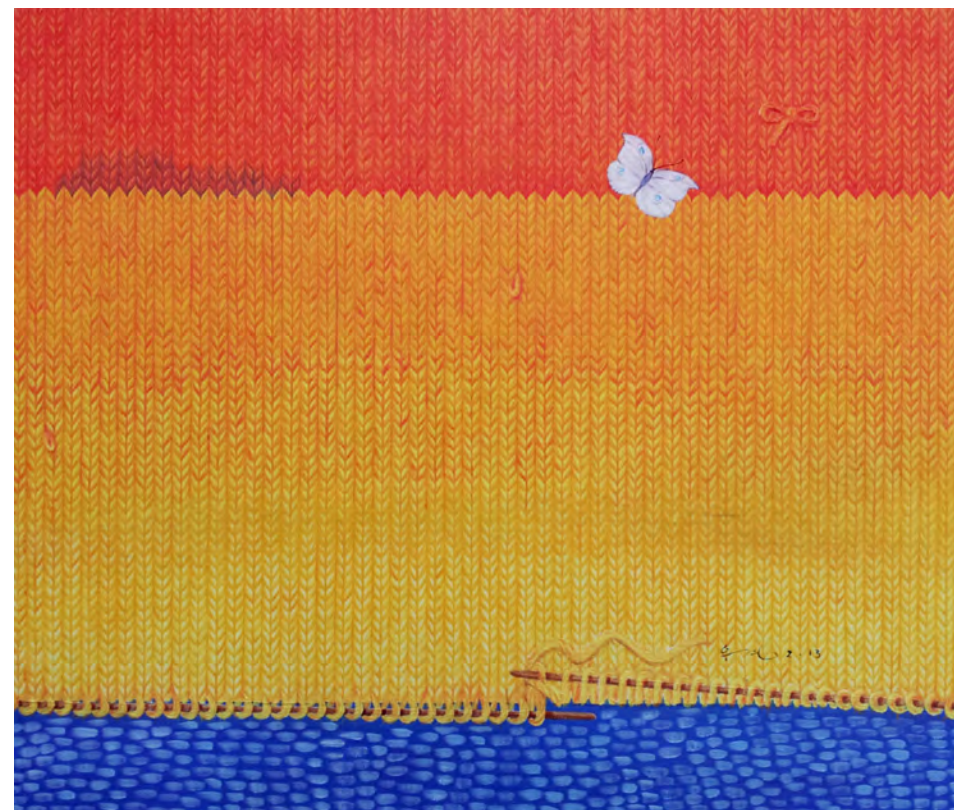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 53.0 x 40.9cm | 2013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 53.0 x 40.9cm |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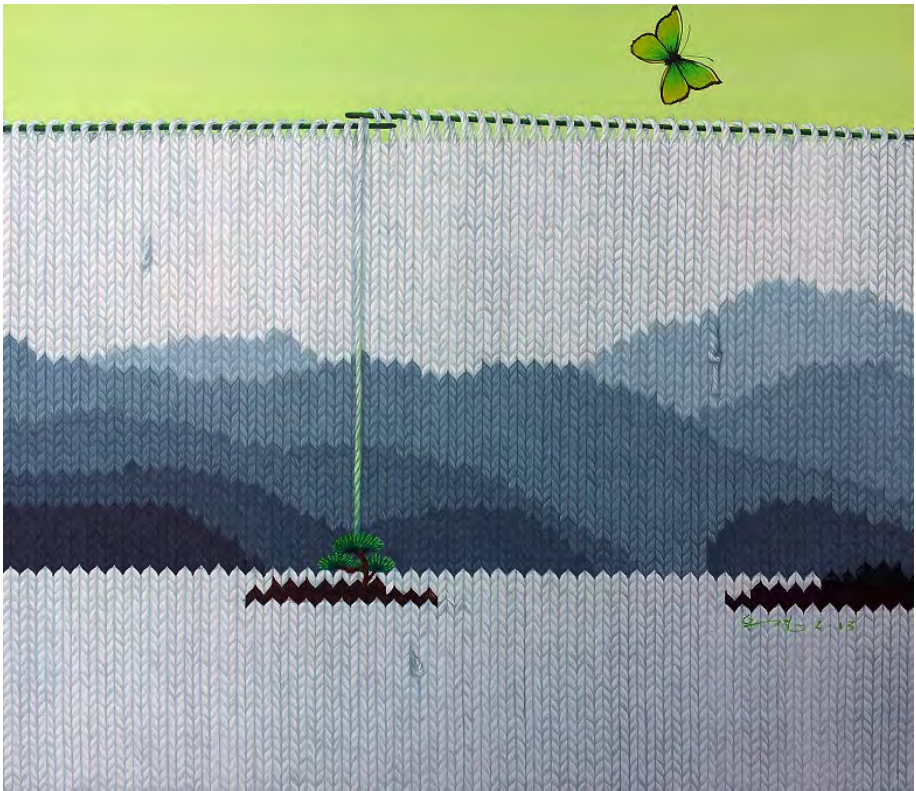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 53.0 x 45.5cm |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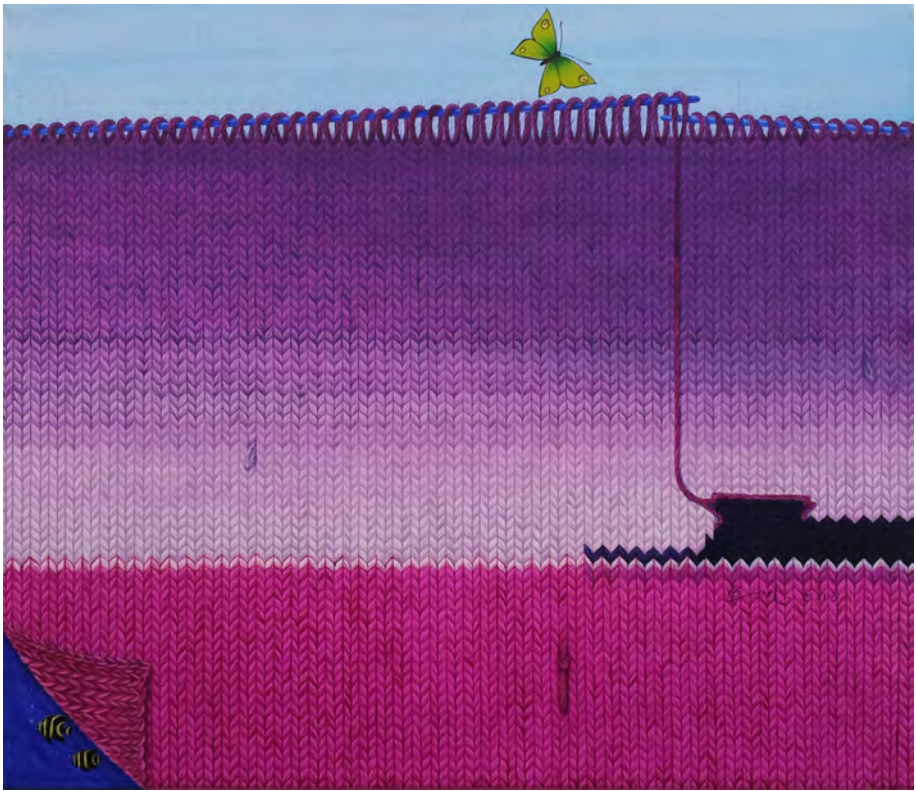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 53.0 x 45.5cm | 2013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 53.0 x 45.5cm |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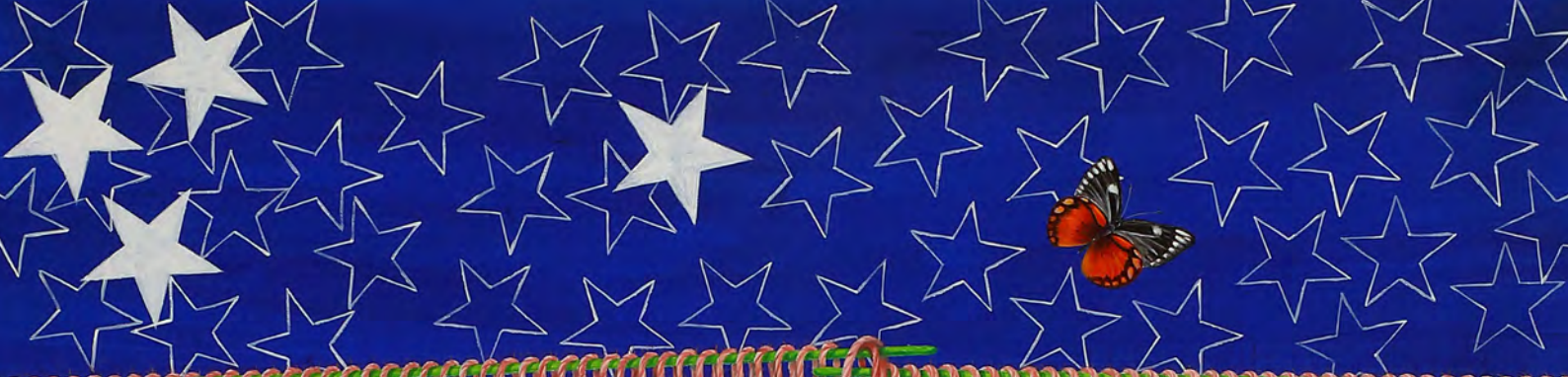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 53.0 x 45.5cm |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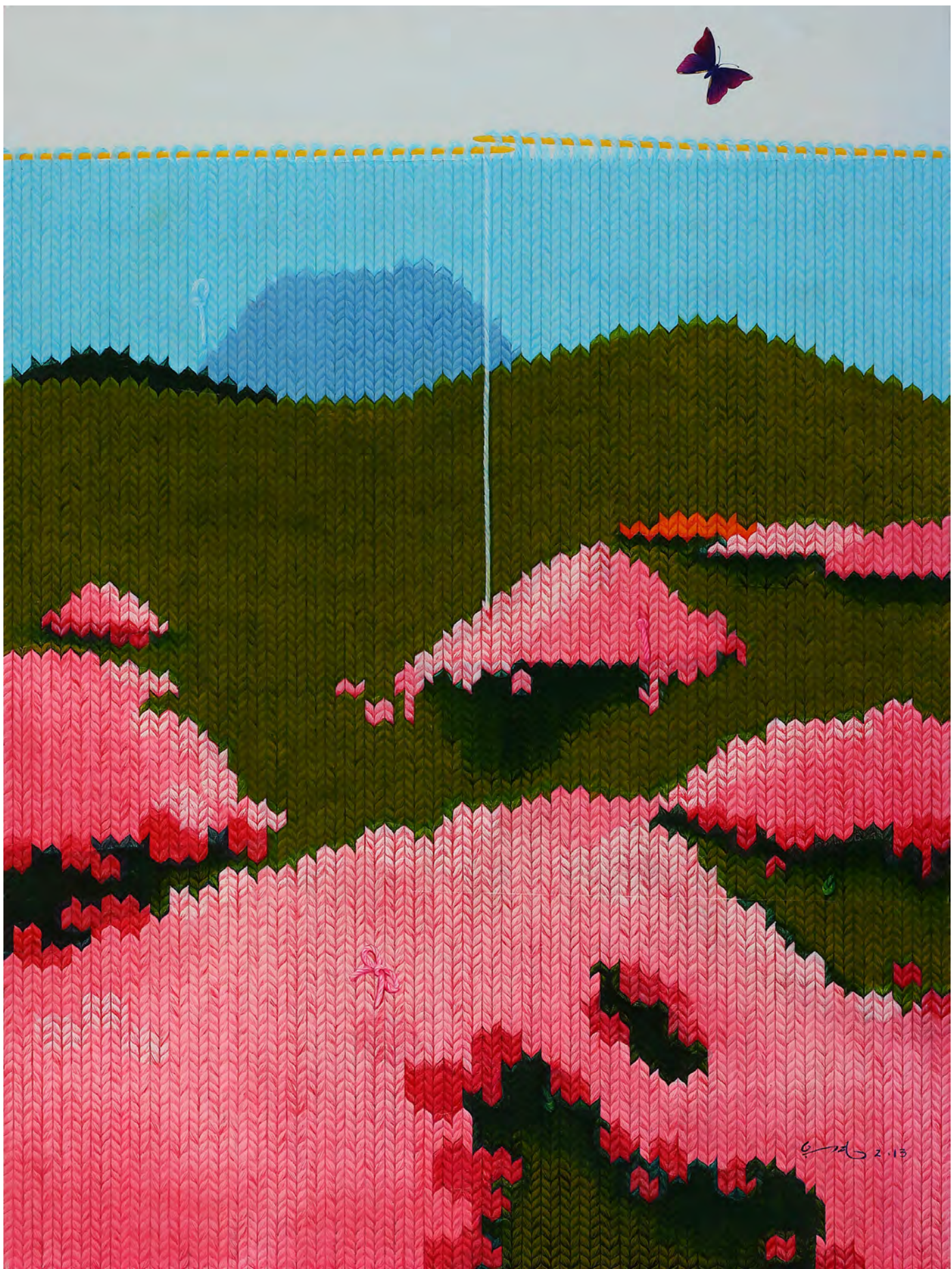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 53.0 x 45.5cm |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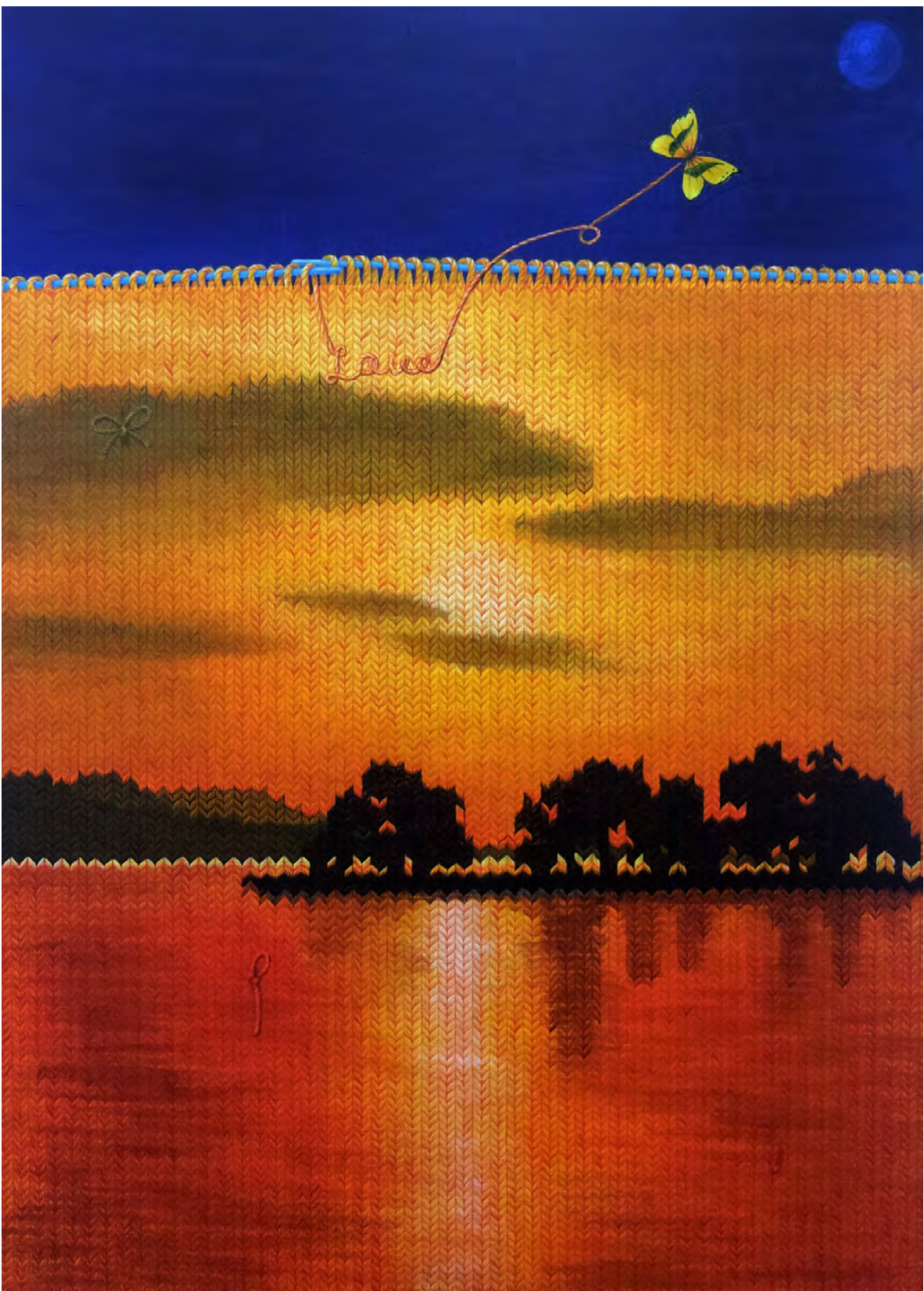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65.1 x 90.9cm | 2013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65.1 x 90.9cm | 2013



2012~



## Drawing with crochet style.

"Crochet is love." I'm working with the idea that love is the fundamental energy that moves the world.

I see art as living, as life itself. Past, Present and...

Living means being intertwined with countless moments and relationships, where the forces of love, big and small, move within those interconnections.

Delving into that force, one arrives at the conclusion that humans and nature are one. Living means within its intensity, creation and destruction intertwine endlessly, showing novelty every day.

I grew up under my grandmother's care from a young age. My mother, being busy working in the house and market as the wife of a market vendor, couldn't leave my elderly grandmother alone in the countryside. I hardly have any memories of living with my parents among my four siblings. Perhaps that's why? I remember asking my mother, gazing at the round moon in fifth grade, "Mom, why am I the only one living with grandma?"

To that question, my mother didn't respond and simply stared at the moonlit sky, seeming

to sigh silently. Since that day, I never dared to be petulant with my mother.

Time passed, and I entered university, studying art systematically to pursue my dreams, but I got married right after graduation. As a mother of two, I gradually realized the love I wanted to fill. Despite not living with my parents, I learned that they expressed love in various ways. Among them, what stands out the most is my mother's handmade crochet, sending capes, trumpet pants, and more with red and green threads. She would unravel them a bit when they became small and knit them again with care.

Being busy with work and household chores, it must have taken immense effort and love for my mother to knit for her eldest daughter who lived apart while raising four siblings. Becoming a parent myself, I could feel that position and the amount of love it required.

I started conceptualizing works, maximizing the energy of the love I received, and began drawing in a crochet style. I continue to study diligently and devote myself to artistic activities.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 72.7 x 60.6cm | 2012

## 뜨개 화풍으로 그린다.

"뜨개는 사랑이다." 사랑은 세상을 굴러가게 하는 근원적 에너지라는 이야기로 작업하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술은 살아가는 것, 즉 삶 자체로 보았다. Past, Present and... (과거 현재 그리고...)살아간다는 것은 수많은 시간과 서로 간의 관계가 엮인다는 것이며 그 엮임 속에는 크고 작은 사랑의 기운이 움직인다고 생각한다.

그 기운을 쫓아 들어가 보면 인간도 자연도 하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살아간다는 것은 그 내면의 치열함 속에 생성과 소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매일 새로움을 보여준다고 보았다. 나는 어린 나이에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어머니는 종갓집 장손 며느리로 집과 시장에서 바쁘게 일하느라 시골집에 연로하신 할머니 혼자 지내시게 할 수 없어서 그랬던 것으로 기억한다. 4남매 중 유일하게 부모님과 함께 살아본 기억이 거의 없다. 그래서일까? 초등학교 5학년 때 둥근 달을 보며 어머니께 '엄마 왜 나만 할머니랑 살아?' 라며 물어본 기억이 있다. 그 물음에 어머니는 아무런 대답 없이 밤하늘의 달무리만 응시하셨고 소리 없이 우시는 듯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어머니께 어떤 투

정도 하지 못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대학교에 입학해 하고 싶은 그림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며 꿈을 키웠지만,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결혼했다.

무언가 채우고 싶은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두 아이의 엄마가 돼서 조금씩 알게 되었다.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았어도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이란 걸 표현해 주셨다는 것을 알았고 그중에서 제일 생각나는 것은 빨강과 초록 실로 망토, 나팔바지 등을 손수 뜨개질로 떠서 보내주시고 작아지면 조금 풀어 다시 뜨개질해주시곤 했던 엄마의 정성과 사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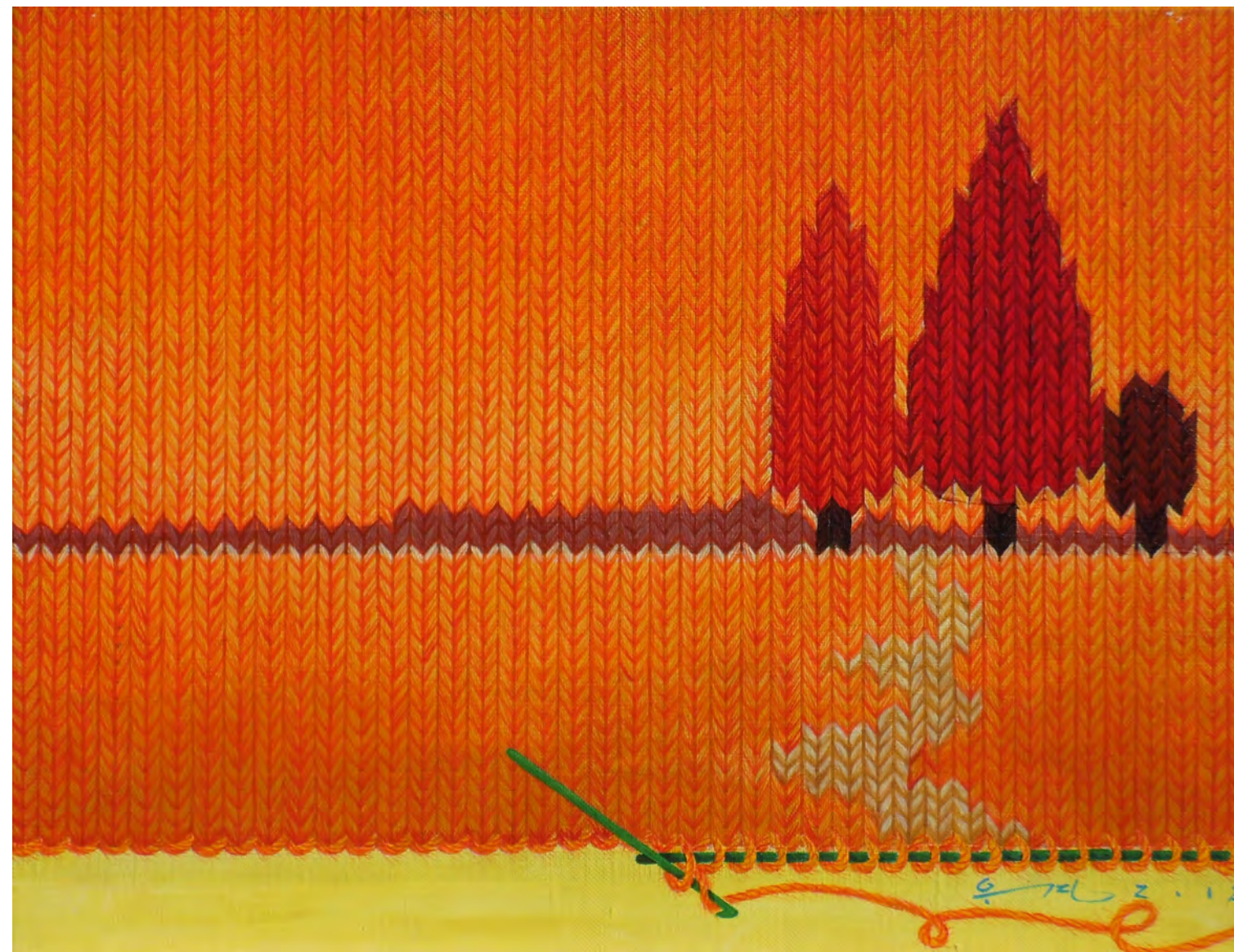
일과 살림살이로 바쁜 와중에 4남매 키우면서 떨어져 사는 큰딸에게 손수 뜨개질을 해주셨다는 게 여간 정성이 아니면 할 수 없었겠다는 생각이 부모가 되고 그 자리가 돼서 느낄 수 있었다.

내가 받은 그 사랑의 에너지를 극대화해 작품으로 구상하고 뜨개 화풍으로 그리기 시작했고 지금도 꾸준히 연구하며 작품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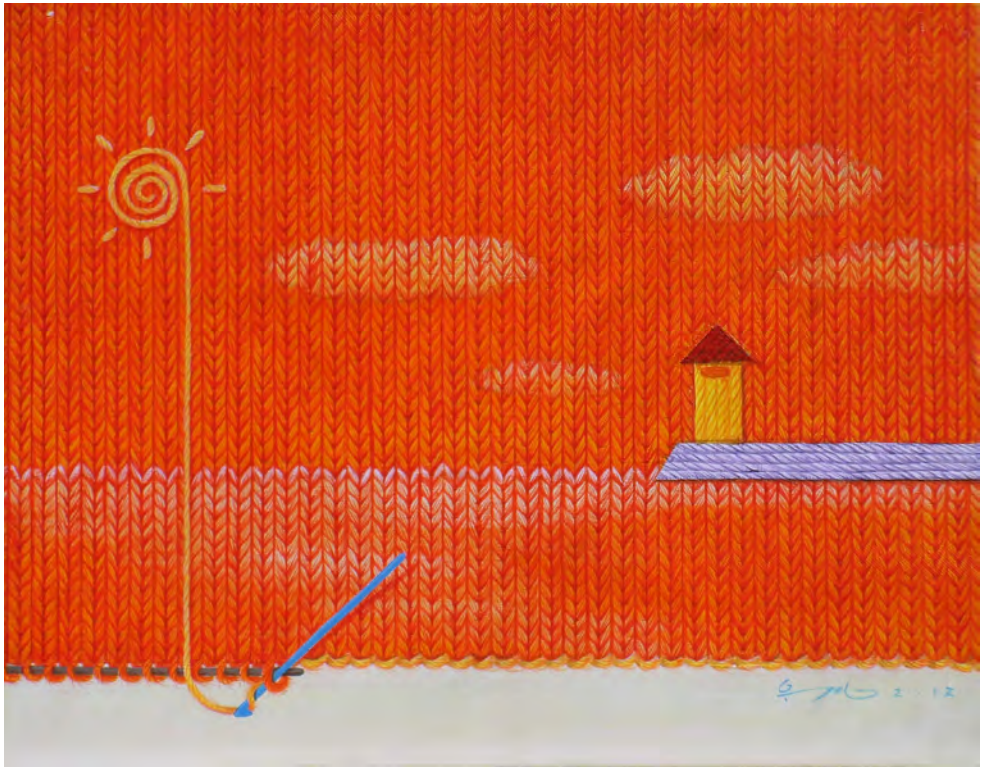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 40.9 x 31.8cm | 2012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 40.9 x 31.8cm | 2012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 40.9 x 31.8cm |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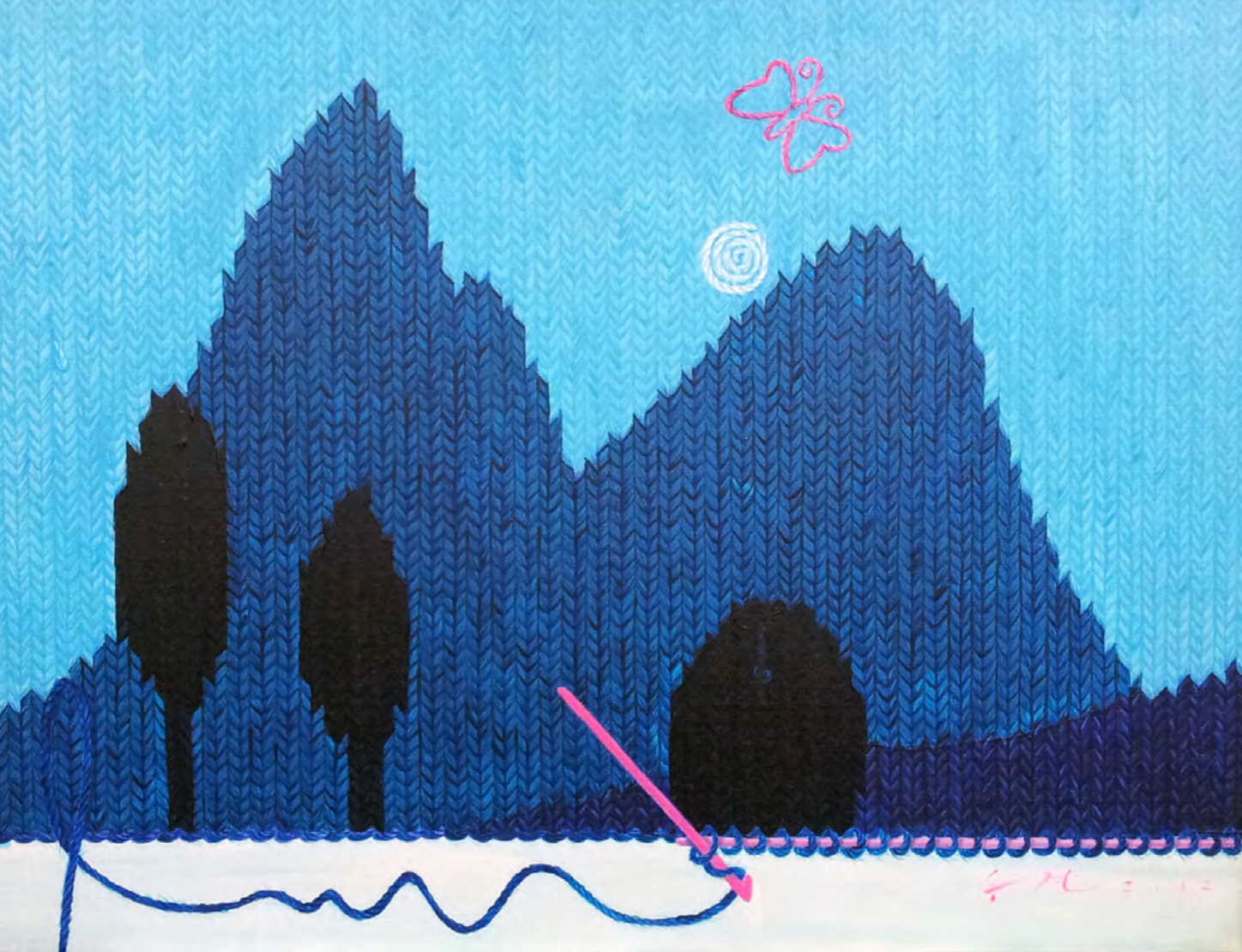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 53.0 x 40.9cm | 2012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 53.0 x 40.9cm | 2012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 53.0 x 40.9cm | 2012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 53.0 x 40.9cm | 2012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 53.0 x 40.9cm | 2012

●  
Past, Present 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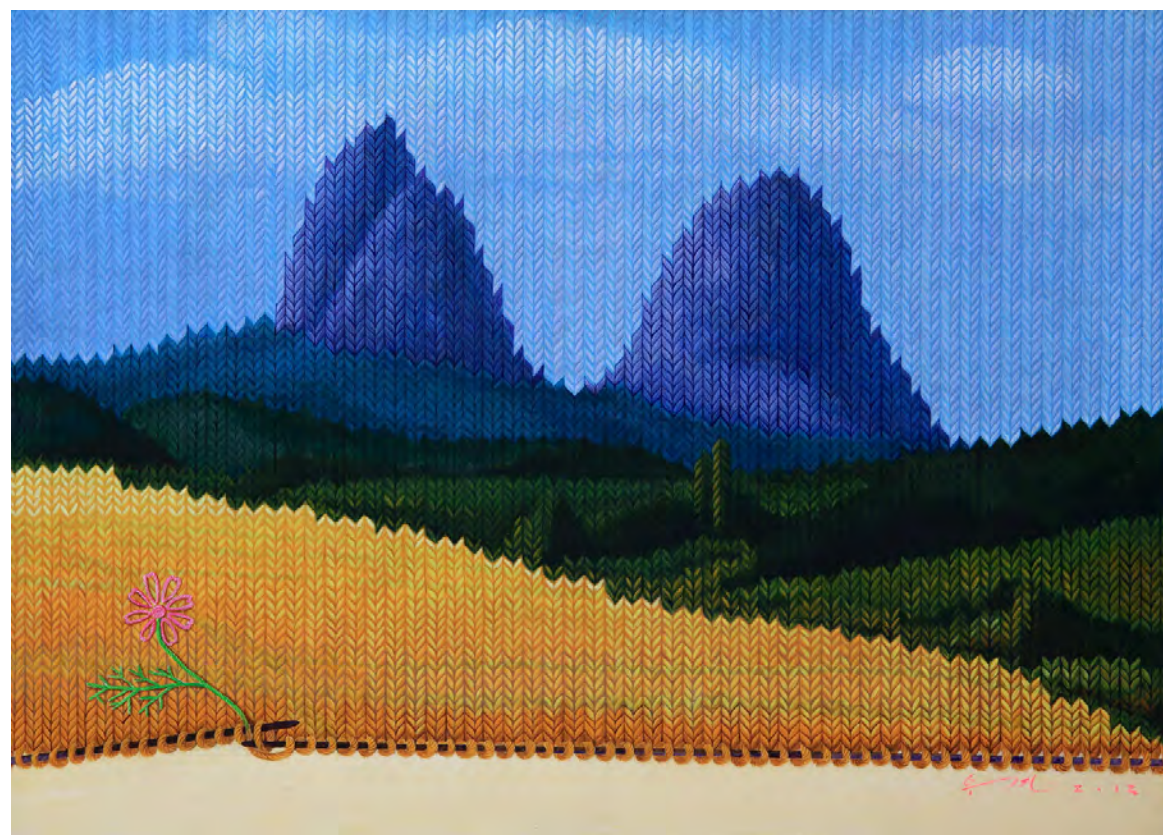
Acrylic on canvas | 53.0 x 40.9cm | 2012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 53.0 x 40.9cm | 2012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 90.9 x 65.1cm | 2012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 53.0 x 40.9cm | 2012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 53.0 x 40.9cm | 2012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116.8 x 80.3cm |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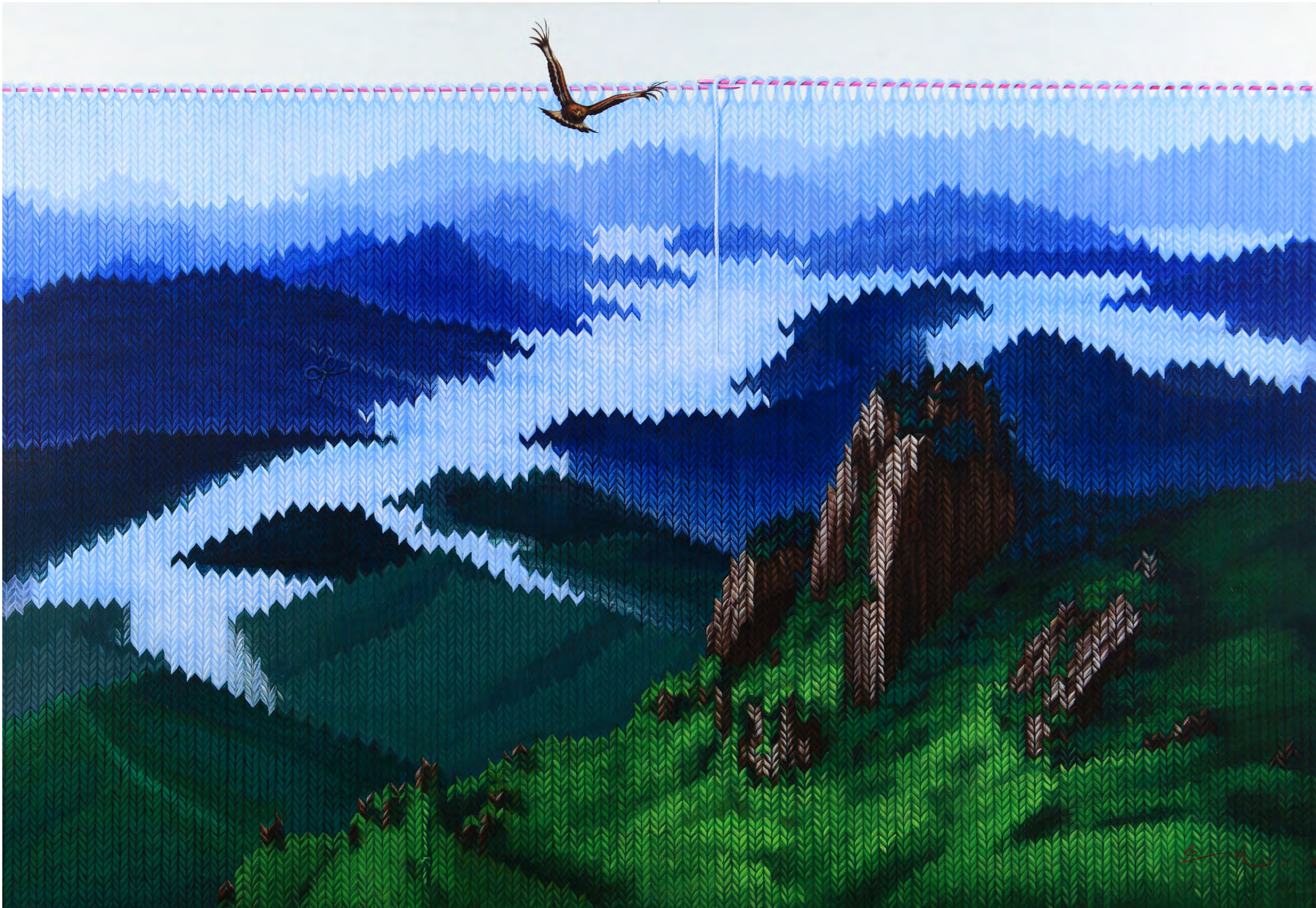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116.8 x 80.3cm |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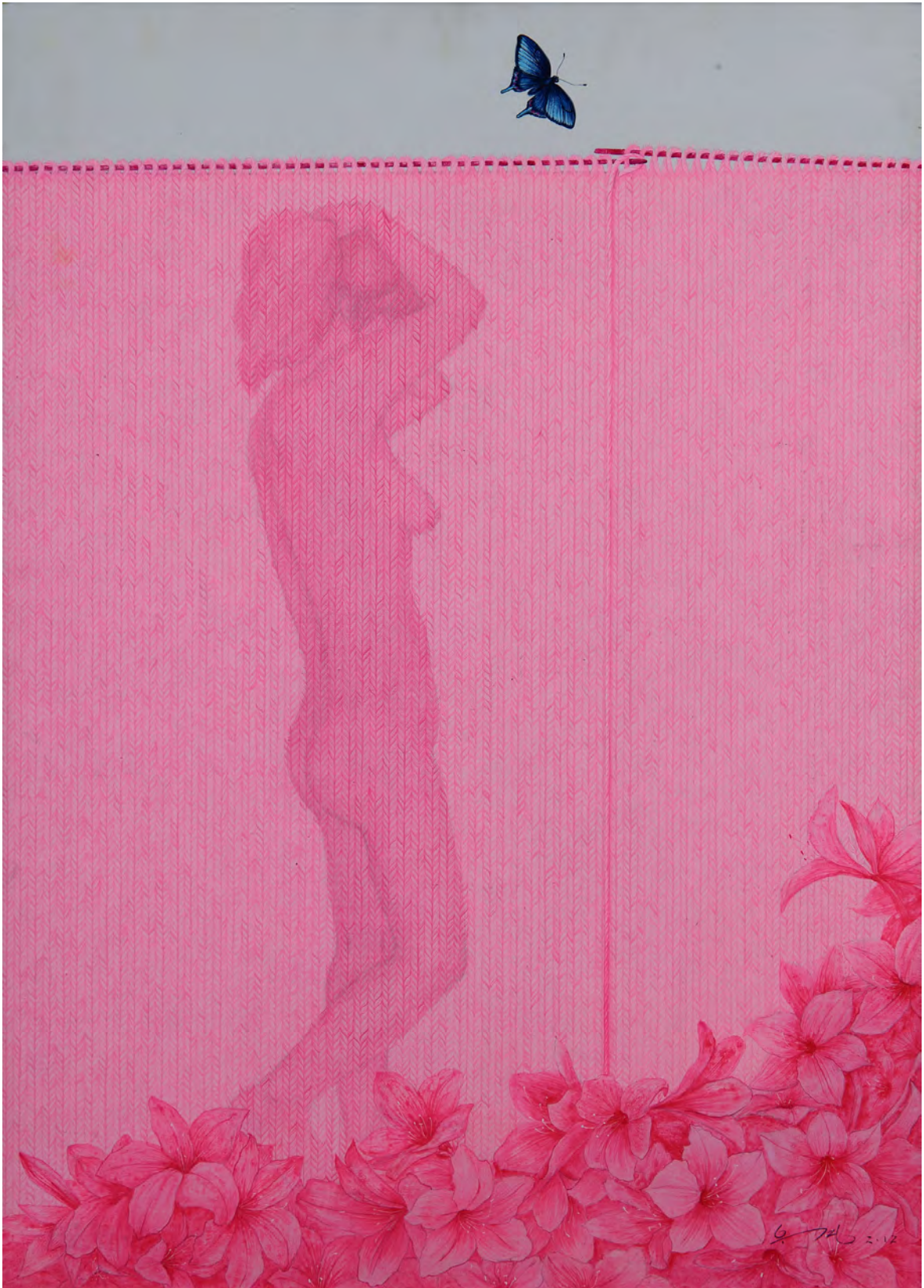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 162.2 x 112.1cm | 2012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65.1 x 90.9cm | 2012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80.3 x 116.8cm | 2012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53.0 x 45.5cm | 2012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 53.0 x 40.9cm | 2012

할 수 있고 독특한 공간에서 작품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서 좋다고 관람객들은 말하고 있다. 지역 곳곳에서 최고의 경관을 자랑하는 카페(사람이 모이는 곳) 갤러리는 개성 넘치는 소품들과 유명 작가의 작품 또는 우리 동네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되고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현대인들에게 쉽게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다.

잘 정돈된 크고 웅장한 도서관 같은 미술관은 좋은 기획과 공간이 주는 에너지를 보고 느끼려고 가는 곳이고 서점 같은 갤러리에서는 상업적으로 작가에게 공간을 빌려주거나 기획전시회로 특정 작가의 작품을 보러 가는 곳이기 때문에 갤러리는 주로 미술관계자들이 더 많이 찾는 곳이다.

카페 테이블에서 한 가족이 퍼즐 맞추기도 하고 종이접기도 하며 손가락 인형으로 역할 놀이와 함께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은 어릴 적 안방 아랫목에 앉아 아빠와 놀던 때를 생각나게 한다. 예술작품을 전시해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가 오롯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된다는 점은 카페갤러리만의 차별성이자 전문 전시 공간이 가지지 못하는 장점이기도 하다.

반면에 카페갤러리가 극복해야 할 시야 확보, 정숙성, 공간의 활용성과 예술작품 크기의 제한성은 다양하고 폭넓은 작품을 선택하고 전시하지 못하는 한계임은 분명하다. 그러함에도 굵이굵이 이어지는 길 따라 찾아가는 재미도 있고 경치 좋은 곳에서 자연을 마주하며 멍때리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고 차 마시며 여유롭게 작품을 감상하고 이야기꽃을 피우는 휴식처이자 사랑방이 되고 있다.

또한 작가들에게는 예술작품을 홍보하는 기회가 되고 미술관이나 전문 갤러리에서는 음식물 반입이 금지되지만 좋아하는 차를 마시며 자유롭게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이 제일 큰 장점이다.

예술작품을 조금 더 편하고 가깝게 만날 수 있고 인증사진도 남길 수 있는 복합문화예술공간이 눈에 띄게 늘고 있어서 주말이면 찾아가갈 곳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해시태그 이벤트로 사진을 찍어서 올려 인증하면 커피 한잔이 무료이니 손님도 좋고 작가에게는 전시 홍보가 되어 좋다. 공간인테리어 효과는 덤으로 제공하고 분위기를 더 편안하게 만들어 커피의 맛과 향을 올려주는 것은 아닐까?

## 카페갤러리

카페갤러리는 작가와 관람객 모두에게 접근성이 좋은 대안 공간 중 하나이다. 유명한 작품을 보려면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미술관이나 박물관엘 가고 특정 예술가의 작품을 관람하거나 구매에 목적이 있다면 갤러리 전시회나 아트페어를 찾아간다. 그런데 커피나 차를 마시면서 덤으로 예술작품까지 감상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 아니겠는가! 하지만, 전문적인 전시 공간이 주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카페갤러리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하다.

1980년대 중반 고등학교 재학시절의 미술 선생님은 갤러리가 없던 시골의 다방에서 개인전을 하셨다. 그 시절만 해도 다방은 가난한 예술가들의 아지트이자 정보교류의 공간이며 젊은이들을 위한 일종의 탈출구와 같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처럼 다방에서 시작된 카페갤러리의 역사는 어림잡아 60년도 넘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 현대미술의 역사와 함께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요즘은 유명한 카페가 아니라도 동네의 흔한 카페 어디를 가더라도 예술작품을 감상할 곳이 많아졌다. 갤러리보다 문턱이 낮은 카페에서의 전시회를 통해서 대중 속으로 작가가 찾아가는 미술관으로 자리를 잡은 듯하다. 특히 코로나19로 단절됐던 문화예술공간이 생활의 안정과 더불어 집과 가까운 곳에서 더 여유롭게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을 살려 활성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도 해본다.

경치 좋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에 작품이 전시되고 그곳을 찾은 손님은 자연스럽게 작품을 감상하는 관객이 되는 문화로 자리 잡아 일상과 예술의 경계가 없는 곳, 대중과 소통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 53.0 x 40.9cm |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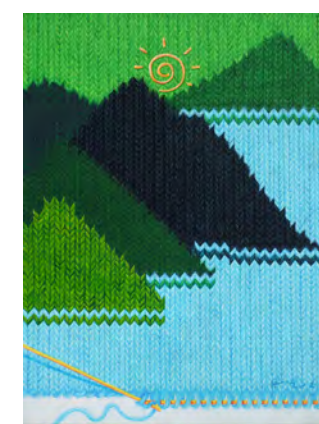
A family sitting at a cafe table, solving puzzles, folding paper, and playing role-playing games with finger puppets, spending happy times together, reminds me of playing with my father in the warm room during my childhood. Not only does a cafe gallery provide a place to view art, but it also becomes a space where all family members can comfortably relax, which is a unique distinction of cafe galleries that professional exhibition spaces lack.

On the other hand, cafe galleries face limitations such as securing a proper view, maintaining quietness, utilizing space efficiently, and restrictions on the size of artworks, which prevent them from selecting and exhibiting a wide variety of works.

Despite this, it is enjoyable to visit these galleries along winding paths, face nature in beautiful surroundings, and leisurely appreciate art while having a conversation over

tea. They serve as places for rest and social gatherings. Additionally, for artists, it provides an opportunity to promote their works. Unlike museums or professional galleries where food and drinks are prohibited, the biggest advantage of cafe galleries is the ability to freely enjoy art while drinking your favorite tea.

As complex cultural art spaces where you can comfortably and closely encounter art and take commemorative photos are noticeably increasing, there are more and more places to visit on weekends. Posting a photo for a hashtag event and getting a free cup of coffee is a win for both visitors and artists, as it promotes the exhibition. The interior design effect is an added bonus, potentially enhancing the taste and aroma of the coffee.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40.9 x 53.0cm | 2012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53.0 x 45.5cm | 2012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33.4 x 45.5cm | 2012

## A cafe gallery

A cafe gallery is an alternative space that is accessible to both artists and visitors. To see famous works of art, one must invest time and money to visit museums or art galleries, and if one aims to view or purchase works by specific artists, one must attend gallery exhibitions or art fairs. However, wouldn't it be ideal if one could enjoy art while sipping coffee or tea?

Nevertheless, it cannot be denied that cafe galleries lack many of the advantages that professional exhibition spaces offer.

In the mid-1980s, my high school art teacher held a solo exhibition at a tea house in the countryside where there were no galleries. Back then, tea houses were havens for struggling artists, spaces for information exchange, and a kind of escape for young people.

The history of cafe galleries, which started from tea houses, spans over 60 years, intertwining with the history of contemporary art in our country. Nowadays, even if it's not a famous cafe, you can find many places in ordinary neighborhood cafes where art is displayed. It seems that through exhibitions in more accessible cafes th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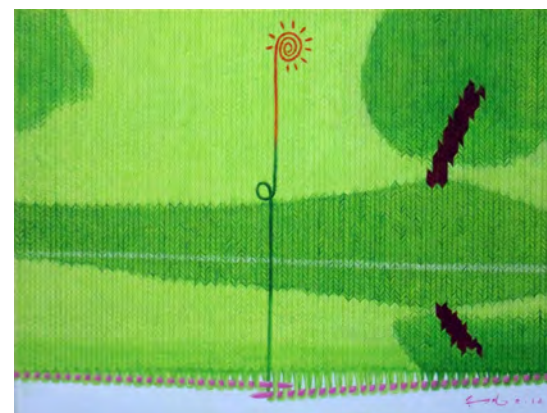
galleries, artists are bringing art closer to the public. Especially with the stabilization of daily life post-COVID-19, the activation of cultural and artistic spaces that can be enjoyed more leisurely near home is analyzed to be a contributing factor. It has become a culture where artworks are displayed in scenic and comfortable spaces, and visitors naturally become spectators. People say it's great to be able to view artworks up close in unique spaces where they can communicate with the public and blur the boundaries between daily life and art.

Cafe galleries, boasting the best views in various regions, exhibit unique items and works by famous artists or local artists, providing a space where modern people who love taking photos can easily access art.

Large, grand museums, well-organized like libraries, are places to feel the energy given by good planning and space. In contrast, galleries, like bookstores, commercially rent space to artists or hold planned exhibitions of specific artists' works, thus galleries are often visited more by those in the art world.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53.0 x 40.9cm | 2012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53.0 x 40.9cm | 2012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53.0 x 40.9cm | 2012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53.0 x 40.9cm | 2012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72.7 x 60.6cm | 2012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53.0 x 45.5cm | 2012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53.0 x 45.5cm | 2012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90.9 x 72.7cm | 2012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 116.8 x 80.3cm | 2012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 53.0 x 40.9cm | 2011

지금도 생생한 기억으로 남는 것은 긴 겨울밤 졸음을 이겨 내며 빨강과 초록의 화려한 실들로 망토, 나팔바지, 모자 등을 손수 뜨개질로 떠서 입혀주시고 작아지면 풀어서 다시 떠서 입혀주셨던 엄마의 사랑이다.

생전의 엄마께서는 "늘 감사하며 순리대로 살거라 그러면 모든 것이 잘 풀리고 감사할 일들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겨 지금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품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나는 세상을 움직이는 본질적인 힘으로서 사랑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작품 주제를 탐구하고 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 모든 생명체는 태양 에너지로부터 생명을 얻고 각각의 방식으로 다시 그 에너지를 발산한다. 이런 반복되는 순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숨쉬고 살아있음을 느낀다.

에너지는 모든 생명체의 원동력이며 상호 연결된 관계를 통해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고 유지된다. 나는 이 에너지를 어머니 자궁의 양육 환경과 유사한 긍정적이고 무한한 사랑으로 해석한다.

이런 사랑의 에너지를 예술로 승화하고 재해석해 작품으로 구상하고 캔버스에 뜨개 화풍으로 작업하고 있다. [과거 현재 그리고...]라는 주제로 여러 해 동안 작업을 이어가던 중 프리드리히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대지에 충실하라'란 글을 읽게 되었고 끊임없이 창조적으로 산다는 것, 창조의 에너지 원동력은 긍정적

인 사랑임을 알게 되었다.

대지는 내면적인 근본 에너지의 세계라는 생각으로 첫 번째 대지 작품을 준비하고 캔버스에 물감으로 색을 입히고 덧칠하고 또 마르고 덧칠하기를 수없이 반복하는 과정에서 한 올 한 올 세필로 작업하고 마무리하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도 길게 느껴지지 않았다. 붓을 잡을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가짐으로 몰입했기에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붓을 놓았을 때 말로는 형용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감동과 감사함이 온몸으로 전해지는 전율을 느꼈다. 또한 시간과 정성 없이는 좋은 작품도 없다는 어찌면 당연하지만, 그 당연함을 쉽게 간과하고 넘기기 쉬운 인생의 참된 진리도 깨닫게 되었다. 어찌면 이것은 순례길을 걷는 순례자의 과정으로 표현한다면 과장된 표현일까?

이렇게 대지 시리즈가 시작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꽃이 진다고 슬퍼하지 말아라, 꽃이 진 자리에 열매가 맺더라'라는 말도 있듯 이런 생성의 원리와 순환을 통한 다양한 관계와 경험이 역사가 되고 인생이 된다.

때로는 술술 풀리기도 때로는 엉키고 꼬이면서 한곳에 머물지 않고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내 작품을 통해 마음의 치유를 얻길 바라며 습관처럼 익숙한 곳에서부터 내 놀이 방식으로 늘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즐거운 상상으로 행복한 고민에 빠진다.

- 정우경 -  
- Jeong wookyoung -

# 2011~

## "뜨개는 사랑이다."

엄마가 직접 뜨개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던 기억을 모티브(motive)로 화가 정우경의 뜨개 화풍이 시작되었다.

1967년 4남매 중 둘째로 태어난 나는 인삼의 고장 충청남도 금산에서 어려서부터 할머니와 함께 지내며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냈다. 어머니는 종갓집 장손 며느리로 동분서주 바쁘게 일하느라 연로하신 할머니를 혼자 지내시게 할 수 없어서 그랬던 것으로 기억한다. 할머니와 말동무도 하고 잔심부름과 집안일도 거들며 부모님과 떨어져 살았다.

그래서였을까? 초등학교 5학년 추석 때 엄마와 마루에 앉아 둥근 달을 같이 보며 "엄마 왜 나만 할머니랑 살아요?"라며 물어본 기억이 있다.

그 물음에 엄마는 아무런 대답 없이 밤하늘의 달무리만 응시하셨다. 소리 없이 우시는 듯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어머니께 어떤 투정도 하지 못했고 그렇게 철들었다. 엄마는 함께 살지 않았어도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이란 걸 표현해 주셨다.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 53.0 x 45.5cm | 2011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 116.8 x 91.0cm | 2011





● Past, Present and... Acrylic on canvas | 90.9 x 72.7cm | 2011

## "Knitting is Love."

Motivated by memories of my mother personally knitting clothes for me, artist Jeong Woo-Kyung's knitting style began.

Born as the second of four siblings in 1967, I spent my childhood and adolescence in Geumsan, Chungcheongnam-do, the home of ginseng, living with my grandmother. My mother, being a busy daughter-in-law in a distant village, couldn't leave my elderly grandmother alone, so I lived with my grandmother, sharing chores and errands while being separated from my parents.

Perhaps because of this, I vividly remember asking my mother during the fifth grade on a Chuseok (Korean harvest festival) evening, as we sat on the porch gazing at the round moon, "Mom, why do I live only with Grandma?"

In response to that question, my mother remained

silent, staring only at the moonlight in the night sky. She seemed to be sighing silently. Since that day, I couldn't express any complaints to my mother and grew up that way.

Even though my mother and I didn't live together, she expressed her love in various ways. A lasting memory is the warmth of my mother's love, knitting capes, trumpet pants, and hats with vibrant red and green yarns. She would knit them by hand and unravel them when they got small, then knit them again to dress me.

My late mother always said, "Live gratefully according to the principles, and everything will work out well, bringing reasons to be thankful." These words are engraved in my heart, and even now, I dedicate myself to artistic activities with a constant sense of gratitude.

I explore the theme of love as the essential force

that moves the world in my artwork. Although unseen, all living beings in the world derive life from solar energy and radiate that energy back in various ways. Through this repeating cycle, we feel alive as we breathe.

Energy serves as the driving force for all living beings, and through interconnected relationships, new life is conceived and sustained. I interpret this source of energy as positive, boundless love, similar to the nurturing environment of a mother's womb.

I transform and reinterpret this energy of love into art, working on canvases with a knitting style.

While working on the theme of "Past, Present, and..." for several years, I came across Friedrich Nietzsche's "Thus Spoke Zarathustra," where I read the phrase "remain faithful to the earth." I learned that the essence of living creatively is the positive love that constantly creates.

Considering the earth as the world of inner fundamental energy, I prepared my first earth-themed artwork. The process involved applying and layering paint on canvas, repeating the process of drying and adding layers. I worked with a brush for three years, immersing myself in gratitude each time I held the brush. The completion of the artwork brought an overwhelming sense of gratitude and emotion.

I also realized that without time and dedication, there can be no great artwork. Perhaps this is an obvious truth, but it made me appreciate the true essence of life, which is often overlooked and easily passed by. "Is likening this to the process of a pilgrim walking the path of pilgrimage an exaggerated metaphor?"

This marked the beginning of the Earth series, and the series is still ongo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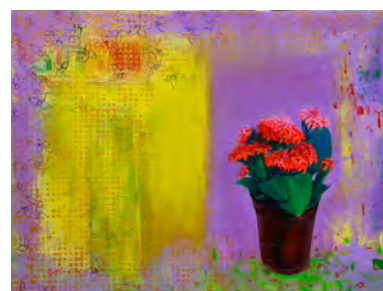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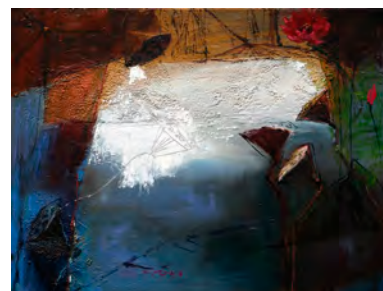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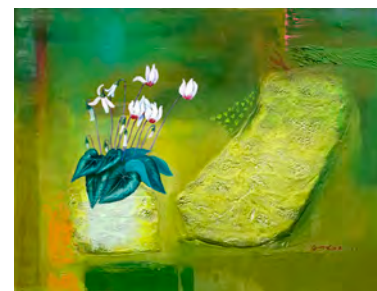
As the saying goes, "Do not be sad that the flower withers, as fruit will bear in its place," various relationships and experiences through the principle of creation and circulation become history and life. Sometimes flowing smoothly, sometimes entangling and twisting, the modern people who live busy lives and move around without settling in one place might find healing in my artwork. Like a habit, I continue to immerse myself in today's joyful imagination, stuck in happy contemplation.

- Jeong wookyung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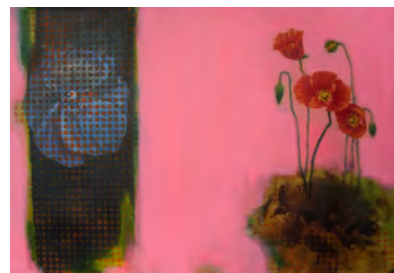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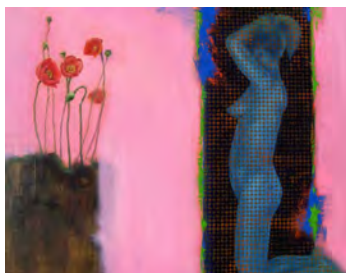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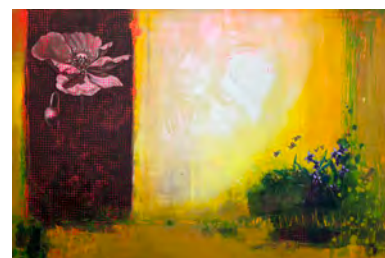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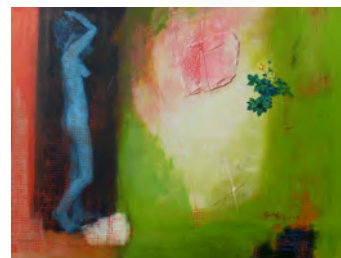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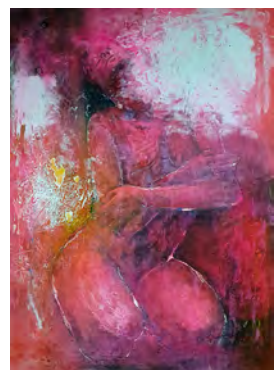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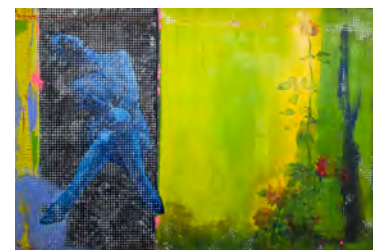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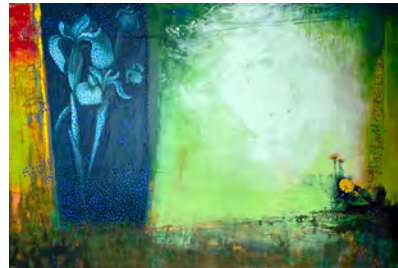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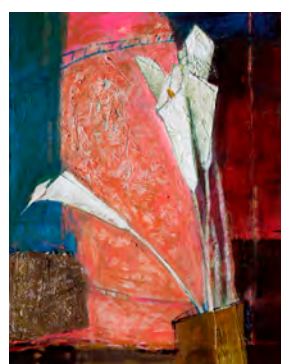
2009~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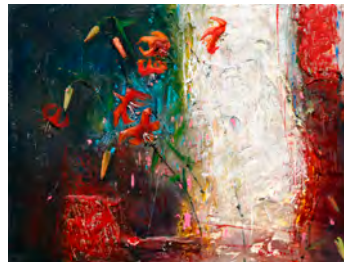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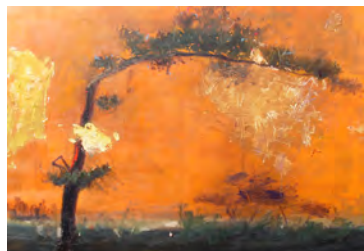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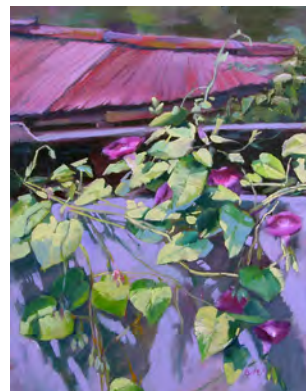
#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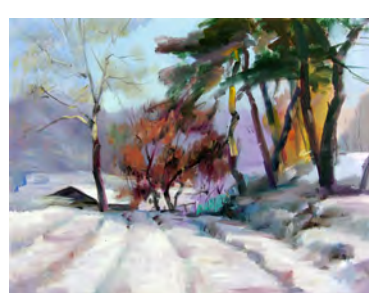
# 2009~







# 2007~





# 2006~



# 2007~



2005~



2006~





# 2003~04



# 2005~





2000~02













# JEONG, WOO-KYUNG

## 2024

대전광역시미술대전 초대작가전 (06.16~21) 대전시립미술관  
조형미술 아트페어전 (06.04~16) 비오케이아트센터/세종  
한국현대미술 신기획 제81회 정기전 (05.29~06.04) 라메르갤러리/서울  
진주야외사생화·대전구상작가협회 교류전 (05.23~28) 경남문화예술회관/진주  
제49회 충청북도 미술대전 심사위원 위촉장 (05.04) 충청북도미술협회  
2024 감영길 드로잉전 (04.23~05.05) 이미정갤러리/공주  
아시아국제교류전 (04.10~14) 동경예술극장/일본  
2024 대전아트페스티벌 (03.21~28) 대전예술가의 집 3층/대전  
대전미술협회 새롭게 걷다전 (02.13~03.04) 대전MBC M갤러리/대전

## 2023

용 그림전 (12.28~2024.01.03.) 윤갤러리/대전  
송주미술관 기획 정우경 초대전 (12.01~31) 송주미술관/금산  
MY FRIEND KIM LEE & PARK (11.25~12.02) 갤러리 문/뉴욕  
조형미술협회 세종지회 정기전 (11.21~26) 세종시문화예술회관/세종  
2023 대전국제아트쇼 (11.16~19) DCC 제2전시장/대전  
대전현대미술협회 정기전 (11.16~19) 우연갤러리/대전  
대전미술협회 여성특별위원회 소품전 (11.09~11.14) 대전시청 1전시실/대전  
공주그림상점로 (10.24~29) 갤러리 쉬갈/공주  
[구상미술을 이끈다] 대전구상작가협회 정기전 (10.11~17) 대전MBC M갤러리/대전  
2023 인류 평화의 흐름전 (09.24~10.02) 줌갤러리/세종  
2023 G-ART Seoul (09.21~10.02) 금보성 아트센터/서울  
2023 충청예술 초대작가전 (09.14~27) 유원갤러리/대전  
조선통신사 문화의 바람전 (09.12~25) 이미정갤러리/공주  
정우경 초대전 (07.05~11) 아트볼갤러리/서울  
제25회 대전여성미술가협회전 (07.06~11) 대전시청 1전시실/대전  
공주그림상점로 (06.20~25) 갤러리수리치/공주  
대한민국 중심대표작가 초대전 (06.18~30) 비오케이아트센터/세종  
전국 여류화가 100인 초청전 (06.09~15) 익산 예술의전당/익산  
대전광역시미술대전 초대작가전 (06.08~12) 대전시립미술관  
한국현대미술 신기획 제80회 정기전 (05.31~06.05) 라메르갤러리/서울  
공주그림상점로 (05.23~28) 이미정갤러리/공주  
미술은 살아있다전 (05.17~30) 지혜의 숲/세종  
목원동행 2023전 (05.17~22) 목원대학교 미술관/대전  
대전미술협회 여성특별위원회 정기전 (05.10~14) 대전예술가의집/대전  
송주미술관 개관초대전 (04.29~05.29) 송주미술관카페/금산

한국현대미술신기획 LA아트페스티벌 2023 (04.27~05.01) Park View Gallery/미국  
정우경 개인전 (04.25~05.01) 이미정갤러리/공주  
2023 조형미술 감각 표현전 (04.24~05.02) 대전시청 1전시실/대전  
작은 그림, 봄날의 향기를 알리다전 (04.19~25) 한국미술관/서울  
공주그림상점로 (04.11~23) 이미정갤러리/공주  
2023 대전미술제 대전미술 새로운 향기전 (03.16~24) 대전예술가의 집 3층/대전  
제6회 세종화화제 미술의 봄전 (03.01~30) 지혜의 숲/세종  
아트지앤지기획 정우경 초대전 (02.27~03.17) DGB갤러리/대구  
정우경 개인전 (02.09~15) 윤갤러리/대전  
제35회 대전광역시 미술대전 운영위원 위촉장 (02.06) 대전미술협회  
한국조형미술협회&예랑회 교류전 (01.07~02.07) 소피아갤러리/세종  
대전미술협회 새롭게 걷다전 (01.06~02.28) 대전MBC M갤러리/대전  
윤갤러리 기획초대 가온전 (01.05~11) 윤갤러리/대전

## 2022

2022 아트청주 (12.15~18) 한국공예전시관 6전시실/청주  
대전현대미술협회전 (12.15~21) 우연갤러리/대전  
대전국제아트쇼 (12.10~13) 대전컨벤션센터/대전  
한국조형미술협회 세종시지회전 (12.06~12) 세종시문화예술회관/세종  
한국현대미술 튀르키예 초대전(11.20~26) ANTIK CISTERNA Gallery/튀르키예  
공주그림상점로 (11.22~27) 갤러리 쉬갈/공주  
금동인전 (11.21~26) 금산다락원 청산아트홀/금산  
당신의 가을도 눈이 부시도록 아름답습니다전 (11.01~30) Blue Boat 갤러리/대전  
조선통신사 만남전 (10.24~28) 공주문화원/공주  
안산국제아트쇼 (10.19~30) 안산문화예술의전당/안산  
[구상을 말하다] 대전구상작가협회 정기전 (10.12~18) 대전MBC M갤러리/대전  
예술로 잇다전 (10.04~30) 세종전통문화체험관 전시실/세종  
대전미술협회 여성특별위원회 소품전 (09.29~10.04) 대전시청 1전시실/대전  
한국조형미술의 모색전 (09.22~27) 대전시청전시실/대전  
공주그림상점로 (09.20~25) 이미정갤러리/공주  
FOCUS Art Fair BOOM Paris (09.01~04) Carrousel du Louvre/Paris  
G-ART Fair 서울 (08.24~28) 인사아트프라자/서울  
정우경 초대전 (08.17~23) G-ART갤러리/서울  
대전여성미술가협회전 (07.07~12) 대전시청 1전시실/대전  
대전광역시미술대전 초대작가전 (07.02~07.06) 대전시립미술관  
대전미술협회 여성특별위원회 10인 초대전 (07.01~30) Blue Boat 갤러리/대전  
OSAKA갤러리서울 초대전 (06.29~07.05) OSAKA갤러리/서울  
제79회 신기획 정기전 (06.29~07.05) 라메르갤러리/서울



공주그림상점로 (06.21~26) 이미정갤러리/공주

제5회 시중회화제 다시 이제부터전 (06.21~26) 세종시문화예술회관/세종

틱웁전 (06.04~09.03) K-Water본사 본관 1층 전시실/대전

공주그림상점로 (05.24~29) 대통길 미술관/공주

정우경 초대전 (05.01~31) 하늘갤러리/대전

대전미술협회 여성특별위원회 정기전 (05.11~15) 대전예술가의집/대전

제25회 정우경 개인전 (04.21~27) 이공갤러리/대전

뷰티 인 그레이스 그룹전 (04.13~19) 잠실 롯데월드타워 1층 로비/서울

공주 감영길전 (04.05~18) 이미정갤러리/공주

오사카갤러리 개관 6주년 기념 특별상 (03.27) 오사카갤러리/일본

2022 대전아토펙스티벌 (03.17~25) 대전예술가의집/대전

정우경/송은영 2인전 (03.14~04.02) 온아트갤러리/대전

연 잇다전 (03.03~03.27) 비오케이 아트센터/세종

제24회 정우경 개인전(초대) (02.23~03.01) 인사동마루아트센터/서울

대전미술협회 새롭게 걷다전 (02.04~21) 대전MBC M갤러리/대전

대전미술협회 여성특별위원회 재정분과위원장 임명 (02.19) 대전미술협회

세종예술인총연합회 예술인상 (02.15) 세종예총

세종미술협회 도약전 (01.19~04.10) 세종시립도서관/세종

뷰티 인 그레이스 그룹전 (01.04~10) 잠실 롯데월드타워 1층 로비/서울

정우경 초대전 (01.04~30) 기적의 도서관 북 갤러리/공주

22 드림아트 25인전 (01.01~31) Blue Boat 갤러리/대전

G·ART 한국회장단 작품전시회 -함께 앞으로- (08.04~13) 산촌갤러리/서울

제23회 보문미술대전 운영위원 초대전 (07.23~29) 대전중구문화원 전시실

제23회 정우경 개인전 (06.30~07.06) 인사동마루아트센터/서울

제6회 대전미협 여성특별위원회회원전 (06.22~27) 대전예술가의집 5관~8관/대전

대전광역시미술대전 초대작가전 (06.13~06.17) 대전시립미술관

봄 9인 초대전 모인갤리카페/대전

예술가의거리 감영길 스케치전 (06.09~22) 이미정갤러리/공주

제4회 세종회화제-6월의 이야기 (06.02~18) 박연문화관 전시실/세종

충청예술초대작가 지상초대전 (충청예술문화 2월호)

제78회 신기회 정기전 (05.26~07.01) 라메르갤러리/서울

다시 그리고 채우다-대전여성미술가협회 (05.18~24) 대전서구문화원

한국미술협회 서양화 1분과위원회 위원 위촉장 (04.28) 한국미술협회

한국조형미술협회 세종지부 정기전-세종애형상전/3RD (04.21~05.08) 세종BRT작은미술관

제22회 정우경 개인전 (04.11~20 ) 뮤지엄B/금산

부산국제회랑아트페어 (04.08~11) 백스코/부산

제21회 정우경 개인전 (04.05~30) 바른갤러리/대전

세종장검다리전 (03.31~2022.03.30.) 세종경찰서

제23회 보문미술대전 운영위원회 위촉장 (03.12)

행복열차전 (03.04~31) 이공갤러리/대전

미소한아름전 (01.05~02.28) 국립세종도서관

세종시민과의 만남전 (01.01~12.31) 세종시청로비

## 2021

세종남부경찰서장 감사장 (12.31) 세종남부경찰서

대전현대미술협회 정기전 (12.09~15) 우연갤러리/대전

공주그림상점로 (12.01~05) 이미정갤러리/공주

정우경 초대전 (12.01~31) 갤러리 씬/공주

금동인전 (11.22~27) 금산다락원 청산아트홀/금산

한국조형미술협회 정기전 (11.18~24) 현대갤러리/대전

아트 청주 2021 (11.14~18) 청주예술의전당/청주

대전국제아트쇼 우수작가상 (10.28) 대전미술협회

대전국제아트쇼 (10.28~31) 유성 골든하이 컨벤션센터/대전

대전구상작가협회 정기전 (10.13~19) 대전MBC M갤러리

제8회 세종시사생회 정기회원전 (10.02~10.15) 금강문화관 세종보갤러리

G·ART 나눔 특별전 (10.02~20) 나눔갤러리블루/경기 양주

상생형 문화거리 사업 공실미술관 전시 상가 안 소우주 (10.01~30) 메가시티 상가/세종

한국현대회화 100선전 (09.29~10.05) 인사동마루아트센터/서울

2021 COREART FESTIVAL (08.25~31) 인사동마루아트센터/서울

한국예술문화대상 우수작가상 (08.15) 통일명인미술대전

통일미술대축전 8,15광복절 특별기획 (08.14~17) 한국미술관/서울

2021 통일미술대축전 (08.11~17) 인사동한국미술관 3층/서울

## 2020

대전미술협회 이사장 표창장 (12.31) 대전미술협회

제3회 세종회화제 위로-따뜻한 마음전 (12.15~31) 박연문화관 전시실/세종

25인 드림아트 송년전 (12.15~31) Blue Boat/대전

송년 소품 3인 초대전 (12.01~12.30) 모인갤리카페/대전

대전구상작가협회 정기전 신구상전 (10.14~20) 대전MBC M갤러리

문화산책 예술바라보기 정우경전 (09.27~11.28) K-Water본사 본관3층 전시실

제20회 정우경 개인전 (09.25~10.15) 테이숏아트/대전

제19회 정우경 개인전 (09.15~10.30) 도토리 숲 랑갤러리/세종

제18회 정우경 개인전 (09.08~29) 금산다락원 청산아트홀/금산

2020 아트대전 100인 부스전 대전예술가의집

제2회 휴먼의 향기 (06.10~16) 마루아트센터/서울

제77회 신기회 정기전 (05.27~06.02) 라메르갤러리/서울

한국서예미술예총특별작가연합회 2020 인사동비엔날레 한국미술관/서울

제22회 대전여성미술가협회 정기전 - 대전의 사계를 찾아서

한국조형미술협회 정기전 자연과 조형미술의 교감전

제5회 대전미술협회 여성특별위원회 회원전

제46회 금동인전 금산다락원 청산아트홀/금산

한국조형미술협회 세종지회 정기전 - 위로의 정원 엠브리지전망대/세종



## 2019

M갤러리초대전/여성특별위원회 임원초대전 (02.19~25) 대전MBC M갤러리  
제17회 정우경 개인전 (02.11~18) 31갤러리/서울  
대전미술협회 여성특별위원회 재정분과위원장 임명장(02.03)  
2020 조형미술상 한국조형미술협회  
충청예술 초대작가전 (01.04~08) 대전중구문화원 전시실

소담한전시회 129인의 작가와 함께 (12.23~2020.01.14) 해화아트센터/서울  
AMSTERDAM WHITNEY GALLERY (10.04~11.21) New York/U.S  
라이프앤 컬처페어 (09.20~22) 세종컨벤션센터/세종  
베어트리파크의 가을전 (09.19~11.10) 베어트리파크전시실/세종  
제16회 정우경 개인전 (09.04~10) 인사동마루갤러리/서울  
정우경 초대전 (08.20~10.21) 예치과갤러리/대전  
SAF 세종아트페어 (08.15~18) 세종컨벤션센터/세종  
대전구상작가협회 40주년기념 소품전 (07.19~08.03) 청암아트홀/세종  
백제의 숨결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논산지회  
대전현대미술협회 기획전 NEW ISLAND  
세종미술 기획전 BOK 아트센터/세종  
코리아아트페스티벌 온세아트센터개관기념 초대전  
제45회 금동인전 금산다락원 청산아트홀/금산  
살롱 앙데팡당 한국전 (06.17~07.05) 유니끄갤러리/용인  
제2회 세종회화제 6월의 꽃향기전 (06.15~28) 청암아트홀/세종  
한중 문화교류작가초청전 (06.05~19) 주중한국문화원  
마곡사의 향기전2 (06.04~07.10) 공주국립박물관 전시실  
한국조형미술협회 - 대전의 숨결전 (04.25~30) 대전시청전시실  
세종사생회 정기전 - 세종의 꿈을 그리다 청암아트홀/세종  
대전구상작가협회전 구상미술40년 명화갤러리/대전  
대전광역시미술대전 초대작가전 대전시립미술관  
SAF 세종아트페스티벌 세종컨벤션센터/세종  
살롱아트쇼핑 및 제5회 AIAM 에스프리 누보전/프랑스  
AIAM 에스프리 누보 올해의 작가상  
충청예술 초대작가상 1차 (충청예술문화 8월호)  
충청예술 초대작가상 2차 (충청예술문화 10월호)  
충청예술 초대작가 인증서  
대전광역시미술대전 초대작가 지정서 (03.20)  
르살롱드 앙데팡당 아트케피탈 (02.12~17) 프랑스  
한국조형미술평화세종지회 감사 위촉장

## 2018

세종 징검다리전 (11.22~2019.11.21.) 세종경찰서  
ONLY WOMEN 50인전 (11.16~26) BH갤러리/경기  
DIAS 대전아트쇼 (10.25~29) 대전무역전시관  
제15회 정우경 개인전 (10.22~11.22) 정우경갤러리/세종  
제12회 르살롱드 앙데팡당 아트케피탈 프랑스  
대전구상작가협회.한유미술협회 교류 회화-신조형의 확산전/대전예술가의집  
제22회 아시아미술대전 초대작가전  
제1회 세종회화제 6월의 바람전 청암아트홀/세종  
금산여성문화제  
대전현대미술협회운영위원 위촉장 (07.11)  
한중 문화교류작가초청전 (07.05~12) 주중한국문화원  
조형미술의 확산전 한국조형미술협회  
제7회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 바마 (06.22~25) 벅스코/부산  
발왕산의 꿈 스케치전 (06.17~09.18) 용평리조트/강원  
제5회 세종사생회 정기전  
대전현대미술협회 대전현대미술특별전 우연갤러리/대전  
WE ART전 대전MBC M갤러리  
한국조형미술협회운영이사 위촉장 (05.31)  
제14회 정우경 개인전 (04.28~05.28) 정우경갤러리/세종  
추풍가색전 한국미술협회  
공주백제 미술전시회 백제권 추천작가 초대전/공주  
제30회 대전광역시미술대전 특선 (서양화)  
정우경 초대전 (02.22~04.18) 제일치과갤러리/논산  
구일병구하기전 (01.09~02.08) 쿠파갤러리/서울

## 2017

한 그림 내 곁에전 (12.27~2018.01.16.) 이미정갤러리/공주  
제15회 그린 아우라 정기전 감성 DMZ전 (12.26~2018.01.09.) 콤마인갤러리/서울  
서울아트쇼 (12.23~27) 코엑스/서울  
DIAS 대전아트쇼 (11.23~27) 대전무역전시관  
제13회 정우경 개인전 (11.06~26) 카페북/대전  
백제인의 예술혼전 (08.24~28) 공주문화원  
제12회 정우경 개인전 (07.31~09.02) 소피아갤러리/세종  
이미정갤러리 기획 여름전 (07.19~08.15) 이미정갤러리/공주  
세종예술제 세종국제교류 70인 초청전 한국예총세종연합회  
세종시사생회 정기전 청암아트홀/세종  
대전구상작가협회.한유미술협회 교류 신구상전/대전예술가의집  
한국구상대제전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서울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 바마 (04.20~24) 벅스코/부산  
제47회 대전사생회 정기전 및 6대광역시 사생회 작가 초대전/대전시립미술관  
제43회 금동인전 금산다락원 청산아트홀/금산



제11회 정우경 개인전 (03.29~04.04) 인사아트프라자갤러리/서울  
공주백제 미술전시회 백제권 추천작가 초대전/공주  
미문소초대전 (01.17~30) 서울고속버스터미널/서울  
정우경 초대전 (01.12~02.01) 시인과농부갤리카페/대전

제10회 정우경 개인전 (11.28~12.02)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대전구상작가협회 소품전 (11.14~30) 카페봄/대전  
SCAF ART FAIR 2016 (11.03~06) 롯데호텔/서울  
제9회 정우경 개인전 (10.16~10.31) 청암아트홀/세종  
제8회 정우경 개인전 (09.09~21) 자미갤러리/광주  
제3회 WITH ARTFAIR 2016 (08.18~21)  
제7회 정우경 개인전 (06.27~07.02) 세종문화예술회관/세종  
정우경 초대전 (06.08~08.31) 속플러스스내과/청주  
서구힐링아트페스티벌 아트마켓 (05.06~08)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현대미술협회 정기전 전략시대전  
세종시사생회창립전 세종특별자치시청  
세종특별자치시 가을예술제 문화예술작가 연합작품전  
대전미술제 한국미술협회 대전광역시지회 대전예술가의집  
2016 세종화화제 위로- 따뜻한 마음전  
제46회 대전사생회 정기전  
제45회 대전사생회 정기전 (05.05~10) 대전시청 2전시실  
대전사생회 봄마중전 (04.01~21) 그림을마시다갤러리/대전  
대전구상작가협회 유성문화원 기획전 봄을 피우다전 (03.14~19)  
살롱드서리플 더 살롱전 (03.01~04.15) 살롱드서리플갤러리/서울  
풍경속풍경전 (01.21~31) 이공갤러리/대전  
한유미술협회,대전구상작가협회 교류 신조형전/대구문화예술회관  
제42회 금동인전 금산다락원 청산아트홀/금산  
한국조형미술협회 가고싶은 세종명소 13선  
제28회 대전광역시미술대전 입선 (서양화)

제6회 보은국제아트엑스포  
한일아트페어 한일국교정상화50주년기념 한일작가교류전 Takamatsu/Japan  
구상의 숨결 대전구상작가협회 정기전/대전  
사랑의 지평 대전미술의 주역전 선화기독교미술관/대전  
대전현대미술협회전 물&환경 대청담물문화관/대전  
제3회 한국조형미술협회 정기전 대전명소 12선/대전  
대전우정갤러리개관기념 50인 초대전 (09.01~30)대전우정갤러리/대전  
대전미술제 한국미술협회 대전광역시지회/대전  
IACEA 자연.인간.문화 4 제17회 국제문화예술교류전 (07.31~08.07) 평택  
첸나이챔버비엔날레 (07.27~08.06) Lalit Kala Akademi/India

독도를 사랑하는 우리들 (06.27~28) 으능정이거리/대전  
대전현대미술협회 정기전 우연갤러리/대전  
대전현대미술협회전 (06.25~07.01) 우연갤러리  
월요사랑전 대전MBC M갤러리  
제44회 대전사생회 정기전 (04.15~21) 대전MBC M갤러리  
가이스트 & 패밀리에전 갤러리 모던&모던  
제27회 대전광역시미술대전 입선 (서양화)  
정우경 초대전 (02.09~05.09) 부르힐에스테틱/서울  
제6회 정우경 개인전 (01.21~27) 가나아트스페이스/서울

## 2014

대전현대미술협회 BOX갤러리 24시전 (08.11~09.15) 대흥동/대전  
정우경 초대전 (04.15~06.16) 예치과갤러리/대전  
한국전업미술가협회 대전세종지회 정기전 자연과 순수미술의 만남전  
제40회 금동인전 금산다락원 청산아트홀/금산  
제2회 한국조형미술협회 정기전 대전명소 12선/대전  
대전현대미술협회 정기전 우연갤러리/대전  
K-art 거리소통 프로젝트 미술로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전  
제43회 대전사생회 정기전/대전갤러리

## 2013

Affordable Art Fair Seattle (11.06~10) Seattle/U.S  
대전현대미술협회 BOX갤러리 24시전 (09.05~10.17) 대흥동/대전  
K-ART Project 2013 (07.13~20)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서울  
제5회 정우경 개인전 (04.19~25) LH갤러리/대전  
대전현대미술협회 정기전 우연갤러리/대전  
대전구상작가협회 대전 구상의 조망전 대전MBC M갤러리  
제39회 금동인전 금산다락원 청산아트홀/금산  
사제 동행전 LH갤러리/대전  
제1회 한국조형미술협회 정기전 대전명소 12선/대전  
정부세종청사 예술품 전시회 자연과 인간전 정부세종청사/세종  
제42회 대전사생회 정기전/대전시청 전시실  
대전.세종 전업미술가협회이사 위촉장  
제25회 대전광역시미술대전 입선 (서양화)

## 2012

ART Asia Miami (12.05~09) 영아트갤러리 Miami/U.S  
제4회 정우경 개인전 (10.17~23) 영아트갤러리/서울  
아트뉴욕 코리아 아트페스티벌 (05.07~16) BCS갤러리 New York/U.S  
제3회 정우경 개인전 (02.10~16) LH갤러리/대전  
왕인의 고향 월출산 제7회,제8회영암  
제14회 대전여류화가회 정기전/대전시청 전시실  
제5회 대한민국 누드미술대전 특선  
대전.대구.광주 내륙거점도시 유명작가 초대전

## 2015



2011

제41회 대전사생회 정기전/대전시청 전시실  
대전현대미술협회전 우연갤러리/대전  
제2회 대한민국남부현대미술협회 전북지회 국제교류전  
제24회 대전광역시미술대전 입선 (서양화)

제27회 대한민국남부국제현대미술제  
왕인의 고향 월출산 제6회 영암  
제6회 대한민국 6대광역시 사생회 교류전  
2011 서울 아세아미술초대전  
2011 조형언어의 표현전  
제40회 구상전 공모대전 특선  
제13회 대전여류화가회 정기전/대전시청 전시실

2010

제5회 대한민국 6대광역시 사생회 교류전 및 특별전  
현대갤러리기획전 제9회 한국미술 내일의 주역전  
제9회 TJB형상미술대전 입선  
제10회 대전충청 청년미술제 (09.16~10.13) 대전미술협회갤러리/대전  
제12회 대전여류화가회 정기전  
대전아트페스티벌 2010 대전미술제  
제3회 대한민국 누드미술대전 특선  
2010 대한민국 선정작가전 미술과 비평 선정작가상  
제40회 대전사생회 정기전  
제39회 구상전 공모대전 입선

2009

제2회 정우경 개인전 (07.06~09.30) 금산군청갤러리/금산  
제1회 정우경 개인전 (06.25~07.01) 롯데갤러리/대전  
제8회 TJB형상미술대전 특선  
제11회 대전여류화가회 정기전  
제4회 대한민국 6대광역시 사생회 교류전/대전시립미술관  
제38회 구상전 공모대전 입선  
2009 대전미술제 새천년 한국성전  
제35회 금동인전 금산다락원 청산아트홀/금산  
제5회 동행전 (04.28~05.07) 대청문화화관 전시실/대전  
제24회 모란현대미술대전 입선  
제2회 대한민국 누드미술대전 입선  
제21회 대전광역시미술대전 특선 (서양화)  
제28회 대한민국미술대전 구상부문 입선

2008

제7회 TJB형상미술대전 특선  
제10회 대전여류화가회 정기전

2007

제37회 구상전 공모대전 특선  
2008 광주비엔날레기념 대한민국 6대광역시 사생회 교류전/광주  
제1회 대한민국 누드미술대전 특선  
제10회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 입선/대전서구문화원

제37회 대전사생회 정기전 자연의 향기전/대전갤러리  
제31회 대구사생회 정기전 초대  
제2회 대한민국 6대광역시 사생회 교류전/울산  
제9회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 입선/대전서구문화원  
제9회 보문미술대전 입선/대전중구문화원  
제19회 대전광역시미술대전 입선 (서양화)  
제6회 TJB형상미술대전 입선

2006

제1회 대한민국 6대광역시 사생회 교류전/부산  
제8회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 입선/대전서구문화원  
제35회 대전사생회 정기전

2005

제7회 보문미술대전 입선/대전중구문화원  
제7회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 특선/대전서구문화원  
제6회 신사임당미술대전 입선/한국미협강릉지부

2004

제33회 대전사생회 정기전  
제6회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 입선/대전서구문화원  
제6회 보문미술대전 입선/대전중구문화원  
제1회 대한민국한발미술대전 입선/국가보훈문화예술협회 대전지회

2003

제32회 대전사생회 정기전  
제5회 보문미술대전 입선/대전중구문화원  
제5회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 입선/대전서구문화원  
제53회 개천미술공모대상전 입선

2002

제4회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 입선/대전서구문화원



# 뜨개는 사랑이다

Knitting is Love.

정우경

과거, 현재

그리고...

Jeong, Woo Kyung

Past,

Present

and...

발행인 | 정우경

발행일 | 2024. 6.17

디자인 | FINEDESIGN

출 력 | 카라그래픽스

제 본 | 양지사

© 본 화집에 수록된 이미지와 콘텐츠의 저작권은 정우경 작가에게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사전동의 없는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